

본 자료는 법무부에서 외주 사업을 통해 번역한 문서로, 법무부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인용이 불가합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처원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내무부

국가정책정보노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대한 두려움

버전 5.0

2025년 8월

목차

개요	6
평가	7
평가에 대하여	7
1. 주요 사실, 신뢰성 및 기타 확인/추천 사항	7
1.1 신뢰성	7
1.2 배제	8
2. 협약상 사유	8
3. 위험	9
3.1 위험에 처한 집단의 일반적 개요	9
3.2 전직 경찰, 보안군 및 군 장교(및 그 가족 구성원)이거나 통역사 등 국제군 및 국제기구와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위험	10
3.3 전직 정부 관리(및 그 가족 구성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위험	11
3.4 반정부 무장 단체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위험	11
3.5 언론인을 포함하여 정치적 또는 이념적으로 탈레반에 반대 입장을 표방하는 인물(비무장 정치적 반대)에 대한 위험	12
3.6 전직 변호사, 판사 또는 검사 경력을 주장하는 인물에 대한 위험	12
3.7 여성에 대한 위험	12
3.8 성소수자(LGBTI)에 대한 위험	13
3.9 민족 및 종교 소수자에 대한 위험	13
3.10 귀환자 및 '서구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인물에 대한 위험	14
4. 보호	15
5. 대안적 국내 피신	15
6. 인정	16
국가정황정보	17
국가정황정보에 대하여	17
7. 탈레반의 통치	17
7.1 탈레반의 조직 구조	17
7.2 영토 지배	18
7.3 국제적 인정	18
8. 사법 및 법치주의	19
8.1 사법제도	19

8.2	사법 집행.....	21
9.	탈레반에 관한 보도 및 언론인의 처우.....	22
10.	이전 정부 및 그 보안군과 관련된 사람.....	25
10.1	탈레반의 '일반 사면'.....	25
10.2	'일반 사면'의 적용.....	26
10.3	개인적 분쟁, 불화 및 경쟁.....	27
10.4	대상자의 인적사항: 전직 경찰 및 군대(및 그 가족 구성원).....	28
10.5	대상자의 인적사항: 외국군과 연계된 사람(및 그 가족 구성원).....	33
10.6	대상자의 인적사항: 전 정부 관리,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공식 직책 또는 자문 역할을 수행한 인물(및 그 가족 구성원).....	34
10.7	대상자의 인적사항: 전직 판사, 변호사 및 검사.....	38
11.	반정부 무장 단체와 연계된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	40
11.1	주요 반정부 무장 단체.....	40
11.2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	41
11.3	국민저항전선(NRF).....	42
11.4	아프가니스탄 자유전선.....	42
11.5	그 밖의 반정부 무장 단체.....	43
11.6	주요 반정부 무장 단체에 대한 탈레반의 반응.....	43
12.	그 밖의 탈레반에 대한 '반대'.....	44
13.	민족 및 종교 소수자.....	45
13.1	민족 및 부족 정체성.....	45
13.2	민족 및 부족 인구 통계.....	46
13.3	민족/종교 집단에 대한 일반적 처우.....	48
13.4	비실천 무슬림.....	49
13.5	시아파 및 하자라족.....	50
13.6	시크교도 및 힌두교도.....	51
13.7	기독교도.....	52
14.	여성과 여아.....	53
14.1	여성과 여아에 대한 일반적 상황.....	53
14.2	여행, '마흐람(mahram)'(보호자) 규칙.....	55
14.3	여성과 여아에 대한 복장 규정.....	55
14.4	교육 접근성.....	56
15.	성소수자(LGBTI).....	57

16. 아프가니스탄으로의 귀환(자)	60
16.1 일반적 귀환(자)	60
16.2 이란, 파키스탄 및 튀르키예로부터의 귀환(자).....	60
16.3 '서구화'의 개념	64
16.4 복장 및 외모	66
16.5 '서구화된' 사람에 대한 탈레반의 반응.....	70
연구방법론	73
작업지침.....	74
참고문헌.....	75
인용 출처	75
Sources consulted but not cited	80
버전 관리 및 피드백	82
내무부에 대한 피드백	82
국가정황정보독립자문단	82

개요

2021년 8월 15일 이후 탈레반(Taliban)은 (난민협약 제1조제(A)항제(2)호의 목적상) 국가의 지배 세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탈레반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서 지도부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신념 체계와 지시를 따르는 단일한 위계조직으로 활동한다.

실제로 탈레반은 서로 다른 부족, 민족, 배경 및 역사를 지닌 파벌들의 집단이다. 이러한 특성과 지도부가 발표한 칙령을 둘러싼 모호성이 결합되어, 지시 이행은 종종 재량에 맡겨지거나 지역 사령부로 위임되는 경우가 많다.

탈레반을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했던 조직과 단순히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탈레반은 본질적으로 이슬람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집단을 구성하는 다양한 파벌,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경험, 그리고 2001년부터 2021년까지 반군 단체로서 겪은 경험을 통해 접근 방식이 다소 온건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젠더와 관련하여 중대한 인권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많은 집단이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박해 위험에 계속 직면해 있다. 그러나 탈레반이 저지른 모든 사건을 조직적인 표적 공격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이는 개별 탈레반 구성원과의 개인적 분쟁, 불화 또는 경쟁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각 사례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귀환 시 실질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마찬가지로, 이 문서에서 참고한 출처에 모든 집단이 탈레반의 박해를 받을 실질적 위험에 처해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의 양은 제한적이다. 또한 탈레반에 대한 막연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두려움을 이유로 망명의 자격을 갖추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개인이 탈레반(사실상의 국가)의 박해를 두려워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개인이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을 가진 경우, 그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국내 다른 지역으로 피신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개인(미혼 여성 제외)이 개인적 분쟁, 불화 또는 경쟁으로 인해 개별 탈레반 구성원으로부터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에는 국내 피신이 가능할 수도 있다.

망명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망명신청이 「2002년 국적 이민 및 망명법(Nationality, Immigration and Asylum Act 2002)」 제94조에 따라 '명백히 근거 없음(clearly unfounded)'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모든 사례는 개별 사실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며, 박해 또는 심각한 위해에 직면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당사자에게 있다.

[목차로 돌아가기](#)

평가

업데이트 일자: 2025년 8월 5일

평가에 대하여

이 절에서는 이 문서와 관련된 증거, 즉 [국가정황정보](#), 난민/인권 관련 법률 및 정책, 적용 판례를 검토하고,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평가를 제공한다.

- 개인이 탈레반으로부터 박해/심각한 피해를 당할 위험에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지 여부
- 국가(또는 준국가 기관)가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박해/심각한 피해를 피하기 위한 대안적 국내 피신이 가능한지 여부
- 망명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2002년 국적 이민 및 망명법\(Nationality, Immigration and Asylum Act 2002\)」 제94조](#)에 따라 신청이 '명백히 근거 없음(clearly unfounded)'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만, 난민조사관은 각 사례의 구체적 사실을 고려하여 모든 망명신청을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국가정황정보](#)에서 인용된 출처는 탈레반(Taliban 또는 Taleban),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Islamic Emirate of Afghanistan, IEA), 이슬람 토후국, 임시 정부 또는 '탈레반 정부'를 혼용하여 지칭할 수 있다. 탈레반은 또한 스스로를 '무자헤딘(Mujahadeen)'이라 칭한다. 이 평가에서는 이들을 '탈레반'으로 지칭하며, 이들은 2021년 8월 15일부터 (난민협약 제1조 A(2)의 목적상) 국가의 지배 세력으로 간주된다.

[목차로 돌아가기](#)

1. 주요 사실, 신뢰성 및 기타 확인/추천 사항

1.1 신뢰성

- 1.1.1 신뢰성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뢰성 및 난민 지위 평가 지침](#)을 참조한다.
- 1.1.2 난민조사관은 신청자가 이전에 영국 비자나 다른 형태의 체류 허가를 신청한 적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영국 비자 신청 기록과 일치하는 망명신청은 망명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 조사해야 한다([비자 신청 기록에 대한 망명 지침](#), [영국 비자 신청자의 망명신청](#) 참조).
- 1.1.3 난민조사관은 또한 국제 생체인식 공유 데이터 활용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생체인식 데이터 공유 절차\(Migration 5 생체인식 데이터 공유 절차\)](#) 참조).
- 1.1.4 신청자가 주장하는 출신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난민조사관은 가능하다면 언어 분석 테스트도 고려해야 한다([언어 분석에 대한 망명 지침](#) 참조).

내무부 비공개 민감 정보 – 시작

- 1.1.5 이 절의 정보는 내무부 내부 전용 자료로 제한되므로 이 문서에서 삭제
- 1.1.6 이 절의 정보는 내무부 내부 전용 자료로 제한되므로 이 문서에서 삭제

내무부 비공개 민감 정보 – 끝

1.2 배제

- 1.2.1 난민조사관은 하나 이상의 배제 조항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각 사례는 개별 사실에 근거하여 심사해야 한다.
- 1.2.2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lamic State in Khorasan Province, IS-KP, 일명 ISIL-KP, ISIS, Da'esh)와 국민저항전선(National Resistance Front, NRF)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2개의 주요 반정부 무장 단체이나, 소규모 단체도 여전히 남아 있다. 반정부 무장 단체는 탈레반에 대한 공격을 자행해 왔으며, 양측 모두 심각한 [인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다\(반정부 무장 단체와 연계된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 참조\)](#).
- 1.2.3 신청자가 난민협약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인도적 보호에서도 배제된다(인도적 보호의 배제 범위는 난민 지위의 배제 범위보다 더 넓다).
- 1.2.4 배제 및 조건부 체류허가에 대한 지침은 [난민협약 제1F조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배제, 인도적 보호 및 조건부 체류허가에 대한 지침](#)을 참조한다.

내무부 비공개 민감 정보 – 시작

- 1.2.5 이 절의 정보는 내무부 내부 전용 자료로 제한되므로 이 문서에서 삭제
- 1.2.6 이 절의 정보는 내무부 내부 전용 자료로 제한되므로 이 문서에서 삭제
- 1.2.7 이 절의 정보는 내무부 내부 전용 자료로 제한되므로 이 문서에서 삭제

내무부 비공개 민감 정보 – 끝

2. 협약상 사유

- 2.1.1 다음의 경우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전 정부 관리, 판사, 변호사 및 검사, 탈레반에 비판적인 언론인, 인권 옹호자 등 탈레반과 실제 또는 전가된 이념 차이가 있는 사람인 경우
 - 특정 사회 집단(Particular Social Group, PSG)을 구성하는 성소수자
 - 특정 사회 집단(PSG)을 구성하는 아프가니스탄 여성
 - 인종 및 종교에 따른 민족적 및 종교적 집단
- 2.1.2 다음의 경우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
- 탈레반에 대한 막연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
 - '서구화'되었다고 주장하거나 그렇다고 인식되는 사람. 이들은 선천적 특성이나 변경할 수 없는 공통의 배경을 공유하지 않으며, 정체성이나 양심에 매우 근본적이어서 포기를 강요받아서 안 될 특성이나 신념을 공유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정 사회 집단(PSG)을 구성하지 않는다. 또한 주변 사회가 해당 집단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뚜렷한 정체성을 갖지도 않는다. 다만, 2021년 9월 15일 심리된 [YMKA 외\(이른바 '서구화' 관련\) 이라크 UKUT](#)

00016 (IAC) 사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상급재판소(UT)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난민협약은 사회적 보수주의 그 자체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자유로운 생활방식을 향유할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a) '서구화된' 생활방식이 정치적 의견 또는 종교적 신념과 같이 보호되는 특성을 반영하는 경우

(b) 해당 개인이 자신의 서구화를 숨길 수 없게 만드는 실질적 위험이 있고, 따라서 박해 행위자가 보호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경우'

2.1.3 협약상의 사유를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에 충분하지 않다. 실제 또는 추정되는 난민협약 상의 사유로 인해 개인이 박해에 대한 충분히 근거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2.1.4 5가지 [난민협약상 사유에 관한 자세한 지침은 신뢰성 및 난민 지위 평가 지침](#)을 참조한다.

[목차로 돌아가기](#)

3. 위험

3.1 위험에 처한 집단의 일반적 개요

3.1.1 탈레반으로부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전직 아프간 특수부대 구성원
- 전직 국가안보국(National Directorate of Security, NDS) 구성원, 특히 '해외군' 또는 국제군의 훈련을 받았거나 이들과 함께 근무했거나 연계된 사람
- 전직 아프간 국방안보군(Afghan 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Forces, ANDSF) 구성원
- 전직 아프간 국가경찰(Afghan National Police, ANP) 및 아프간 지역 경찰(Afghan Local Police, ALP) 구성원
- 통역사를 포함하여 국제군 및 국제기구의 전직 직원 및 이들과 연계된 사람

3.1.2 개인의 근무 시점, 고용 기간, 역할, 책임 및 직급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2021년 8월 탈레반 집권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거주한 기간 및 아프가니스탄 외부에서 거주한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

3.1.3 탈레반으로부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문화적 및 종교적 기대/관습을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여성

- 하자라족
- 종교적 소수자 및 비이슬람교도
- 탈레반에 비판적인 언론인
- 탈레반에 비판적인 인권 옹호자
- 반란 시기 동안 탈레반 구성원의 기소 및 선고에 관여한 판사 및 검사
-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간성인 사람
- 반정부 무장 단체 소속원([배제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3.1.4 탈레반이 저지른 모든 사건을 조직적인 표적 공격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개별 탈레반 구성원과의 개인적 분쟁, 불화 또는 경쟁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각 사례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검토해야 하며, 귀환 시 실제적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점을 필요한 입증 기준에 따라 소명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3.1.5 탈레반으로부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탈레반에 대해 막연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평판'에 근거하여 탈레반이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 등)
- 현직 또는 전직 정부 관리, 공무원이나 그 밖에 공식 직책 또는 자문 역할을 했던 사람
- 단순히 해외에서 망명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 서구 국가에서 시간을 보낸 후 '서구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3.1.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험 평가에 대한 지침은 일반적으로 [신뢰성 및 난민 지위 평가에 관한 망명 지침](#)에 있다.

[목차로 돌아가기](#)

3.2 전직 경찰, 보안군 및 군 장교(및 그 가족 구성원)이거나 통역사 등 국제군 및 국제기구와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위험

3.2.1 탈레반은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후, 국제군 업무에 종사한 사람과 아프간 경찰을 포함하여 전 정부 관리 및 아프간 국방보안군(ANDSF) 구성원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다. 이는 탈레반 반란 기간에도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정책으로 알려졌으며, '서구의 지원을 받은 (전) 정부'의 실패에 대한 서사를 부각하고, 잠재적 신병을 모집하며, 국민 사이에서 탈레반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탈레반의 '일반 사면'](#) 참조).

3.2.2 그러나 실제로는 탈레반이 사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보고된 사례로는 초법적 살인, 임의 체포 및 구금, 고문 및 가혹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는 특히 전직 아프간 국가경찰(ANP) 및 아프간 지역 경찰(ALP), 보안군 및 아프간 국방안보군(ANDSF) 관리(및 그 가족 구성원)와 관련하여 보고되었으며, 특히 전 국가안보국(NDS) 관리에 대한 보고가 많았다. 통역사를 포함하여 국제군 및 국제기구를 위해 일한 사람도 피해자가 됐다(['일반 사면'의 적용, 대상자의 인적사항: 전직 경찰 및 군인\(및 그 가족 구성원\)과 대상자의 인적사항: 외국군과 연계된 사람\(및 그 가족 구성원\)](#) 참조).

- 3.2.3 피해자 수는 수치에 대한 이견이 있어 파악하기 어렵다. 관련 보고에 따르면 4만 명에서 5만 명, 최대 3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2021년 8월 이후 국내에 잔류하고 있는 전 보안 요원의 실제 수는 파악되지 않았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ited Nations Assistance Mission in Afghanistan, UNAMA)에 따르면 2021년 8월 15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800건의 위반 사례가 보고되었으나, 이는 전체 인원 대비 적은 수치로 보이며, 대부분 탈레반 집권 후 수개월 내에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 공격 보고는 지속되고 있다([전 정부 및 그 보안군과 연계된 사람](#) 참조).

[목차로 돌아가기](#)

3.3 전직 정부 관리(및 그 가족 구성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위험

- 3.3.1 일반적으로, 가용한 정보에 따르면, 정부 관리, 공무원이나 그 밖에 공식 직책 또는 자문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 박해나 심각한 위해의 실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규칙성, 규모, 강도로 표적이 된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 3.3.2 탈레반의 일반 사면은 공무원을 포함한 전직 정부 관리나 그 밖의 공식 직책 또는 자문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에게도 적용되었다. 탈레반은 국가 운영에 이들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혀왔다. 이들이 고위직에서는 배제된 것으로 보이나, 탈레반은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는 등 이들의 귀국을 허용하거나 이전 직책에 유임 또는 복귀하도록 하는 방침을 대체로 준수하는 것으로 보인다([대상자의 인적사항: 전직 정부 관리, 공무원이나 그 밖에 공식 직책 또는 자문 역할을 했던 인물\(및 그 가족 구성원\)](#) 참조).
- 3.3.3 전 정부 및 정부 체제 연계 인물에 대한 표적화 보고는 공식 직책 또는 자문직 종사자와 현역 경찰 또는 군 관계자에 대한 처우를 혼동하거나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은 2021년 8월 15일 탈레반이 집권한 이후 2023년 6월 30일까지 전직 정부 관리 및 아프간 국방안보군(ANDSF) 구성원에 대한 800건의 인권 침해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출처는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각각의 위반 행위가 몇 건 발생했는지, 아프간 국방안보군(ANDSF) 구성원 대비 정부 관리를 대상으로 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대상자의 인적사항: 전 정부 관리,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공식 직책 또는 자문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및 그 가족 구성원\)](#) 참조).

[목차로 돌아가기](#)

3.4 반정부 무장 단체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위험

- 3.4.1 2개의 주요 반정부 단체 중 하나는 판지쉬르(Panjshir)주 및 그 주변에서 활동하는 국민저항전선(NRF)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직 아프간 국방안보군(ANDSF) 요원과 전직 탈레반 전투원 중 일부가 국민저항전선(NRF)에 합류했다고 한다. 국민저항전선(NRF)의 규모와 역량에 대한 정보는 다양하다. 그러나 2023년 1월 외교관계위원회(Council of Foreign Relations)는 이들이 탈레반의 통제권을 위협할 만큼 강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주요 반정부 무장 단체 및 국민저항전선\(NRF\)](#) 참조).

- 3.4.2 또 다른 주요 반정부 단체로는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lamic State in Khorasan Province, IS-KP, 일명 ISIL-KP, ISIS, Da'esh)가 있다([주요 반정부 무장 단체](#) 참조).
- 3.4.3 그 밖의 반정부 무장 단체로는 아프가니스탄 자유전선(Afghanistan Freedom Front, AFF), 아프가니스탄 국가수비대 전선(Afghanistan National Guard Front), 국민동원전선(National Mobilisation Front), 국가전투전선(National Battle Front), 아프가니스탄 연합전선(Afghanistan United Front) 및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 중 일부는 탈레반 집권 이후 아프가니스탄 내 공격이나 탈레반을 상대로 한 공격을 감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주요 반정부 무장 단체](#) 참조).
- 3.4.4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ehrik-i-Taliban Pakistan, TTP)은 아프간-파키스탄 국경을 따라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무장 단체이다. 이들은 파키스탄 내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반정부 단체'라기보다는 아프간 탈레반과 연계된 세력이다. 알카에다(Al-Qaeda)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현재 탈레반과 대립 관계에 있지는 않다.

[목차로 돌아가기](#)

- 3.5 언론인을 포함하여 정치적 또는 이념적으로 탈레반에 반대 입장을 표방하는 인물(비무장 정치적 반대)에 대한 위험
- 3.5.1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내 정당 활동을 금지했다. 무장 저항을 제외하면 주요한 '정치적 반대' 활동은 국외에서 전개되고 있다. 시위 및 시민 불복종 사례는 드물다. 언론에 공개된 시위 대다수는 여성 인권과 관련된 사안이다([그 밖의 탈레반에 대한 '반대'](#) 참조).
- 3.5.2 언론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나 자기 검열을 행하고 있다. 탈레반은 언론 활동 환경을 점차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언론인은 투옥, 감시, 보도 수정 압력 등의 협박과 괴롭힘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된다. 이는 탈레반이 민감하다고 판단하거나 탈레반에게 비판적인 보도 주제에서 특히 두드러진다([탈레반에 대한 보도 및 언론인에 대한 처우](#) 참조).

[목차로 돌아가기](#)

- 3.6 전직 변호사, 판사 또는 검사 경력을 주장하는 인물에 대한 위험
- 3.6.1 탈레반은 집권 후 모든 판사를 해임했으며, 이들의 복귀 사례는 여전히 드물고 확인되지 않는다. 전직 변호사, 판사 및 검사의 수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그 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탈레반은 일부 남성 검사와 변호사가 해당 직군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여성은 대부분 해임되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탈레반은 자신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검사와 판사에게 보복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박해에 대한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 경력 관련 증거는 상대적으로 불명확하다. 모든 경우, 본인이 해당 전문직에 종사했다는 점과 그 결과로서 귀환 시 실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필요한 입증 기준에 따라 소명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각 사례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한다.

[목차로 돌아가기](#)

- 3.7 여성에 대한 위험
- 3.7.1 2021년 8월 이후 탈레반은 여성의 사회적 및 정치적 권리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적 생활의 영역 또한 제한했다. 여성과 여아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박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마흐람(남성 동행자) 규칙의 시행으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었으며, 특히 일련의 칙령(및 그 시행 방식)을 통해 여성의 교육 및 고용 접근이 차단되었다. 복장 규정 또한 강제되고 있으며 그 단속 강도는 혼재된 양상을 보이나, 복장 규정 위반 혐의로 여성이 괴롭힘, 폭행, 구금 및 구금 중 가혹 행위를 겪었다는 보고가 확인된다. 구금된 여성과 여아의 석방은 가족 또는 공동체 내 남성 구성원의 보증 여부에 좌우된다([여성과 여아 참조](#)).

[목차로 돌아가기](#)

3.8 성소수자(LGBTI)에 대한 위험

- 3.8.1 2008년 10월 28일 심리한 국가 지침 판례 [AJ\(동성애자에 대한 위험\) 아프가니스탄 CG \[2009\] UKAIT 00001\(2009년 1월 5일\)](#) 사건은 남성 동성애자의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AJ 사건](#)의 판결은 탈레반의 집권 이전에 내려졌으며, 가용한 국가정황정보(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COI)에 따르면 상급심판소(UT)의 기존 판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매우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
- 3.8.2 동성 간 성행위는 이전 정부 시기와 마찬가지로 탈레반 정권하에서도 여전히 범죄로 규정되며, 채찍형 및 잠재적으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탈레반 집권 이후, 가족 및 탈레반 연계 인물에 의한 성소수자(LGBTI) 대상 폭력과 차별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확인된다. 인권옹호단체가 협박, 구금 및 학대 사례를 보고하고 있으나, 레즈비언 및 양성애자의 상황에 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트랜스젠더는 가중된 차별과 폭력에 직면해 있다. 다수의 성소수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행동 양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행위는 (기존의 사회적 낙인과 탈레반의 정책으로 인해) 아프간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다. 이를 공개하는 인물은 차별, 배제 및 폭력에 직면하게 된다([성소수자\(LGBTI\) 참조](#)).

[목차로 돌아가기](#)

3.9 민족 및 종교 소수자에 대한 위험

- 3.9.1 아프가니스탄은 수니파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이다. 파슈툰족은 최대 민족 집단을 구성하며 탈레반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소수 시아파 무슬림은 탈레반과 역사적 갈등을 겪어왔으며, 공식적 및 사회적 차별에 지속적으로 직면해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박해 또는 심각한 위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 이와 다른 정황을 입증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민족 및 종교 소수자 참조](#)).
- 3.9.2 대다수가 시아파 무슬림인 하자라족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 하자라족은 탈레반에 의한 학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박해의 실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하자라족은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lamic State Khorasan Province, ISKP)의 주요 표적이다([시아파와 하자라족 참조](#)).
- 3.9.3 아프가니스탄에 잔류 중인 극소수(약 50명)의 시크교도 및 힌두교도에 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탈레반이 재산권 회복 노력, 이례적인 카불 평의회 지역사회 대표 임명 등 시크교도 및 힌두교도의 안전과 종교의 자유 보장을 공언했으며, 지속적인 안보 불안 및 경제난으로 인해 그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시크교도 및 힌두교도 참조](#)).
- 3.9.4 기독교인은 수천 명으로 추산되며, 대다수는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인물로 파악된다. 그러나 탈레반은 기독교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개종자를 배교자(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로 규정함에 따라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은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기독교인 참조](#)).

3.10 귀환자 및 '서구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인물에 대한 위험

- 3.10.1 '서구화'가 무엇을 의미하고 수반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2022년 9월, 란드인포(노르웨이 국가정황정보 센터, Landinfo)는 1차 구술 자료를 포함한 광범위한 출처를 바탕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반영하듯 현지 태도에 대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했다(['서구화된' 개념, '서구화된' 인물에 대한 탈레반의 반응](#) 참조).
- 3.10.2 아프가니스탄 분석가 네트워크(Afghanistan Analysts Network, AAN)의 공동 설립자 토마스 루티그(Thomas Ruttig)는 2024년 10월 제공된 정보에서, '서구화'를 이유로 표적이 되는 대상에는 도시 거주자,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개인, '서구식' 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지역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난 생활양식이나 경험을 수용한 인물이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루티그가 제시한 '도시 거주자'라는 용어는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해당 집단 전체가 동일한 수준의 의심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지역 전통과 관습'으로부터의 이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정의된 바 없으며, 이는 아프가니스탄의 다양한 문화적 및 민족적 환경에 따라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물에 대한 탈레반의 관점을 다룬 루티그의 논평은 탈레반 내부에 일정한 수준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 다를 수 있다. 탈레반 구성원들 간, 파벌들 간에는 이념, 집행 관행 및 서구의 영향에 대한 태도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서구화된' 개념](#) 참조).
- 3.10.3 상기 내용 및 검토된 타 출처([참고문헌](#) 참조), 그리고 반박할 수 있는 증거의 부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서구화'란 서구 체류 경험이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역의 인물들에게 탈레반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동질적 개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정황을 입증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 3.10.4 보고된 판례인 [YMKA 와\(이른바 '서구화' 관련\) 이라크 \[2022\] UKUT 00016\(IAC\)](#) 사건에서는 '서구화'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지는 않았으나, 상급심판소(UT)는 '서구화'가 보호 대상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했다(제24항부터 제33항까지). 상급심판소(UT)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제30항). “당사국들이 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보호받는 무제한적 권리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특정 종류의 음악을 청취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청바지를 착용할 권리와 같은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순히 이러한 사안에 근거한 망명신청은 협약상 인용될 수 없다...”
- 3.10.5 탈레반이 귀환자 전반 또는 서구 거주 이력이 있는 인물들을 표적화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탈레반 집권 이후 서방 국가로부터의 강제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아프가니스탄으로의 귀환자, '서구화된' 개념, '서구화된' 인물에 대한 탈레반의 반응](#) 참조).
- 3.10.6 탈레반 집권 이후 최소 50만 명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귀환했으며, 대다수는 파키스탄에서 유입되었다. 해당 수치는 자발적 및 비자발적 귀환자를 모두 포함한다.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는 2023년 첫 9개월 동안 치안 상황 개선 등 다양한 사유로 1만 2,000명 이상의 난민이 자발적으로 귀환했다고 보고했다. 2023년 11월 파키스탄 귀환자에 대한 최신 정보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는 귀환자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언급했으나, 문제의 99%는 파키스탄 측 국경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란, 파키스탄 및 튀르키예로부터의 귀환자](#) 참조).

- 3.10.7 연구원 하산 압바스(Hassan Abbas)는 2023년 5월 출판물에서 상당수의 인원이 이란과 튀르키예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귀환했다고 기술했다([이란, 파키스탄 및 튀르키예로부터의 귀환자](#) 참조). 국가정책정보팀(Country Policy and Information Team, CPIT)은 참조한 자료 내에서 해당 귀환자에 대한 보복이나 가혹 행위 사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참고문헌](#) 참조).

[목차로 돌아가기](#)

4. 보호

- 4.1.1 당사자가 탈레반(사실상의 국가)의 박해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도, 이들은 일반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4.1.2 국가적 보호의 평가에 관한 자세한 지침은 [신뢰성 및 난민 지위 평가에 관한 망명 지침](#)을 참조한다.

[목차로 돌아가기](#)

5. 대안적 국내 피신

- 5.1.1 개인이 탈레반(사실상의 국가)의 박해에 대해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도,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국내로 피신할 가능성은 낮다.
- 5.1.2 다만 개인(독신 여성은 제외)이 개인적 분쟁, 불화 또는 경쟁으로 인해 개별 탈레반 구성원으로부터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느끼는 경우, 대안적 국내 피신이 가능할 수도 있다([개인적 분쟁, 불화 또는 경쟁](#) 참조).
- 5.1.3 카불로의 대안적 국내 피신과 관련하여, 국가 지침 판례 [AS \(카불의 안전\) 아프가니스탄 \(CG\) \[2020\] UKUT 130\(IAC\)](#) (2020년 5월 1일) 사건에서 상급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카불의 안보 및 인도적 상황과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도시 빈민과 그 밖에 아프가니스탄의 다른 많은 지역 인구가 처해 있는 환경과 비슷한 환경에 처해있는 실향민 및 귀환자)이 직면한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건강한 독신 성인 남성이 카불에 특정한 연고나 지원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에도, 심지어 타즈케라(Tazkera)가 없는 경우라 해도 카불로 피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지는 않다.

-다만, 대상자가 위에서 기술한 일반적인 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신 장소의 제반 여건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개별적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연령, 카불 또는 아프가니스탄과의 지원 네트워크 및 인맥의 성격과 질,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그리고 언어 능력, 교육 수준 및 직업 기술이 포함된다. 고용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할 수 있다.

-카불에 지원 네트워크나 특정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귀환 시 더 유리한 입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해당 개인이 귀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특정 취약성을 상쇄할 수 있다. 네트워크가 없는 사람은 귀환 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적 및 사회적 규범에 대한 개인의 친숙도(개인이 국가를 떠날 때의 나이와 부재 기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개인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빠르고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가 있다(제253항(iii)부터 제253항(v)까지).

- 5.1.4 2012년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심리가 진행되고 2012년 5월 18일 공표된 국가 지침 판례 [AK \(제15조\(c\)\) 아프가니스탄 CG \[2012\] UKUT 00163\(IAC\)](#)에서 상급재판소는 독신 여성 및 여성 가장이 남성 네트워크의 지원 없이 국내로 피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제249B항(v)). 이는 국가 지침 판례 [AS \(카불의 안전\)](#)에서도 확인되었다.
- 5.1.5 [AK와 AS](#) 모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장악하기 이전의 사건이지만, 이 문서의 국가정황정보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매우 강력한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가정책정보노트: 인도적 상황](#)도 참조한다.
- 5.1.6 대안적 국내 피신의 심사에 관한 자세한 지침은 [신뢰성 및 난민 지위 평가에 관한 망명 지침](#)을 참조한다.

[목차로 돌아가기](#)

6. 인정

- 6.1.1 망명신청이 거부되더라도, 망명신청이 「2002년 국적 이민 및 망명법(Nationality, Immigration and Asylum Act 2002)」 제94조에 규정된 '명백히 근거 없는(clearly unfounded)'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 6.1.2 인정에 대한 상세 지침은 「[2002년 국적 이민 및 망명법\(Nationality, Immigration and Asylum Act 2002\)](#)」 제94조에 따른 보호 신청 및 인권보호 신청에 대한 인정 지침을 참조한다(명백히 근거 없는 신청).

[목차로 돌아가기](#)

국가정황정보

국가정황정보에 대하여

이 절은 [연구방법론](#)에 따라 수집, 정리 및 분석되고, 공개적으로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는 국가정황정보(COI)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평가의 증거 기준을 제공한다.

문서의 구조와 내용은 본 보고서가 다루는 내용과 관련된 일반적이고 특정한 주제를 규정하고 있는 지침을 따른다.

이 문서는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특정 사건, 인물 또는 조직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사건이 발생했거나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거나 해당 인물 또는 조직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13.4절 및 제16.3절부터 제16.5절의 국가정황정보(COI)는 2025년 7월 17일까지의 최신 정보를 포함했다. 포함된 나머지 국가정황정보(COI)는 2024년 5월 8일 또는 그 이전에 발행되거나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나 발행된 보고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난민조사관은 관련 국가정황정보(COI)를 심사의 증거 기준으로 사용해야 한다.

[목차로 돌아가기](#)

7. 탈레반의 통치

7.1 탈레반의 조직 구조

7.1.1 '워싱턴 DC 국방대학교(National Defense University) 근동남아시아전략연구센터(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Near East South Asia Strategic Studies Center)의 국제관계 석좌교수'¹인 하산 압바스(Hassan Abbas)는 방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저술한 '탈레반의 귀환: 미국인이 떠난 후의 아프가니스탄(The Return of the Taliban: Afghanistan after the Americans Left)'(2023년 5월 출판)에서 탈레반 내 파벌은 “주로 ... 정체성을 기준으로 형성되었으며, 크게 다섯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²고 주장했다.

-첫째, 탈레반의 대외적 창구이자 ‘온건파’로 간주되는 세력으로 – 도하에서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들로 구성된다.

-둘째, 퀘타 슈라(Quetta Shura)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와 원로 세력이다. 이들은 탈레반에 대한 일반적인 대중적 인식에 부합하며 조직의 이념적 두뇌 역할을 수행한다. 2005년에 등장하여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역을 관할해온 페샤와르 슈라(Peshawar Shura)는 퀘타 슈라의 남부 편향성을 완화하며 조직 내 균형을 유지했다.

-셋째, 현장에서 실제 전투를 수행하는 조직의 혈맥인 야전 지휘관 세력이다. 이들은 실질적인 무력 행사를 주도한다.

-넷째, 혼란을 틈타 사익을 취해 온 마약 밀매업자 기반의 악명 높은 조직범죄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잠재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파벌인 일반 마을 주민들이다. 이들은 부족 동맹 관계로 인해, 또는 도시 지역 및 카불 중앙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사실상 선택의 여지없이 탈레반에 ‘가입’한 집단이다.³

¹ Abbas H, [The Return of the Taliban: Afghanistan after the Americans Left](#), (Authors), May 2023

² Abbas H, [The Return of the Taliban: Afghanistan after the Americans Left](#), (page 79), May 2023

³ Abbas H, [The Return of the Taliban: Afghanistan after the Americans Left](#), (page 79, 80), May 2023

- 7.1.2 전쟁연구소(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ISW)의 아프가니스탄 연구원인 피터 밀스(Peter Mills)는 2024년 3월 탈레반 통치에 관한 논문에서 “탈레반은 동질적인 조직이 아니라 때로는 경쟁하는 부족적, 민족적, 정치적, 사업적 및 이념적 관계를 가진 파벌들의 광범위한 연합체로 남아 있다”⁴고 언급했다.
- 7.1.3 압바스(Abbas, 2023년 5월)는 30년 이상 아프가니스탄 현장을 취재한 전문 언론인 캐시 개넌(Kathy Gannon)과의 대화를 통해 탈레반 내부 정치에 관한 통찰력 있는 견해를 공유했다. 개넌 만큼 탈레반을 잘 이해하고 있는 서구 언론인은 없다⁵고 그는 전했다. 그는 개넌이 탈레반은 단일조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탈레반은 다양한 견해와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개넌은 “탈레반 내부에 수많은 실용주의자가 존재하지만, 이는 서구 사회에서 이해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라고 논한 바 있다.⁶
- 7.1.4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다양한 출처를 기반⁷으로 작성된, 2023년 12월자 유럽연합망명청의 국가정황정보(COI) 부문(EUAA 국가별 포커스)의 아프가니스탄 보고서는 “정책 시행은 전국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지역 통치는 사실상 중앙정부가 공표한 법령에 대한 해석 차이와 지역적 맥락 및 이해관계자의 영향으로 인해 각기 다르게 운영되었다”⁸고 기록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에 따르면, 탈레반 권선징악부(Ministry for the Propagation of Virtue and the Prevention of Vice, MPVPV)의 권한이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지역 부서가 자체 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했다. 한 국제 언론인은 대부분의 경우 주민들이 법령을 준수하고 있어 탈레반이 무력으로 법령을 집행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⁹고 기술했다.

[목차로 돌아가기](#)

7.2 영토 지배

- 7.2.1 2023년 9월 18일 자 [보고서](#)를 발행한 이후 발행된 아프가니스탄의 정세 변화를 다룬 2023년 12월 1일 자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보고 대상 기간 동안 반정부 무장 단체는 탈레반의 영토 통제권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못했다”¹⁰고 명시했다.
- 7.2.2 다양한 출처를 바탕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다룬, 2024년 2월 2일 유럽연합망명청(European Union Agency for Asylum, EUAA)의 국가정황정보(COI) 질의응답 자료는 “공식 명칭이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Islamic Emirate of Afghanistan)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행정부는 ...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영토 지배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¹¹ 고 기술했다.

[목차로 돌아가기](#)

7.3 국제적 인정

- 7.3.1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출처에 근거한 유럽연합망명청(EUAA)의 2024년 2월 국가정황정보(COI) 질의응답 자료는 “공식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IEA)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행정부는 여전히 전 세계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상태 ...”¹²라고 언급했다.

⁴ ISW, [Taliban Governance in Afghanistan](#), March 2024

⁵ Abbas H, [The Return of the Taliban: Afghanistan after the Americans Left](#) (page 137), May 2023

⁶ Abbas H, [The Return of the Taliban: Afghanistan after the Americans Left](#) (page 137), May 2023

⁷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s 5, 11, 12), December 2023

⁸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 24), December 2023.

⁹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 25), December 2023.

¹⁰ UNGA, UNSC,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aragraph 18), 1 December 2023

¹¹ EUAA, [Major legislative, security-related, and humanitarian...](#) (page 2), 2 February 2024

¹² EUAA, [Major legislative, security-related, and humanitarian...](#) (page 2), 2 February 2024

8. 사법 및 법치주의

8.1 사법제도

- 8.1.1 주로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는 2024년 2월에 발행된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현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헌법 및 법률의 효력 정지, 일관성 없는 집행, 입법 과정의 투명성과 명확성 결여가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적 확실성 원칙을 위태롭게 했다”¹³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무죄 추정의 원칙, 사법부의 독립성, 법적 방어권 등을 포함한 국제 적법 절차 준수 의무를 저해했다”¹⁴고 지적했다.
- 8.1.2 2023년 3월 알자지라(Al Jazeera) 기고문에서 아프가니스탄 아메리칸 대학교(American University of Afghanistan) 법학 부교수이자 임시 학과장¹⁵인 하룬 라히미(Haroun Rahimi)는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 탈레반은 국가의 법률 체계를 검토 중이며,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적용을 보류한 상태다. 다만 사법 영역 외에서 관료제와 세수 징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법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 탈레반은 또한 2021년 8월 이전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재심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의가 제기되면 대법원의 최고 결정 기관인 다르 울 파트와(dar ul-fatwa)가 해당 판결의 재심법원 역할을 수행하며 기존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 탈레반은 헌법 초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사법부가 채택한 법원의 행정 및 법률 규정은 대부분이 이슬람 하나피 학파(Hanafi School)의 오스만 시대 법 체계에서 도출되었다.¹⁶
- 8.1.3 남아시아연구소(Institute of South Asian Studies, ISAS)에 게시된, 2021년 12월 톨로 뉴스(Tolo News) 기사¹⁷를 인용한 라히미의 기사는 탈레반이 사법부를 개편했다¹⁸고 기술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탈레반 치하의 각 법원(또는 법원 내 재판부)은 일반적으로 판사, 무프티(mufti) 및 서기로 구성된다. 서기는 법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판사와 무프티의 직무 분담은 명확하지 않다. 탈레반이 제정한 법원 규칙은 무프티 및 그 밖의 재판 참가자가 원고, 피고 또는 증인을 심문할 수 없고, 판사만이 심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마잘라(Majalah) 제1801조를 인용한 제18조).”¹⁹
- 8.1.4 2023년 9월,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VOA)는 탈레반의 부 대법관 압둘 말리크 하까니(Abdul Malik Haqqani)의 발언을 인용하여 “새로운 [사법] 체계에서 사건 배정부터 기소 및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은 검사의 개입 없이 판사의 입회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²⁰고 보도했다.

¹³ UNHRC,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Afghanistan...](#) (paragraph 79), 22 February 2024

¹⁴ UNHRC,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Afghanistan...](#) (paragraph 80), 22 February 2024

¹⁵ Al Jazeera, [The Taliban in Government: A Grim New Reality Is Settling In](#), 23 March 2023

¹⁶ Al Jazeera, [The Taliban in Government: A Grim New Reality Is Settling In](#), 23 March 2023

¹⁷ Tolo News, [Supreme Court Appoints 69 Provincial Judges](#), 16 December 2021

¹⁸ Rahimi, H, [Remaking of Afghanistan ...](#) 26 July 2022

¹⁹ Rahimi, H, [Remaking of Afghanistan ...](#) 26 July 2022

²⁰ VOA, [Taliban Undertake Speedy Overhaul of Afghanistan's Justice System](#), 28 September 2023

8.1.5 오스트리아 연방이민난민청의 국가정황정보(COI) 부서인 BFA 국가문서화국(BFA Staatendokumentation)이 작성한 2024년 4월 보고서의 영문 번역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001년 탈레반 정권 붕괴 이후, 탈레반은 일부 지역 세력의 지원을 바탕으로 농촌 마을에서 점진적으로 조직을 재건했다. 제한된 자원과 빈약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은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 법원을 설립하여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법적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행보를 통해 탈레반은 전쟁 중임에도 (정규화되지는 않았으나) 비교적 예측 가능한 재판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승리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전환점이 되었다. 반면 당시 정부의 사법기관은 부패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 법원보다 탈레반 법원을 선호하게 되었다.

-지난 20년간 탈레반의 사법제도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관심을 확보했다. 탈레반 판사들은 법률 분야의 법관이자 종교 분야의 학자(울라마)로서 역할을 병행했다. 탈레반 판사들은 주로 하나피 법학에 기초한 파키스탄 및 아프가니스탄의 데오반디 학파에서 수학했다.²¹

8.1.6 동 보고서는 “지난 2년간 아프가니스탄 사법제도의 변화는 주로 형식 및 행정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법원의 관할권 자체에는 구체적인 변화가 없었다. 이전 공화국 체제에서 운영되던 법률의 폐지 외에도 사법제도 및 법원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법원의 모든 판사 및 행정 직원의 해임
- 검찰 총장 해임 시도
- 사건 심사에서의 위계 질서 무시
- 변호사협회의 독립성 폐지
- 여성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 부족
- 탈레반의 원칙과 지도부 명령에 따른 법원의 행정 업무 추진
- 판사의 판결 근거를 법률에서 무프티의 파트와로 변경.²²

8.1.7 2023년 7월, 아프가니스탄 분석가 네트워크(AAN)는 '물라 히바툴라의 65개 법령, 포고령 및 지시'²³에 관한 상세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히바툴라에 대해 “에미리트의 최고 권위자이며, 그의 명령이 곧 법이다”²⁴라고 설명했다.

²¹ BFA Staatendokumentation, [Afghan legal system under the Taliban, v2](#) (pages 3, 4), 9 April 2024

²² BFA Staatendokumentation, [Afghan legal system under the Taliban, v2](#) (page 4), 9 April 2024

²³ AAN, [The decrees and edicts of the Taliban supreme leader](#), 15 July 2023

²⁴ AAN, [The decrees and edicts of the Taliban supreme leader](#), 15 July 2023.

이 보고서는 “이 명령은 지난 7년에 걸쳐 발령되었으며, 첫 번째 명령은 전임자 사망 후 히바툴라가 탈레반 최고 지도자로 취임한 2016년에 공표되었다”²⁵고 설명했다.

- 8.1.8 같은 보고서는 “명령은 먼저 파슈토어로 공표된 후 다리어로 번역되었으며, 두 언어 모두 관보(Gazette)에 게재되었다. 해당 명령들은 아프가니스탄 분석가 네트워크(AAN)의 비공식 영문 번역본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분석가 네트워크(AAN) 웹사이트의 [자료 섹션에서](#) 찾을 수 있다. 명령 목록(간략한 제목, 번호 및 날짜)은 보고서 말미에 수록되어 있다”²⁶고 설명했다.

[목차로 돌아가기](#)

8.2 사법 집행

- 8.2.1 2022년 12월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유엔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2022년 11월 18일 이후 탈레반 당국은 타카르(Takhar), 로가르(Logar), 라그만(Laghman), 파르완(Parwan) 및 카불을 포함한 여러 주에서 남성과 여성 100명 이상에 대해 태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 ‘비합법적’ 관계 또는 사회 행동 규범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20대에서 100대의 태형이 가해졌다. 혼외 관계의 범죄화는 성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처벌이 압도적이었다. 태형은 관계자와 일반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장에서 집행되었다.

-2022년 12월 7일, 탈레반은 파라주 파라(Farah)시에서 한 남성을 공개 처형했다. 이는 2021년 8월 정권 장악 이후 첫 공개 처형 사례로 판단된다. 부총리와 대법관을 포함한 탈레반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다. 이러한 처벌은 2022년 11월 13일 최고 지도자가 사법부에 후두드(신에 대한 범죄) 및 끼사스(동등 보복) 처벌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명령한 이후 본격화되었다.²⁷

- 8.2.2 남아시아테러리즘포털(South Asia Terrorism Portal, SATP)의 남아시아 정보 검토(South Asia Intelligence Review, SAIR)는 2022년 12월 8일 파르완주의 주도인 차리카르(Charikar)시의 축구 경기장에서 집행된 9명의 여성과 18명의 남성에 대한 공개 태형에 관해 보고했다. 처벌 사유는 강도, 혼외 관계 및 가출 등으로 다양했으며, 현지 탈레반 관리와 수백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29대에서 35대의 태형이 가해졌다. 남아시아 정보 검토(SAIR)는 2022년 11월과 12월에 절도, 혼전 관계 및 간통 혐의로 기소된 남성과 여성에게 집행된 다수의 공개 태형 사례를 추가로 인용했다²⁸.

- 8.2.3 2023년 5월 발표된 신체형 및 사형에 관한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 보고서는 “2022년 11월 13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최소 43건의 사법적 태형(법원 판결에 따라 집행되었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43건 중 58명의 여성, 274명의 남성 및 2명의 남아가 지나(zina), 가출, 절도, 동성애, 음주, 사기 및 마약 밀매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 채찍질을 당했다.²⁹

- 8.2.4 2023년 6월 20일자 [보고서 이후 발행된](#) 2023년 9월 18일 자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²⁵ AAN, [The decrees and edicts of the Taliban supreme leader](#), 15 July 2023.

²⁶ AAN, [The decrees and edicts of the Taliban supreme leader](#), 15 July 2023.

²⁷ OHCHR, [Afghanistan: UN experts call on the Taliban to immediately halt...](#), 16 December 2022

²⁸ SAIR SATP, [Afghanistan: Women flogged into silence](#), 12 December 2022

²⁹ UNAMA, [Corporal Punishment and the Death Penalty in Afghanistan](#) (page 14), May 2023

“사법적 태형과 관련하여,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은 마약 범죄, 도박, 가출, ‘부도덕한’ 행위 및 남색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에 대해 최소 34명의 남성, 8명의 여성 및 2명의 소년에 대해 공개 태형을 집행한 사례를 기록했다. 6월 20일, 탈레반 대법원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라그만주에서 35세 남성의 사형을 공개적으로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탈레반 집권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사형이 공식 집행된 두 번째 사례였다.”³⁰

- 8.2.5 2023년 9월 18일 자 보고서 이후 동향을 다룬 2023년 12월 1일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탈레반 당국이 사법적 태형을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집행했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은 최소 24명의 남성과 4명의 여성에 대한 공개 태형을 기록했다”³¹고 밝혔다.
- 8.2.6 2024년 2월 발표된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현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탈레반이 대상을 집단화하여 일반 대중 앞에서 공개 태형 집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기술하며, 이것이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금지 원칙을 위반”³²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8.2.7 같은 보고서는 또한 “탈레반이 샤리아 법 준수를 명분으로 삼아 강도와 같은 일반 범죄뿐만 아니라 불법 관계, 간통, 남색 등 탈레반이 도덕적 또는 성적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신체적 처벌을 부과했다”³³고 기술했다. 특별보고관은 비정부기구(NGO) 아프간 위트니스(Afghan Witness)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2022년 10월 26일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 탈레반 당국이 총 417명이 관련된 71건의 샤리아 위반 관련 처벌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9건에서 끼사스(qisas, 동태복수)형이 선고되었으며, 그 중 2건은 2022년 12월과 2023년 6월에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자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이어졌고 나머지 7명은 사면을 받았다”³⁴고 주장했다. 다만 이 보고서는 자체 현장 조사를 실시했는지 또는 아프간 위트니스의 보고 내용을 직접 검증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 8.2.8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은 탈레반의 비사법기관이 부과한 신체적 처벌 및 임시 처벌 사례를 기록했다. 이러한 처벌은 주로 권선징악 지방지부(Department for the Propagation of Virtue and Prevention of Vice, DPVPV)에 의해 집행되었으나 경찰 및 정보 기관이 주도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구체적 처벌 사례로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거나 마흐람(남성 동행자) 없이 외출한 여성에 대한 구타 및 채찍질, 남성의 수염을 다듬는 이발사 및 수염을 다듬은 남성에게 대한 처벌, 마흐람을 동반하지 않은 여성의 출입을 허용한 상점 주인에 대한 처벌, 그리고 모스크에 가지 않은 남성에게 대한 처벌 등이 포함되었다³⁵.

[목차로 돌아가기](#)

9. 탈레반에 관한 보도 및 언론인의 처우

- 9.1.1 해외개발연구소(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무장단체연구센터(Centre for the Study of Armed Groups) 공동소장인 애슐리 잭슨(Ashley Jackson)은 방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저술한 저서에서 “우리가 탈레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는 지식의 상당 부분은 보도나 간접적인 연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는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불완전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³⁰ UNGA, UNSC,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aragraph 35), 18 September 2023

³¹ UNGA, UNSC,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aragraph 33), 1 December 2023

³² UNHRC,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Afghanistan...](#) (paragraph 81), 22 February 2024

³³ UNHRC,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Afghanistan...](#) (paragraph 82), 22 February 2024

³⁴ UNHRC,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Afghanistan...](#) (paragraph 82), 22 February 2024

³⁵ UNAMA, [Corporal Punishment and the Death Penalty in Afghanistan](#) (pages 14, 15), May 2023

많았다”³⁶고 주장했다.

잭슨은 또한 연구자이자 작가인 알렉스 스트릭 판 린스호텐(Alex Strick van Linschoten)의 발언을 인용하여,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 수많은 기자와 연구자가 해당 운동의 이슬람적 성격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균형 잡힌 관점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³⁷라고 설명했다.

9.1.2 호주 정부 호주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의 2022년 1월 ‘아프가니스탄의 정치 및 안보 상황에 관한 주제별 보고서’(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 대상)는 호주 및 해외의 다양한 소식통의 정보와 논의를 바탕으로 하며,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개 정보 보고서(보고서 내 예시 명시)의 내용을 참고한다³⁸ – 보고서는 "많은 언론인이 계속 활동하고는 있지만, 자유 언론에 대한 탈레반의 허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명확한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³⁹고 기술했다.

9.1.3 2023년 3월 알자지라에 게재된 라히미의 기사는 "탈레반의 표현의 자유 탄압과 외국의 자금 지원 중단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의 독립 언론 체계가 붕괴했다. 공개적인 비판은 용납되지 않으며 주기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⁴⁰고 기술했다.

9.1.4 캐나다에 본부를 둔 IFEX는 스스로를 "회원들의 지역적 정보력과 민중 운동에 기반하고, 표현의 자유 수호 및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⁴¹라고 소개하며, 탈레반 치하 아프가니스탄의 언론 환경이 직면한 과제를 다룬 2023년 8월 질의응답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 특히 탈레반 정부 소식통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 언론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수집, 인터뷰 진행 또는 공식 문서 접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탐사 보도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언론 매체는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고, 언론인들은 음악 금지, 혼성 근무 금지, 여성 언론인의 업무 중 얼굴 노출, 탈레반 통치나 정책에 대한 비판 금지 등 새로운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투옥될 수 있다."⁴²

9.1.5 또한 IFEX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억압적인 환경과 위협이 가중됨에 따라, 언론인들은 민감한 사안을 보도하거나 탈레반 당국을 비판할 경우 가혹한 결과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은 투옥, 감시, 가족에 대한 위협 또는 보도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압력 등 각종 협박과 괴롭힘을 겪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언론인의 자기 검열과 특정 문제에 대한 취재 기피로 이어졌으며, 본인의 안전과 매체의 존속을 위해 당국의 견해에 부합하도록 보도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초래했다."⁴³

³⁶ Jackson A, [Negotiating Survival: Civilian–Insurgent Relations...](#) (page 213), August 2021

³⁷ Jackson A, [Negotiating Survival: Civilian–Insurgent Relations...](#) (page 213), August 2021

³⁸ DFAT, [Thematic Report on Political and Security Developments...](#) (paragraph 1.4), January 2022

³⁹ DFAT, [Thematic Report on Political and Security Developments...](#) (paragraph 3.36), January 2022

⁴⁰ Al Jazeera, [The Taliban in Government: A Grim New Reality Is Settling In](#), 23 March 2023

⁴¹ IFEX, [Who We Are - IFEX](#), no date

⁴² IFEX, [Q&A: Confronting media challenges in Taliban-controlled Afghanistan](#), 15 August 2023

⁴³ IFEX, [Q&A: Confronting media challenges in Taliban-controlled Afghanistan](#), 15 August 2023

9.1.6 다만, IFEX는 언론인들이 채택한 대처 전략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언론인들은 보도를 계속하려는 노력에서 회복력과 수완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뉴스와 정보를 배포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했고, 정보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통신 도구 및 암호화 기술을 채택했으며, 그들의 이야기가 전 세계 청중에게 전해지도록 국제 언론 기관 및 언론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했다.

-언론 규제를 타개하기 위해 언론인들은 보도 방식을 조정하여 보다 신중한 언어를 선택하고, 미묘한 비판이나 간접적인 서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당국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왔다. 일부 언론인들은 지하 조직을 운영하거나 해외 망명을 통해 비밀리에 보도를 이어가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다.⁴⁴

9.1.7 킹스 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 전쟁학과(War Studies Department)의 선임 방문 연구원 데이비드 로인(David Loyn)은 2023년에 "[탈레반]은 언론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원했다. 집권 첫 해 동안 외국 특파원의 입국을 허용했으나, 현재는 비자 발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⁴⁵고 기록했다.

9.1.8 자유유럽방송(RFE/RL)의 2024년 5월 기사는 "탈레반 정권 하에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독립 언론 매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매체의 언론인들은 심각한 제한에 직면하고 자기 검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⁴⁶고 언급했다.

9.1.9 해당 기사는 "아프간 언론인들이 탈레반을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하거나 게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⁴⁷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주요 방송사에서 일하는 카불 주재 편집자가 자유유럽방송(RFE/RL)에 전한 말을 인용하여, "불안정, 인권 및 부패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⁴⁸고 기술했다.

9.1.10 자유유럽방송(RFE/RL)의 2024년 5월 기사는 "보도 제한선을 넘은 기자들은 체포되어 투옥되거나, 구금 중 구타를 당하고 위협 및 괴롭힘에 시달려 왔다"⁴⁹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는 이후 "수많은 기자와 언론 종사자가 투옥되거나 물리적 공격을 받았다"⁵⁰고 언급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수치나 발생 시점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9.1.11 아프간언론인센터(Afghan Journalists Centre, AFJC)는 '언론 자유 침해 사례'로 명명된 통계 자료를 제공했으며, 영국 내무부 국가정책정보팀(CPIT)은 이를 바탕으로 2022년과 2023년의 결과를 아래에 표와 같이 정리했다. 아프간언론인센터(AFJC) 웹사이트의 자료는 또한 각 사건과 관련된 인물의 직업/역할, 발생 일자, 해당 주, 그리고 가해자 정보를 포함한 상세한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

	사망	부상	위협	체포, 형사 기소	합계
2022 ⁵¹	0	13	128	119	260
2023 ⁵²	1	19	87	61	168

[목차로 돌아가기](#)

⁴⁴ IFEX, [Q&A: Confronting media challenges in Taliban-controlled Afghanistan](#), 15 August 2023

⁴⁵ Loyn D, [The scattered forces opposing the Taliban need support now](#), updated November 2023

⁴⁶ RFE/RL, [This Is What It's Like To Be A Journalist Under Taliban Rule](#), 3 May 2024

⁴⁷ RFE/RL, [This Is What It's Like To Be A Journalist Under Taliban Rule](#), 3 May 2024

⁴⁸ RFE/RL, [This Is What It's Like To Be A Journalist Under Taliban Rule](#), 3 May 2024

⁴⁹ RFE/RL, [This Is What It's Like To Be A Journalist Under Taliban Rule](#), 3 May 2024

⁵⁰ RFE/RL, [This Is What It's Like To Be A Journalist Under Taliban Rule](#), 3 May 2024

⁵¹ AFJC, [Press Freedom Violations 2022](#), no date

⁵² AFJC, [Press Freedom Violations 2023](#), no date

10. 이전 정부 및 그 보안군과 관련된 사람

10.1 탈레반의 '일반 사면'

- 10.1.1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은 2021년 8월 15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탈레반(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이 사실상 당국으로 지칭)의 전 정부 관리 및 군인 대상 인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2021년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 점령 후, 탈레반 당국은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정부의 전직 관리 및 아프간 국방안보군(ANDSF) 전직 대원에 대한 ‘일반 사면’을 발표했다. 그 후 거의 2년 동안 탈레반 고위 관리들은 일반 사면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반복해서 밝혀왔으며, 사면령의 유지와 위반 사항 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⁵³

- 10.1.2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은 관리들에게 사면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고위 탈레반 대표들의 수많은 발언을 인용했지만, 그 범위를 명시하는 공개 문서나 지침은 없다고 언급했다.⁵⁴

- 10.1.3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 ICG)은 “탈레반 군대가 2021년 여름, 광범위한 영토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일반 사면을 공표했다...”고 언급했으며, 해당 조치가 “보안군을 포함한 모든 전 정부 관리 및 이전 정치 체제와 관련된 인사들에게 탈레반 통치 하에서 괴롭힘 없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약속했다”⁵⁵고 보고했다.

- 10.1.4 그러나 잭슨(2021)은 이 ‘사면’이 20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언급했다. 잭슨은 아프가니스탄의 여러 자료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연구한 저서에서 “2016년에 이러한 관행이 공식 정책이 되었으며, 이로써 탈레반은 정부 또는 국제군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사면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아프간 보안군은 무기를 반납하고, 저지른 피해에 대해 사과하며, 신뢰할 수 있는 원로가 그들을 보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민간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다”⁵⁶고 지적했다.

- 10.1.5 물라 히바툴라의 65개 칙령, 포고령 및 지시⁵⁷에 관한 아프가니스탄 분석가 네트워크(AAN)의 2023년 7월 보고서는 이러한 명령이 ‘반군 시대 법령’⁵⁸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조직의 최우선 가치를 저해할 수 있는 현장 행동을 억제하며,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전향한 정부군을 수용하고 망명자를 박해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는 지도부가 정부군 및 관리들에게 망명을 장려하기 위해 사면령이 준수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자 했기 때문이다.”⁵⁹고 설명했다.

[목차로 돌아가기](#)

⁵³ UNAMA, [A barrier to securing peace...](#) (page 1), August 2023

⁵⁴ UNAMA, [A barrier to securing peace...](#) (pages 1, 2), August 2023

⁵⁵ ICG, [Afghanistan's Security Challenges under the Taliban](#) (section IV(C)), August 2022

⁵⁶ Jackson A, [Negotiating Survival: Civilian–Insurgent Relations...](#) (page 95), August 2021

⁵⁷ AAN, [The decrees and edicts of the Taliban supreme leader](#), 15 July 2023.

⁵⁸ AAN, [The decrees and edicts of the Taliban supreme leader](#), 15 July 2023.

⁵⁹ AAN, [The decrees and edicts of the Taliban supreme leader](#), 15 July 2023.

10.2 '일반 사면'의 적용

- 10.2.1 사면을 준수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은 조사 기간 동안 “... 탈레반 당국이 전 정부 관리 및 아프간 국방안보군(ANDSF) 대원을 대상으로 자행한 초법적 살인, 임의 체포 및 구금, 고문 및 가혹 행위를 포함한 수백 건의 인권 침해 사례를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기록했다. 탈레반 당국이 해당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가해자에게 ... 책임을 물으려 노력했다는 정보는 한정적이다”⁶⁰고 주장했다.
- 10.2.2 2022년 8월 보고서에서 국제위기그룹(ICG)은 사면이 “차별적으로 집행됐다”고 설명했지만, “이전 정부에 연루된 것에 대한 보복은 결국 반정부 무장 단체가 신병을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탈레반은 점점 더 구성원들에게 사면 명령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심지어 이를 이슬람의 의무로 규정했다”⁶¹고 언급했다.
- 10.2.3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의 보고서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탈레반 당국이 ... 언론 논평, 소셜미디어 계정, 여러 공개 모임의 발언을 통해 관리들에게 ‘일반 사면’의 준수를 촉구”한 6가지 구체적 사례를 담고 있다⁶².
- 10.2.4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를 다루는 다양한 출처에 기반한 유럽연합망명청(EUAA) 국가별 포커스⁶³는 “이전에 미군 계약자로 일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 기지를 건설했던 한 남성이 아프가니스탄 분석가 네트워크(AAN)에 탈레반의 점령 후 당국과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고 언급했으며, 탈레반은 ‘사면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⁶⁴고 기술했다.
- 10.2.5 유럽연합망명청(EUAA) 국가별 포커스는 “소식통에 따르면 전직 관리들에 대한 조치는 ‘일관성이 없다’, ‘임시적이다’, ‘상충되는 정책들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다’”⁶⁵고 덧붙였다.
- 10.2.6 같은 보고서는 국제 언론인과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국제 언론인은 표적화가 전 정부에서 개인의 종전 역할에 기반하여 수행되기보다는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는 사면이 준수되었고 전직 지역 국가안보국(NDS) 국장이 탈레반이 승인한 계곡 슈라[위원회]의 수장으로 임명된 반면, 칸다하르(Kandahar)에서는 많은 살인이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⁶⁶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 10.2.7 네덜란드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MFA)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기간을 다루는 다양한 자료에 기반한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보고서에서 “탈레반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지역 탈레반은 자체적인 규칙을 따른다. 카불의 탈레반 지도자가 사면, 규칙 및 인권 존중을 보장하는 데 있어 전투원과 지휘관을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통제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⁶⁷고 밝혔다.

⁶⁰ UNAMA, [A barrier to securing peace...](#) (page 1), August 2023

⁶¹ ICG, [Afghanistan's Security Challenges under the Taliban](#) (section IV(C)), August 2022

⁶² UNAMA, [A barrier to securing peace...](#) (page 2), August 2023

⁶³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s 5, 11, 12), December 2023

⁶⁴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s 64, 65), December 2023

⁶⁵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s 56, 57), December 2023

⁶⁶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 61), December 2023

⁶⁷ Netherlands MFA, [General Country of Origin Report Afghanistan](#) (page 64), June 2023

10.2.8 네덜란드 외교부(MFA) 보고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비밀 소식통에 따르면, 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있었다. 폭력 사건은 법적 보호 없는 법적 공백 속에서 발생했다. 개별 사건마다 처한 상황은 일관되지 않았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카불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상황은 더 불확실하다. 많은 전직 보안군 대원이 무장 저항이 가장 강력했던 낭가르하르(Nangarhar)와 판지쉬르와 같은 지역에서 구금되어 심문을 받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개인이 직면하는 위험은 주로 현지 탈레반 행위자에 따라 다르다. 어떤 이유로든 탈레반이 복수를 원한다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개인에 대한 보복과 관련하여 상당한 자의성이 존재한다.⁶⁸

10.2.9 유럽연합망명청(EUAA) 국가별 포커스에 따르면,

“국제 분석가와 국제 언론인 모두 전 정부의 민간 인력 및 보안 인력 중 특정 인물의 표적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거나 어떠한 패턴도 식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제 분석가는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살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제 언론인은 몇몇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표적화가 자행되고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⁶⁹

10.2.10 미국 공영 라디오(National Public Radio, NPR)의 2022년 11월 기사는 “지도부의 지시가 탈레반 일반 대원, 특히 외딴 지역의 마을 대원들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 심지어는 완전히 무시된다”⁷⁰고 지적인 ‘감시 단체와 분석가’를 인용했다. 미국 공영 라디오(NPR) 기사는 또한 휴먼라이츠퍼스트(Human Rights First)의 이사 크리스 퍼디(Chris Purdy)가 “중앙정부에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중앙 권력의 핵심부 밖에서는 실질적인 수준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 사실상 지역의 지휘관들이 실질적인 의사 결정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⁷¹고 말했다고 인용했다.

[목차로 돌아가기](#)

10.3 개인적 분쟁, 불화 및 경쟁

10.3.1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의 2023년 8월 보고서에 따르면 “탈레반 당국은 일반 사면 규정 위반에 대한 보고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위반 사례가 존재한다면 이는 공식 명령에 의한 조치가 아니라 ‘개인적 적대감이나 복수’에 기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⁷²

10.3.2 네덜란드 외교부(MFA) 보고서는 “사면 결정은 상당히 자의적이었으며, 개인적 차원의 보복이나 오래된 원한 혹은 개인적 불화를 이유로 사면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⁷³고 기술했다.

10.3.3 유럽연합망명청(EUAA) 국가별 포커스는 다양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탈레반은 사면 위반이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 적대감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⁶⁸ Netherlands MFA, [General Country of Origin Report Afghanistan](#) (pages 67, 68), June 2023

⁶⁹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s 60, 61), December 2023

⁷⁰ NPR, [For Afghans who fought against the Taliban, life is fraught under their...](#), 28 November 2022

⁷¹ NPR, [For Afghans who fought against the Taliban, life is fraught under their...](#), 28 November 2022

⁷² UNAMA, [A barrier to securing peace...](#) (pages 2, 3), August 2023

⁷³ Netherlands MFA, [General Country of Origin Report Afghanistan](#) (pages 67, 68), June 2023

전문가 소식통은 특히 기존에 존재하던 이른 바 ‘복수 문화’를 고려할 때, 살인의 동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자유유럽방송(RFE/RL)[[그들은 우리를 이교도라고 부른다](#)..., 2022년 7월]이 인용한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의 패트리샤 고스먼(Patricia Gossman)의 발언에 따르면 “고위 탈레반 지휘관의 인지 또는 묵인 하에 수행된 보복 살해 사례가 있었다.”⁷⁴

10.3.4 네덜란드 외교부(MFA)의 2023년 6월 보고서는 다양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 특정 사건이 체계적인 정책보다는 (지도부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오래된 원한이나 개인적 불화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보고됐다. 민족적 또는 부족적 역학 관계나 개인적 불화 및 경쟁도 원인일 수 있다. 일부 부족 및 그밖의 집단은 탈레반이나 가니 정부와 동맹을 맺었다. 단일 부족이나 가족 내에서 반대 세력과 동맹을 맺기도 했다”⁷⁵고 언급했다.

10.3.5 유럽연합합명청(EUAA) 국가별 포커스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제 분석가에 따르면, 탈레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집권 이전에 누구에게 충성했는지보다는 현재 그들에게 충성을 다하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분쟁으로 인해 보복의 표적이 되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했다. 언론인 알리 라티피(Ali Latifi)는 탈레반이 자신들의 정부 기능을 유지해야 했으므로, 새로운 체제하에서 근무하려는 개인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라티피는 또한 보복 행위를 탈레반 당국의 고질적인 문제이며, 이는 아프간 역사상의 모든 정부가 겪어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신문 르 피가로(Le Figaro)는 언론인들과 국제 감시단이 탈레반의 과거 적들에 대한 추적과 처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프간 농촌 지역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AI)와 미국 국무부 관리는 르 피가로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인원들의 실종 사례가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기술했다.

-라와다리(Rawadari)는 무기 소지 혐의를 이유로 한 전직 군인 및 전 민간 인력에 대한 인권 학대 사례를 기록했다. 또한 이 기관은 탈레반이 이러한 이들을 살해했지만 피해자가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 구성원이었거나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국제 분석가는 또한 특히 북부 지역에서 탈레반이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로 규정한 사람들을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들이 실제로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 구성원이었는지, 단순히 전 정권의 일원으로 의심을 받았는지, 저항 단체와 연계되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은 전 정부 관리 및 아프간 국방안보군(ANDSF) 대원이 국민저항전선(NRF)과의 연계 혐의를 구실로 체포 및 구금됐고, 일부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거짓이며 탈레반이 전 정부에 복무했던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기 위한 구실로 사용되었다.⁷⁶

[목차로 돌아가기](#)

10.4 대상자의 인적사항: 전직 경찰 및 군대(및 그 가족 구성원)

10.4.1 미국 아프가니스탄 재건 특별감찰관(SIGAR)은 아프간 인사 및 급여 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4월 29일 기준 아프간 국방안보군(ANDSF)에 30만 699명의 직원(군인 18만 2,071명 및 경찰관 11만 8,628명)이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 아프가니스탄 재건 특별감찰관(SIGAR)은 ‘유령’ 군인의 존재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했다.^{77, 78} 2021년 9월, 아프간 공화국의 마지막 재무장관 칼리드 파옌다(Khalid Payenda)는 아프가니스탄 분석가 네트워크(AAN)에 보고된 30만 명의 아프간 군 및 경찰 인력은 ‘모두

⁷⁴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 59), December 2023

⁷⁵ Netherlands MFA, [General Country of Origin Report Afghanistan](#) (page 67), June 2023

⁷⁶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s 59, 60), December 2023

⁷⁷ SIGAR, [Quarterly Report to Congress](#) (page 82), 30 October 2021

⁷⁸ SIGAR, [Quarterly Report to Congress](#) (page 43), 30 January 2024

거짓'이었으며 실제로는 기껏해야 4만 명에서 5만 명의 경찰 및 군인만이 존재했고 나머지는 '유령'이었다고 기술했다⁷⁹. 2021년 8월 이후 아프가니스탄 내에 남아 있는 실제 인원수는 파악되지 않았다.

- 10.4.2 호주 외교통상부(DFAT)의 2022년 1월 주제별 보고서에 따르면, 사면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이후 일부 탈레반 군대가 아프가니스탄 정부 보안군 대원을 적극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

특히 탈레반이라는 명분 아래 포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들, 즉 전직 특수부대 군인 및 국가안보국(NDS) 대원을 비롯하여 외국군을 도왔던 사람⁸⁰이 주요 대상이며, 보고서는 “전직 아프간 보안군, 특히 특수부대 및 NDS 요원이 탈레반의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⁸¹고 결론지었다.

- 10.4.3 2021년 8월 15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 보고는 다음과 같다.

... 전직 아프간 국군(Afghan National Army, ANA) 대원이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가장 컸으며, 경찰(아프간 국가경찰 및 아프간 지역 경찰 모두)과 국가안보국 관리가 그 뒤를 이었다.

“전 정부 관리 및 아프간 국방안보군(ANDSF) 대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는 아프가니스탄 전역 34개 주 모두에서 기록되었으며, 카불, 난도하라 및 발크(Balkh)주에서 가장 많은 침해 사례가 보고되었다 ...”⁸²

- 10.4.4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은 ‘... 2021년 8월 15일 탈레반이 집권한 이후 2023년 6월 30일까지 전 정부 관리 및 아프간 국방안보군(ANDSF) 대원에 대한 최소 800건의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기록했고, 여기에는 탈레반이 저질렀다고 보고된 218건의 초법적 살인, 14건의 강제 실종, 424건의 임의 체포 및 구금, 144건의 고문 및 가혹 행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⁸³. 인권 침해의 70% 이상이 군, 국가안보국(NDS) 및 경찰을 포함한 아프간 국방안보군(ANDSF)에 대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⁸⁴,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의 보고서는 전직 아프간 국방안보군(ANDSF) 대원과 전 정부 관리에게 발생한 사건 유형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술했지 않았다.

- 10.4.5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은 “침해의 대부분이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후 4개월(2021년 8월 15일 ~ 2021년 12월 31일) 동안 발생했으며,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은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전 정부 관리 및 아프간 국방안보군(ANDSF) 대원에 대한 모든 초법적 살인 중 거의 절반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는 이 초기 기간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0건의 초법적 살인이 기록되었다”⁸⁵고 확인했다.

⁷⁹ AAN, [The Khalid Payenda Interview \(1\): An insider's view of politicking...](#), 27 September 2021

⁸⁰ DFAT, [Thematic Report on Political and Security Developments...](#) (paragraph 3.27), January 2022

⁸¹ DFAT, [Thematic Report on Political and Security Developments...](#) (paragraph 3.30), January 2022

⁸² UNAMA, [A barrier to securing peace...](#) (page 6), August 2023

⁸³ UNAMA, [A barrier to securing peace...](#) (pages 5, 6 to 9), August 2023

⁸⁴ UNAMA, [A barrier to securing peace...](#) (pages 5, pie chart), August 2023

⁸⁵ UNAMA, [A barrier to securing peace...](#) (page 6), August 2023

- 10.4.6 미국 공영 라디오(NPR)의 2022년 11월 기사는 “헬만드(Helmand)주에서 군사 검문소 설치를 담당했던 전직 군 장교가 생계를 위해 사과를 [... 따고 ...]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그 장교가 “군대에서 복무한 우리에게는 일자리가 없다 ... 보시다시피 나는 교육받았고 경험이 있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찾을 수 있는 최선이 이것이다”⁸⁶라고 설명했다고 인용했다.
- 10.4.7 같은 기사는 “한때 탱크를 조종하던 사람이 이제는 택시를 운전한다. 한때 대열을 이루어 서 있던 군인들이 이제는 식량 지원을 받기 위해 줄을 선다. 구 공화국에서 복무했던 일부 전직 군인들은 미국 공영 라디오(NPR)에서 구금되고 실종될까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고 말한다”⁸⁷고 덧붙였다.
- 10.4.8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은 2023년 8월 보고서^{88, 89} 발행 이후 전 정부 관리 및 아프간 국방안보군(ANDSF)에 대한 인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기록했다. 2023년 9월 18일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사태에 관한 2023년 12월 1일 자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2023년] 8월 22일 전 정부 관리 및 전직 아프간 국방보안군 대원에 대한 인권 침해에 관한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의] 보고서가 발행된 후, 탈레반 당국 부총리 하나피(Hanafi)는 사면과 관련하여 모든 보복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며 가해자는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 기간 동안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은 전 정부 관리 및 아프간 국방안보군 대원에 대한 최소 10건의 초법적 살인, 21건의 임의 체포 및 구금, 8건의 고문 및 가혹 행위를 기록했다.”⁹⁰
- 10.4.9 2023년 8월 무력분쟁 위치 및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Armed Conflict Location & Event Data Project, ACLED)와 아프간 평화 감시단(Afghan Peace Watch, APW)의 공동 보고서는 “2021년 8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무력분쟁 위치 및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ACLED)는 전 정부 및 보안 담당 관리를 표적으로 한 400건 이상의 폭력 행위를 기록했으며, 이 중 290건은 탈레반이 저지른 사건이었다”⁹¹고 언급했다.

⁸⁶ NPR, [For Afghans who fought against the Taliban, life is fraught under their...](#), 28 November 2022

⁸⁷ NPR, [For Afghans who fought against the Taliban, life is fraught under their...](#), 28 November 2022

⁸⁸ UNAMA, [Human Rights Situation in Afghanistan: October – December...](#) (page 5), January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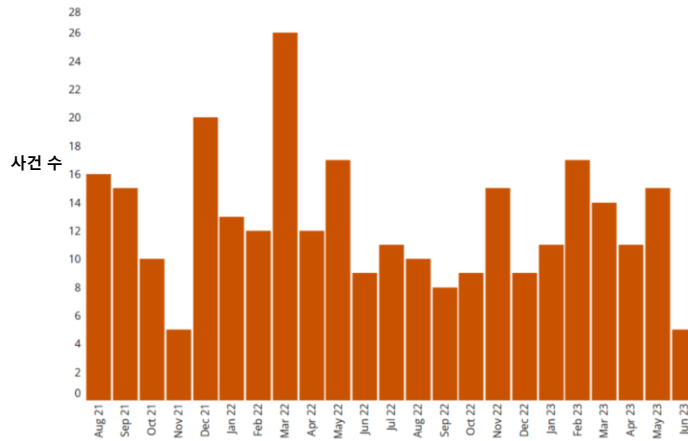
⁸⁹ UNGA, UNSC,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aragraph 32), 1 December 2023

⁹⁰ UNGA, UNSC,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aragraph 32), 1 December 2023

⁹¹ ACLED and APW, [Two Years of Repression...](#), 11 August 2023

전 정부 및 보안 담당 관리를 표적으로 한 탈레반의 폭력

2021년 8월 16일 - 2023년 6월 30일



출처 데이터: 무력분쟁 위치 및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ACLED) 및 APW, 2023년 8월.⁹² 이 그래프는 '정부' 관리 및 '보안' 담당 관리를 구분하지 않았다.

10.4.10 유럽연합망명청(EUAA) 국가별 포커스는 국제 언론인의 발언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탈레반의 선전과 반군 활동 기간 동안 수행한 공격 양상을 볼 때, 당시 탈레반은 특히 국가안보국(NDS) 제로 부대(미국이 훈련시킨 아프간 특수부대 병사의 분대), 육군 특공대 및 아프간 지역 경찰(ALP)을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식통은 이것이 집권 후 발생한 표적 공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르 몽드(Le Monde)는 탈레반이 국가안보국(NDS) 요원에 대해 ‘진정한 원한’을 품고 있으며, 이는 ‘외국군과 협력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더 심하다’고 보도했다.”⁹³

10.4.11 같은 보고서는 “집권 후 탈레반이 전직 아프간 국방안보군(ANDSF) 대원과 그들의 친척을 살해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 정부의 민간 및 군사 부문의 규모에 비하여 보복이 비교적 적었다고 평가했다”⁹⁴고 덧붙였다.

10.4.12 네덜란드 외교부(MFA)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많은 전직 관리와 보안군 인력은 그들의 친척이 위협, 협박 및 신체적 폭행을 겪었다고 말했다. 여러 기관이 이를 확인했으며 전직 보안군 인력과 정부 직원의 친척이 심문, 구타, 폭력 및 심지어 처형을 당한 사실을 발견했다. 다른 소식통도 가족 구성원에 대한 위협이 탈레반의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가족 구성원도 위협에 처했다.”⁹⁵

10.4.13 네덜란드 외교부(MFA) 보고서는 덴마크 이민국의 사실조사단 보고서[[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주민에 대한 영향](#), 2022년 6월]를 언급했는데,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⁹² ACLED and APW, [Two Years of Repression...](#), 11 August 2023

⁹³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s 60, 61), December 2023

⁹⁴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 58), December 2023

⁹⁵ Netherlands MFA, [General Country of Origin Report Afghanistan](#) (pages 67, 68), June 2023

“... 전직 보안 인력의 친척이 어느 정도까지 표적이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실태가 파악되지는 않았다. 보고서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가니 정부, 국제 기업, 외국군, 대사관 또는 비정부기구(NGO)를 위해 일한 가족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박해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활동이나 직업 또는 탈레반 구성원과 이전에 분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었다.”⁹⁶

10.4.14 '피해자와 생존자, 목격자, 보건소 직원 및 교육 기관 교사, 인권 옹호자, 변호인, 사법 및 법률 기관의 전직 및 현직 직원과 석방된 구금자'⁹⁷가 제공한 현지 정보에 기반하여, 독립적인 인권 기관 라와다리(Rawadari)는 2023년에 최소 118명의 전 정부 직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임의 체포 및 구금을 기록했는데, 여기에는 91명의 군인이 포함되었다⁹⁸. 118명 중 47명의 군인, 5명의 민간인 및 21명의 친척이 2023년 첫 6개월 동안 불법적으로 체포되고 구금되었지만, 라와다리(Rawadari)는 이 수치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⁹⁹.

10.4.15 유럽연합망명청(EUAA) 국가별 포커스는 전직 아프간 국방안보군(ANDSF) 대원 및 그 가족이 당한 인권 침해에 대한 데이터를 인용했다. 해당 자료에는 아프간 주도 비정부기구(NGO)인 [안전·위험완화기구\(Safety and Risk Mitigation Organization, SMRO\)](#)와, 아프가니스탄의 내 인권 상황 및 현재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 보존 및 검증하기 위해 [정보 회복력 센터\(Centre for Information Resilience, CIR\)](#)가 설립한 [아프간 위트니스\(Afghan Witness, AW\)](#)가 취합한 통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가해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들도 함께 수록되었다.

2022년에 안전·위험완화기구(SMRO)는 전직 보안군에 대한 76건의 살인과 57건의 구금을 기록했지만, 2023년에는 1분기에만 27건의 살인과 55건의 구금을 기록하면서 그 수치가 증가했음에 주목했다. 2023년 2분기에 안전·위험완화기구(SMRO)는 여러 주에서 2건의 강간과 전직 보안군에 대한 추가 15건의 살인 및 35건의 구금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살인은 카불에서 발생했다(4건). 더욱이 한 전직 국가안보국(NDS) 관리는 호스트주에서 구금 중 심각한 고문을 당한 후 자살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거의 같은 기준 기간(2023년 1월 1일 ~ 2023년 7월 10일) 동안 아프간 위트니스(AW)는 28개 주에서 발생한 전직 아프간 국방안보군(ANDSF) 대원 및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한 108건의 고문, 임의 구금, 살인 및 공격에 관한 주장을 기록했다. 19개 주에서 57건의 살인이 발생했고, 1건은 미확인 장소에서 발생했다. 아프간 위트니스(AW) 데이터는 또한 대부분의 살인이 카불주에서 발생했음을 보여줬다(9건).¹⁰⁰

10.4.16 유럽연합망명청(EUAA)의 국가별 포커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ACAPS[평가역량프로젝트 – [‘아프가니스탄 – 위기 대처...’](#) 2023년 6월]는 카불의 도시와 농촌의 가구가 가족 구성원이 과거 아프간 국방안보군(ANDSF)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탈레반 당국의 학대를 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우려는 불안을 야기했고 모든 가구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됐으며, 그들은 탈레반의 주목을 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 일 또는 인도적 지원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 영향을 받았다.”

⁹⁶ Netherlands MFA, [General Country of Origin Report Afghanistan](#) (pages 67, 68), June 2023

⁹⁷ Rawadari, [Human Rights Situation Report 2023](#) (page 5), March 2024

⁹⁸ Rawadari, [Human Rights Situation Report 2023](#) (page 16), March 2024

⁹⁹ Rawadari, [Human Rights Situation in Afghanistan: Mid-year...](#) (pages 17 to 18), August 2023

¹⁰⁰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s 58, 59), December 2023

아프간 국방안보군(ANDSF)은 친척들이 전직 보안 인력을 표적으로 한 공격에 자주 "휘말렸다"고 설명했으며, 탈레반 군이 집을 급습했을 때 전직 군 관리의 아내와 두 아들이 구타당한 사례를 제시했다. 두 아들은 알려지지 않은 장소로 끌려갔다.

2023년 2분기에 안전·위험완화기구(SMRO)는 전직 보안 인력의 친척 6명이 구금되고 1명이 강간당했다는 정보를 수집했다. 2023년 상반기 동안 라와다리(Rawadari)는 전 민간 인력 및 보안 인력의 친척 21명이 자의적으로 체포되었다고 기록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라와다리(Rawadari)는 가족 구성원이 인권 단체와 이야기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았다는 보고들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할 때 강제 실종 발생률이 실제보다 훨씬 더 높다고 평가했다.¹⁰¹

- 10.4.17 같은 보고서는 가족 구성원의 구금, 고문, 강간, 강제 실종 및 살해를 포함한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유럽연합망명청(EUAA) 보고서는 아프간 위트니스(AW)가 일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보인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¹⁰².

[목차로 돌아가기](#)

10.5 대상자의 인적사항: 외국군과 연계된 사람(및 그 가족 구성원)

10.5.1 유럽연합망명청(EUAA)의 국가별 포커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탈레반의 일반 사면은 외국군과 연계된 사람까지 확대되었다. 많은 이들이 탈레반 집권 후 대피 작전 중에 아프가니스탄을 떠났으며, 남아 있는 사람은 언론 인터뷰에서 숨어 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했듯이, 르 몽드(Le Monde)는 탈레반이 국가안보국(NDS) 요원에 대해 '깊은 원한'을 품고 있으며, 이는 "외국군에게 협력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 심화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 라이트하우스 리포트(Lighthouse Reports) 및 스카이 뉴스(Sky News)의 공동 조사를 통해 2021년 8월 이후 '영국이 창설하고 훈련 및 자금을 지원한' 수십 명의 전직 특수부대원들이 탈레반에 의해 구타당하거나 고문당하거나 살해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2002년에 설립된 전 특수부대333(Commando Force 333, CF333)과 2006년에 설립된 '트리플스(Triples)'로 알려진 전직 아프간 영토군 444(Afghan Territorial Force 444, ATF444) 소속 대원들이었다. 관련 증거에 따르면 해당 부대가 영국 외무연방부(British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로부터 급여를 수령했으며, 2014년 이후 폴란드군이 아프간 영토군 444(ATF444)의 지휘 및 관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많은 이들이 가족과 떨어져 숨어 살았고, 탈레반을 피하기 위해 매달 장소를 옮겼다고 보도되었다. 해당 조사는 이러한 사례 24건을 검증했으며, 탈레반 및 신원 미상의 가해자에 의한 살해 사례 6건과 탈레반 구금 중 고문 사례 3건을 구체적 예시로 제시했다.

-2023년 전시동맹국협회(Association of Wartime Allies)는 미군을 조력했거나 2023년에 특별 이민 비자(Special Immigration Visa, SIV)를 신청한 아프간인을 조사했다. 응답자 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30%가 미국을 도왔다는 이유로 탈레반에 의해 투옥되었고, 응답자의 약 절반이 탈레반에 의해 구금되거나 심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거의 모든 응답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을 벗어나지 못했다. 76~78%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임무를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폭력을 직접 목격했다. 노원레프트비하인드(No One Left Behind)는 2022년에 1만 6,000명의 특별 이민 비자(SIV) 신청자를 조사했다. 거의 70%가 카불시에 거주했고, 10.8%는 카불주에 거주했다.

¹⁰¹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 62), December 2023

¹⁰²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s 62, 63), December 2023

63.8%는 자신과 가족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6.5%는 안전하다고 답했으며, 29.7%는 "때때로" 안전하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7.6%는 탈레반을 안전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약 10%가 자신과 가족이 지난 주 동안 탈레반의 위협을 받았다고 답했고, 75.8%가 지난 1개월에서 6개월 동안(2022년 8월 기준) 위협을 받았다고 답했다. 14.5%는 탈레반의 위협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¹⁰³

[목차로 돌아가기](#)

10.6 대상자의 인적사항: 전 정부 관리,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공식 직책 또는 자문 역할을 수행한 인물(및 그 가족 구성원)

10.6.1 호주 외교통상부(DFAT)의 2022년 1월 주제별 보고서는 "... 아프가니스탄 정부 내의 하급 및 중급 일반 관리들이 국가 운영을 돕기 위해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¹⁰⁴ 고 언급했으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통치 체계를 재가동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자 함에 따라 일반직 및 기술직 정부 관리들은 현재 탈레반으로부터 부정적 주목을 받을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¹⁰⁵고 판단했다.

10.6.2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은 '... 2021년 8월 15일 탈레반 집권 후 2023년 6월 30일까지 전 정부 관리 및 아프간 국방안보군(ANDSF) 대원에 대한 최소 800건의 인권 침해'¹⁰⁶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소식통은 '인권 침해'가 무엇이었는지, 각각의 침해 사례가 몇 건 발생했는지, 아프간 국방안보군(ANDSF) 대원 대비 정부 관리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구체적으로 몇 건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10.6.3 2023년 8월 무력분쟁 위치 및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ACLED)와 아프간 평화 감시단(APW)의 공동 보고서는 "무력분쟁 위치 및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ACLED)가 추적하는 주요 신원 범주에 따르면, 카불 함락 이후 국내에서 탈레반이 가장 표적으로 삼은 민간인 집단은 전 정부 및 보안 관리였다"¹⁰⁷고 밝혔다.

10.6.4 국제 문제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의 2022년 2월 9일 자 기사는 탈레반의 집권 후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있는 공무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탈레반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총 45만 5,000명의 공무원 중 98% 이상이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있으며, 여기에는 재무부 소속 차관 최소 2명, 교통항공부 소속 2명, 카불 시정부 소속 1명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전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Hamid Karzai)와 전 국가화해고등평의회 의장 압둘라 압둘라(Abdullah Abdullah)도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있지만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소수의 공무원이 아프가니스탄에 남기로 선택한 반면, 대부분의 공무원은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국제적인 연줄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많은 이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통치자를 두려워했지만, 대부분은 정기적인 소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¹⁰⁸

10.6.5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현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과 여성 및 여아에 대한 차별에 관한 실무그룹은 2023년 6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¹⁰³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s 64, 65), December 2023

¹⁰⁴ DFAT, [Thematic Report on Political and Security Development...](#) (paragraph 3.29), January 2022

¹⁰⁵ DFAT, [Thematic Report on Political and Security Development...](#) (paragraph 3.30), January 2022

¹⁰⁶ UNAMA, [A barrier to securing peace...](#) (page 5), August 2023

¹⁰⁷ ACLED and APW, [Two Years of Repression...](#), 11 August 2023

¹⁰⁸ Foreign Policy, [I Wanted to Stay for My People](#), 9 February 2022

“2021년 8월 이전까지 여성은 ... 공무원의 30%를 차지했으며, 정부, 독립 위원회 및 사법부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관리 중 상당수가 집권 이후 국외로 도피했으나, 아프간에 남은 많은 인원은 ‘일반 사면’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 복무한 이력으로 인한 보복을 두려워하며 생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직 공무원에 대한 지속되는 보복 공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¹⁰⁹([여성과 여아 참조](#))

10.6.6 국제위기그룹(ICG)은 판지쉬르 주민 및 전 정부 관리와의 인터뷰(2022년 5~6월)를 기반으로 “보복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공화국의 정치 및 안보 기구의 규모에 비해 그 수가 적다는 점은, 전 정부 관리를 전원 추적하는 것이 탈레반의 국가적 정책은 아님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은 무장 저항이 가장 치열했던 낭가르하르와 판지쉬르와 같은 지역에서 많은 전직 보안 관리를 구금하고 심문했다”¹¹⁰ 고 밝혔다.

10.6.7 또한 유럽연합명명청(EUAA) 국가별 포커스는 위 국제위기그룹(ICG)의 지적을 언급하며 “이 정보는 한 국제 언론인에 의해 확인됐는데, 그는 탈레반이 전직 군인을 살해하기 위한 조직적인 복수 캠페인을 전개했다면 사망자 수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¹¹¹ 고 덧붙였다.

10.6.8 라히미는 2022년 7월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인력 배치 측면에서, 탈레반은 국가 단위에서 국내에 남아 있는 기술 부처의 직원 대부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도부 요직에는 탈레반 구성원을 배치했다. 반면, 보안 부처는 비탈레반 인사를 거의 모두 숙청했다. 교육부 및 고등교육부와 같이 탈레반이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를 다루는 부처에서는 대부분의 직원을 탈레반 구성원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 행정 차원에서는 국가 통제력을 강화하고 비대해진 전투 병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방 행정 관청의 직원 상당수를 탈레반 대원들로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사와 교수직은 대부분 유지하였다. 중앙 및 지방 차원의 인력 배치 결정은 대개 전문 자격보다는 탈레반과의 친소 관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¹¹²

10.6.9 노르웨이 국가정보정보 센터¹¹³인 란드인포(Landinfo)는 2022년 9월 국가정보정보(COI) 질의 답변서 ‘탈레반의 집권 후 출국 및 귀환’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집권한 이후 오늘날까지 탈레반은 아프간인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집권 직후 대피 기간 동안 탈레반은 서구 국가들이 전문 인력인 아프간인을 대피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대변인 자비울라 무자히드(Zabiullah Mujahid)는 “우리는 그들의 재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Matire & Lode 2021).

-탈레반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교육과 행정 경험이 있는 국민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탈레반은 민간 및 군사 지도자에게 귀국할 것을 권장한다.

¹⁰⁹ UNHRC, [Situation of women and girls in Afghanistan...](#) (page 6), 15 June 2023

¹¹⁰ ICG, [Afghanistan's Security Challenges under the Taliban](#) (section IV(C)), August 2022

¹¹¹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s 56, 57), December 2023

¹¹² Rahimi, H, [Remaking of Afghanistan ...](#) 26 July 2022

¹¹³ Landinfo, [About Landinfo](#), no date

이 메시지는 모든 아프간인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것이다¹¹⁴

10.6.10 라와다리(Rawadari)는 2024년 3월에 발행된 2023년 연례보고서에서 탈레반 및 신원미상자가 전 정부 직원을 표적으로 삼아 초법적으로 살해한 사례를 보고했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무장 세력은 사실은 복수를 시도한 탈레반이었다¹¹⁵. 이 보고서는 “탈레반, 특히 정보 기관이 전 정부 직원을 암살한 다음 이들이 ISIS 집단과 연계되어 있었거나 자살했다고 발표하는 사례가 있다”¹¹⁶ 고 덧붙였다.

10.6.11 라와다리(Rawadari)는 2023년에 82명의 전 정부 직원이 표적 살해(및 1명 부상)되었다고 기록했는데, 여기에는 68명의 군인과 14명의 전 정부 공무원이 포함되었다¹¹⁷. 사건의 대부분은 2023년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발생했으며, 라와다리(Rawadari)는 45명의 전직 군인과 10명의 민간 직원이 연루된 54건의 살인과 1명의 부상자를 기록했다¹¹⁸. 라와다리(Rawadari)는 탈레반의 언론 통제로 인해 초법적 살해에 대한 정보 수집의 한계를 언급했다¹¹⁹.

10.6.12 유럽연합망명청(EUAA) 국가별 포커스는 탈레반의 일반 사면과 관련하여 “집으로 돌아간 대부분의 여성 공무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직 공무원은 카불의 새로운 탈레반 정부 체제 하에서 업무를 재개할 수 있었다”¹²⁰고 언급했다.

10.6.13 유럽연합망명청(EUAA)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지방에서 탈레반은 소속 대원들을 전직 관리들로부터 교육받게 한 뒤 이들을 대체하려는 시도를 지속했다. 일부 전 보안 인력은 탈레반 군에서 근무 중이며, 한 국제 언론인은 특정 지역의 전 국가안보국(NDS) 지부장이 탈레반의 지역 의사결정 기구인 슈라의 의장으로 임명된 사례를 확인했다. 한편, 퇴직 공무원들은 연금 미지급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전직 군인 및 민간 인력을 대상으로 한 살인과 다양한 형태의 가혹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인원들은 보복을 피해 은신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¹²¹

10.6.14 2023년 9월 18일 이후 아프가니스탄 정세에 관한 2023년 12월 1일 자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탈레반 당국에 따르면, 집에 머물도록 명령받은 여성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급여가 계속 지급되고 있다. 탈레반 순교자 및 장애인부(de facto Ministry for Martyrs and Disabled Affairs)는 9월 초 공화국 시기 및 탈레반 당국 집권 시기의 순교자와 장애인 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지만, 공화국 시절 퇴직한 정부 직원의 연금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었다”¹²²고 언급했다.

10.6.15 유럽연합망명청(EUAA) 국가별 포커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¹¹⁴ Landinfo, [Departures and returns after Taliban's takeover of power](#) (page 3), 29 September 2022

¹¹⁵ Rawadari, [Human Rights Situation Report 2023](#) (page 12), March 2024

¹¹⁶ Rawadari, [Human Rights Situation Report 2023](#) (page 12), March 2024

¹¹⁷ Rawadari, [Human Rights Situation Report 2023](#) (page 12), March 2024

¹¹⁸ Rawadari, [Human Rights Situation in Afghanistan...](#) (page 11), August 2023

¹¹⁹ Rawadari, [Human Rights Situation Report 2023](#) (page 11), March 2024

¹²⁰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s 56, 57), December 2023

¹²¹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s 56, 57), December 2023

¹²² UNGA, UNSC,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aragraph 14), 1 December 2023

탈레반은 해외에 체류 중인 전직 관리들이 귀환할 경우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하며, 2022년 3월 '전직 아프간 관리 및 정치 인사의 귀환 및 소통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했다. 톨로뉴스(TOLOnews)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2022년 11월 초까지 전직 장관, 주지사 및 장군을 포함하여 최대 1,000명의 사업가와 정치인 또는 군 인사가 아프가니스탄으로 귀환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2023년에도 정치 인사 및 전 정부 관리의 귀환을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한 국제 분석가는 1,000명 귀환이라는 추산치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제로는 극소수의 전직 정치 및 군사 인사가 귀환했으며 그들 중 상당수도 다시 출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른 언론 매체도 아프가니스탄으로 귀환하는 정치 인사 및 전 정부 관리에 관해 보도했다. 국제 분석가에 따르면, 귀환 위원회는 어떠한 정치적 인정이나 충성 서약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위원회는 주로 부유한 사람이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귀환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정보기관의 전직 국장 라흐마툴라 나빌(Rahmatullah Nabil)도 일부 전직 관리가 개인적 사업 이익을 위해, 재산과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귀환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카불 나우(Kabul Now) [[탈레반의 거짓 사면...](#), 2023년 7월]는 하급 군 관리가 귀환 후 구금, 실종 또는 살해된 개별 사례에 관해 보도했다. 카불 나우(Kabul Now)는 일부 고위 군 관리가 귀환 시 탈레반 관리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은 반면, 다른 이들은 "냉담한 환영"을 받았거나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소식통은 귀환하는 관리들이 구금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귀환 시 '면책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탈레반이 등록 센터를 발표하지 않았고 귀환 위원회에 연락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면책 카드를 받는 것은 어려웠다고 보도되었다. 일부의 경우, 귀환자는 면책 카드를 받기 위해 탈레반 관리에게 뇌물을 제공해야 했다. 더욱이 탈레반 관리가 면책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사례도 있었다. 카불 나우(Kabul Now)가 제공한 정보를 다른 소식통에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¹²³

10.6.16 네덜란드 외교부(MFA)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탈레반은 민간 직원보다 보안군 인력(하급, 중급 및 고위)에게 더 집중적으로 박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탈레반이 정의한 '민간인'의 범주는 인도법상의 정의보다 훨씬 좁은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장관, 고위 관리 및 군대에서 비전투 직책을 맡았던 인원을 비민간인으로 간주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전직 관리의 처우(및 박해 가능성)는 그들이 맡았던 직책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었다.

-의료 및 교육 분야 종사자는 표적이 되는 경우가 덜 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것이 '덜 위험한'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은 박해받을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¹²⁴

10.6.17 라와다리(Rawadari)는 2023년에 최소 118명의 전 정부 직원 및 그 가족 구성원이 자의적으로 체포 및 구금된 사례를 기록했는데, 여기에는 6명의 민간 인력이 포함되었다¹²⁵.

¹²³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s 57, 58), December 2023

¹²⁴ Netherlands MFA, [General Country of Origin Report Afghanistan](#) (pages 67, 68), June 2023

¹²⁵ Rawadari, [Human Rights Situation Report 2023](#) (page 16), March 2024

2023년 상반기 동안 118명 중 47명의 군인, 5명의 민간 인력 및 21명의 친척이 불법적으로 체포되고 구금되었지만, 라와다리(Rawadari)는 실제 수치가 이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¹²⁶.

10.6.18 유럽연합망명청(EUAA) 국가별 포커스는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무력분쟁 위치 및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ACLEDA) 데이터에 따르면 칸다하르주의 사망자 중 29건(100건 중)이 전직 보안군 인력의 살해와 전직 세관 직원 1명의 살해와 관련이 있었다. 탈레반이 주요 가해자로 확인되었지만, 살해 배후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 분석가 네트워크(AAN)가 실시한 인터뷰에서 전 정부의 고위 공무원은 일반 사면이 발표된 후 자신과 두 형제가 아프가니스탄으로 귀환한 방법(탈레반 집권 중 튀르키예로 도피한 후)을 설명했다. 그는 탈레반 당국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출신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보호를 위해 총을 소지하는 것까지 허용됐다고 밝혔다. 그는 탈레반이 자신이나 가족을 표적으로 삼지 않은 이유가 그들이 탈레반과 싸우지 않고 전 공화국을 위해 민간인으로 복무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낭가르하르 출신의 전직 아프간 국군(ANA) 대원은 고향 마을의 소셜 네트워크가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포되어 1주일의 구금형에 처해졌고 이후 두 차례 더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그는 탈레반 집권 이후, 승리한 쪽의 “동료 부족민에게 ‘무력 과시’를 당했다”고 했다.”¹²⁷

[목차로 돌아가기](#)

10.7 대상자의 인적사항: 전직 판사, 변호사 및 검사

10.7.1 유럽연합망명청(EUAA) 국가별 포커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탈레반은 집권 후 모든 판사를 축출했으며, 검사는 처음에는 출근 정지 명령을 받았지만 공식적으로 해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분석가 네트워크(Afghanistan Analysts Network, AAN)[[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돈을 무엇에 쓰는가?...](#), 2023년 3월]가 인터뷰한 자에 따르면,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전문가’로 여겨지는 일부 남성 판사는 업무 복귀를 요청받기도 했다. 반면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는 2023년 9월 11일 기준, 유임된 전직 판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보고했다. 국제법률지원컨소시엄(International Legal Assistance Consortium, ILAC)[[Afghanistan Report 2023](#)] 역시 소수의 남성 판사가 제한적 또는 임시적 직무에 복귀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이는 ‘극히 드문 사례’이며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직 검사들은 탈레반 검찰청에서 업무를 재개해왔다. 국제법률지원컨소시엄(ILAC)은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2021년 말까지 전직 검사의 20~25%가 카불의 검찰청으로 복귀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후 탈레반 최고 지도자와 탈레반 검찰총장은 탈레반 법원이 검찰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검사는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탈레반 검찰청 자체가 폐지되지는 않았다. 국제법률지원컨소시엄(ILAC)에 따르면 검사의 법적 및 운영상 지위는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지역마다 상당히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검사(및 판사)는 숨어 지내거나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¹²⁶ Rawadari, [Human Rights Situation in Afghanistan...](#) (pages 17 to 18), August 2023

¹²⁷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 61), December 2023

특히 여성 판사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났다. 아프가니스탄 판사 협회(Afghanistan Judges Association)는 남성 판사들이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한 법률 컨설턴트도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와의 대화에서 남성 검사도 공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8월 15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이 기록한 800건의 인권 침해 중 2%가 전직 판사와 검사를 표적으로 삼았다. 탈레반이 석방한 범죄자는 자신에게 형을 선고한 검사와 판사에 대해 보복을 시도했다. 가디언(Guardian)이 인용한 아프가니스탄 검사협회(Association of Prosecuting Attorneys Afghanistan) 구성원에 따르면, 탈레반 집권 후 최소 28명의 전직 검사 및 그 가족 구성원이 살해되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12명 이상의 전직 검사가 살해당했다고 보고했다.¹²⁸

10.7.2 네덜란드 외교부(MFA) 보고서는 변호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1년 11월,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독립변호사협회(Afghanistan Independent Bar Association, AIBA)를 탈레반 당국 법무부에 통합했다. 이들은 검찰청과 아프가니스탄 독립변호사협회(AIBA)의 주요 역할을 박탈했다. 탈레반은 변호사들에게 면허 갱신을 요구하는 법령을 발표했으며, 이 절차는 남성에게만 허용되었다. 그 결과, 이전에는 전체 변호사의 4분의 1이었던 여성 변호사는 더 이상 그 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250명 이상의 여성 판사와 수백 명의 여성 변호사 및 검사가 이런 방식으로 해임되었다. 사실상 법무부는 2022년 11월 10일 현재, 평가 대상 변호사 1,332명 중 1,275명이 조건을 충족했고, 이 중 947명이 면허를 갱신했다고 보고했다. 2021년 8월 이전에는 1,500명의 여성을 포함하여 6,000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었다.”¹²⁹

10.7.3 2023년 9월 11일자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2023년 7월 4일 현재, 1,479명의 남성 변호사가 재면허를 받았다고 밝혔다¹³⁰.

10.7.4 2023년 9월, 미국의 소리(VOA)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2021년 탈레반이 집권했을 때, 그들은 검찰청을 해체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수천 명의 탈레반 반군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했던 전직 검사들을 박해했다.

-유엔인권기구는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의 교도소에서 석방한 수천 명의 수감자들이 전직 검사와 판사들을 대상으로 보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난 1월 보고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12명 이상의 전직 검사가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¹³¹

10.7.5 주로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상황을 수록하여 2024년 2월에 발행된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현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 이슬람 공화국에서 복무한 판사와 검사들이 일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지원과 이주를 모색하는 등 극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특별보고관에게 알렸다”¹³² 고 언급했다.

10.7.6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또한 “탈레반은 사면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보안 인력뿐만 아니라 전 사법부 구성원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¹²⁸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s 63, 64), December 2023

¹²⁹ Netherlands MFA, [General Country of Origin Report Afghanistan](#) (page 115), June 2023

¹³⁰ UNHRC,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Afghanistan...](#) (paragraph 21), 11 September 2023

¹³¹ VOA, [Taliban Undertake Speedy Overhaul of Afghanistan's Justice System](#), 28 September 2023

¹³² UNHRC,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Afghanistan...](#) (paragraph 85), 22 February 2024

특별보고관은 “2023년 1월 이후 전국적으로 20명의 검사(남성 18명, 여성 2명)가 살해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¹³³ 고 했으며, “판사와 검사는 집권 직후 석방된 수감자로부터 보복의 위협을 받고 있다”¹³⁴ 고 밝혔다.

[목차로 돌아가기](#)

11. 반정부 무장 단체와 연계된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

11.1 주요 반정부 무장 단체

- 11.1.1 국제위기그룹(ICG)은 2022년 8월 보고서에서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와 국민저항전선(NRF)을 '주요 반정부 단체'로 묘사했다¹³⁵.
- 11.1.2 무력분쟁 위치 및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ACLED)는 데이터 분류 방법과 관련하여,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IS)도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5년 이슬람국가(IS)는 스스로를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IL-KP)라고 지칭하는 아프가니스탄/남아시아 계열 조직의 결성을 발표했다”¹³⁶고 설명했다.
- 11.1.3 독립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는 2023년 1월 최종 업데이트된 탈레반에 관한 배경 자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최대 4,000명의 구성원을 둔 이슬람국가 호라산(Islamic State in Khorasan)이 탈레반의 주요 군사적 위협으로 부상했다”¹³⁷고 언급했다. 같은 보고서는 “또한 탈레반의 통치에 반대하기 위해 스스로를 국민저항전선(NRF)이라고 부르는 전직 관리, 지역 민병대원 및 아프간 보안군의 저항 운동이 결성되었다”¹³⁸고 덧붙였다.
- 11.1.4 라히미는 2023년 3월 알자지라 기사에서 “호라산 지부(ISKP)는 아프가니스탄에서 ... 탈레반 관리를 표적으로 삼는 가장 심각한 내부 위협으로 남아 있다”¹³⁹고 의견을 제시했다.
- 11.1.5 밀스(Mills) 전쟁연구소(ISW)의 2024년 3월 탈레반 통치에 관한 논문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탈레반 정권은 통치와 관련하여 여러 중대한 국내 문제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첫째는 구 정권 지도자 및 탈레반의 통치를 거부하는 집단의 대표자들이며, 둘째는 탈레반의 집권 이전에 미국, 아프간 및 탈레반 군대의 공격 대상이었으며 오늘날에도 탈레반과 대립하고 있는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와 같은 테러 집단의 구성원이다. 첫 번째 범주에는 국민저항전선(NRF) 및 아프가니스탄 자유전선과 같은 집단이 포함되며, 둘 다 탈레반의 카불 점령 이후 결성된 반탈레반 집단으로 전직 아프간 국가안보군(Afghan National Security Forces, ANSF) 장교 및 전직 아프간 정부 관리가 주도하거나 이들과 연계되어 있다.”¹⁴⁰
- 11.1.6 국제위기그룹(ICG)의 2022년 8월 보고서는 “아프가니스탄은 알카에다(al-Qaeda),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및 기타 여러 지하드 단체의 본거지로 남아 있다”¹⁴¹ 고 언급했다.

¹³³ UNHRC,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Afghanistan...](#) (paragraph 85), 22 February 2024

¹³⁴ UNHRC,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Afghanistan...](#) (paragraph 85), 22 February 2024

¹³⁵ ICG, [Afghanistan's Security Challenges under the Taliban](#) (section V(B)), August 2022

¹³⁶ ACLED, [Coding decisions on the Taliban ... and more](#), updated 29 November 2023

¹³⁷ CFR, [The Taliban in Afghanistan](#), updated 19 January 2023

¹³⁸ CFR, [The Taliban in Afghanistan](#), updated 19 January 2023

¹³⁹ Al Jazeera, [The Taliban in Government: A Grim New Reality Is Settling In](#), 23 March 2023

¹⁴⁰ ISW, [Taliban Governance in Afghanistan](#) (page 15), March 2024

¹⁴¹ ICG, [Afghanistan's Security Challenges under the Taliban](#) (section V(C)), August 2022

- 11.1.7 2023년 12월 1일 자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소셜 미디어에서 무장 단체가 주장하는 공격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사실상 당국에 대한 실제 공격 건수는 감소했다. 아프가니스탄 자유전선(Afghanistan Freedom Front)은 보고서 작성 기간 동안 가장 활동이 활발한 집단이었지만, 공격 규모는 작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국민저항전선(NRF)은 2022년보다 훨씬 활동이 줄어 전통적 거점인 판지쉬르에서 공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¹⁴²고 언급했다.
- 11.1.8 같은 보고서는 “보고서 작성 기간 중 아프가니스탄 방위군 전선(Afghanistan National Guard Front), 국민동원전선(National Mobilization Front), 국민전투전선(National Battle Front) 및 아프가니스탄 통일전선(Afghanistan United Front) 등 4개의 반정부 무장 단체가 창설을 선언했다. 후자의 두 집단이 공격한 사례는 없었다”¹⁴³고 덧붙였다.

[목차로 돌아가기](#)

11.2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

- 11.2.1 2023년 8월 AP 통신(Associated Press, AP) 뉴스 기사는 “[탈레반이] 이슬람국가(IS)와 같은 무장 단체에 대한 단속을 통해 국내 안보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으며, “이슬람국가(IS)는 두 개의 정부 부처를 포함하여 주요 표적에 치명적인 폭탄 공격을 가했지만, 무장 세력은 탈레반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펼칠 전투원, 자금 및 그 밖의 자원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¹⁴⁴ 라고 밝혔다.
- 11.2.2 로인(Loyen)은 2023년 11월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¹⁴⁵.
- 11.2.3 자유유럽방송(RFE/RL)의 2024년 3월 기사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계속 공격하는 것 외에도,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는 최근 몇 달 동안 외부 작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¹⁴⁶고 언급했다.
- 11.2.4 같은 기사는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는 아프간 및 외국 전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23년 6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 무장 세력 수가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4,000명에서 6,000명 사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는 그 수가 훨씬 더 적다고 추정한다”¹⁴⁷고 덧붙였다.
- 11.2.5 라히미와 앤드루 왓킨스(미국평화연구소의 선임 전문가)는 2024년 1월 기사에서 다른 출처를 인용하며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는 2023년 내내 아프가니스탄 내 외국 기관을 표적으로 삼고 고위 관리를 암살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으며, 2024년 초 이란에서의 공격이 보여주듯, 이 지역 전체의 심각한 안보 우려 대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탈레반의 권위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실제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당분간의 목표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¹⁴⁸고 평가했다.
- 11.2.6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 연루 의심 단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유럽연합망명청\(EUAA\) 국가별 포커스](#) 67~69페이지를 참조한다.

[목차로 돌아가기](#)

¹⁴² UNGA, UNSC,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aragraph 18), 1 December 2023

¹⁴³ UNGA, UNSC,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aragraph 18), 1 December 2023

¹⁴⁴ AP News, [The Taliban Are Entrenched in Afghanistan after 2 Years of Rule](#), 14 August 2023

¹⁴⁵ Loyen D, [The scattered forces opposing the Taliban need support now](#), updated November 2023

¹⁴⁶ RFE/RL, [From Offshoot To “Spearhead”: The Rise Of IS-K](#), 26 March 2024

¹⁴⁷ RFE/RL, [From Offshoot To “Spearhead”: The Rise Of IS-K](#), 26 March 2024

¹⁴⁸ Rahimi H and Watkins A H, [Taliban Rule at 2.5 Years](#) January 2024

11.3 국민저항전선(NRF)

11.3.1 국제위기그룹(ICG)의 2022년 8월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국민저항전선(NRF)은 판지쉬르 외 다른 지역에서 관심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북부 지역의 여러 유력 사령관들은 국민저항전선(NRF) 지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프가니스탄 자유전선(AFF)과 국민저항전선(NRF)이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각 단체가 상대방으로부터 서로의 전투원을 포섭하려 경쟁하고 있어 양자 간의 통합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고위 저항 평의회(High Resistance Council)와 국민저항전선(NRF) 간의 합병도 지도부를 둘러싼 다툼으로 인해 적어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¹⁴⁹

11.3.2 2023년 1월 최종 업데이트된 외교협회(CFR) 배경 자료는 “국민저항전선(NRF) ... 은 산악 지대인 북부 판지쉬르주에 거점을 두고 다른 여러 주에서 게릴라 공격을 전개했다”¹⁵⁰ 고 보고했다. 또한 “분석가들은 해당 단체가 현재 탈레반의 통제를 위협할 만큼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¹⁵¹ 고 언급했다.

11.3.3 2023년 8월 무력분쟁 위치 및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ACLED)와 아프간 평화 감시단(APW)의 공동 보고서는 밀스(Mills)(전쟁연구소(ISW), 2022년 9월¹⁵²)를 인용하여 “가장 큰 반탈레반 무장 단체인 국민저항전선(NRF)은 주로 국가의 북동부, 특히 판지쉬르주와 그 주변에서 활동해왔다. 국민저항전선(NRF)은 2022년 중반 아프가니스탄 북부, 특히 타카르주에서 더욱 세력을 확장했다”¹⁵³고 설명했다.

11.3.4 밀스(Mills) 전쟁연구소(ISW)의 2024년 3월 논문은 “국민저항전선(NRF)은 전직 아프간 군벌 아흐마드 샤 마수드(Ahmad Shah Massoud)의 아들인 아흐마드 마수드(Ahmad Massoud)가 이끌고 있으며, 주로 아프가니스탄 북동부의 타지크 (Tajik)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¹⁵⁴고 언급했다.

11.3.5 스웨덴 옅살라 대학(Uppsala University)에 기반을 둔 조직적 폭력에 관한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인 옅살라 갈등데이터프로그램(Uppsala Conflict Data Program, UCDP)의 발행일 미상의 국민저항전선(NRF)에 대한 보고 자료는 “국민저항전선(NRF)이 수천 명에서 최대 1만 명의 병력을 통제하고 있다”고 추정했지만, “... 판지쉬르가 탈레반에 포위되어 있고 국제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저항전선(NRF)의 군사적 역량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¹⁵⁵고도 평가했다.

11.3.6 보복 공격(주요 반정부 무장 단체에 대한 탈레반의 반응 참조)을 포함하여 국민저항전선(NRF) 연루 의심 단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유럽연합명명청\(EUAA\) 국가별 포커스](#)의 66~67페이지를 참조한다. 국민저항전선(NRF)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은 [밀스\(Mills\)의 2024년 3월 전쟁연구소\(ISW\) 논문](#)의 부록 B에도 포함되어 있다.

[목차로 돌아가기](#)

11.4 아프가니스탄 자유전선

11.4.1 옅살라 갈등데이터프로그램(UCDP)은 발행일 미상의 아프가니스탄 자유전선(AFF) 보고 자료에서 “다른 명칭으로는 국민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국민자유전선(National Freedom Front),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Afghanistan Liberation Front) 및 아자디 전선(Azadi Front)이 있다”¹⁵⁶ 고 언급했다.

11.4.2 밀스(Mills) 전쟁연구소(ISW)의 2024년 3월 논문은 “아프가니스탄 자유전선(AFF)은 아프가니스탄 남부와 북동부 모두에서 민족 경계를 넘어 활동하며, 전 타카르 주지사이자 전 아프간 국군(ANA)

¹⁴⁹ ICG, [Afghanistan's Security Challenges under the Taliban](#) (section V(B)), August 2022

¹⁵⁰ CFR, [The Taliban in Afghanistan](#), updated 19 January 2023

¹⁵¹ CFR, [The Taliban in Afghanistan](#), updated 19 January 2023

¹⁵² ISW, [Taliban struggles to contain Afghan National Resistance Front](#), 7 September 2022

¹⁵³ ACLED and APW, [Two Years of Repression...](#), 11 August 2023

¹⁵⁴ ISW, [Taliban Governance in Afghanistan](#) (page 15), March 2024

¹⁵⁵ UCDP, [\[Profile of the\] NRF](#), no date

¹⁵⁶ UCDP, [\[Profile of the\] AFF](#), no date

참모총장인 야신 지아(Yassin Zia)가 이끌고 있다”¹⁵⁷ 고 언급했다.

- 11.4.3 AFF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밀스\(Mills\)의 2024년 3월 전쟁연구소\(ISW\) 논문](#)의 부록 B에 포함되어 있다.

[목차로 돌아가기](#)

11.5 그 밖의 반정부 무장 단체

- 11.5.1 스위스 국제문제연구소(Swiss Institute for Global Affairs)의 2022년 4월 영문 블로그는 국민저항전선(NRF)에 대한 목록(및 일부 추가 세부 사항 제공)과 함께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탈레반의 재집권 이후 일련의 저항 단체가 새롭게 결성을 선언했다. 해당 단체들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 압두르랍 라술 사야프(Abdurrah Rasul Sayyaf), 모하마드 유누스 코누니(Mohammad Younus Qonuni), 아타 모하마드 누르(Ata Mohammad Noor), 압둘 라시드 도스툼(Abdul Rashid Dostum), 무하마드 모하키크(Muhammad Mohaqiq), 압둘 하디 아르간디왈(Abdul Hadi Arghandiwal) 및 엔지니어 모하마드 칸(Engineer Mohammad Khan)과 같은 지난 수십 년 간의 주요 반탈레반 핵심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국민저항위원회(National Resistance Council)
- 하자라족 소수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 중부의 일부를 지칭하는 하자리스탄의 이름 없는 용사(Unknown Soldiers of Hazaristan)
-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Liberation Front of Afghanistan).
-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민족 및 해방운동(Afghanistan Islamic National & Liberation Movement).
- 아프가니스탄 자유전선.
- 또 다른 하자라 중심 저항 단체인 자유민주전선(Freedom and Democracy Front)
- 북동부 타카르주의 일부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주장하는 자유군단(Freedom Corps).¹⁵⁸

[목차로 돌아가기](#)

11.6 주요 반정부 무장 단체에 대한 탈레반의 반응

- 11.6.1 유럽연합명명청(EUAA) 국가별 포커스는 “탈레반은 무장 저항에 무력으로 대응했으며, 이후 탈레반의 즉결 처형, 구금 및 구금자 가혹 행위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반탈레반 단체를 지지한다고 의심되는 민간인에 대한 연좌제 및 학대도 있었다”¹⁵⁹고 언급했다. 같은 보고서는 또한 2022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 보고 내용을 언급했는데,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은 “국민저항전선(NRF) 연루자로 간주된 개인에 대한 408건의 임의 체포 및 구금과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 연루자로 간주된 개인에 대한 39건의 임의 체포 및 구금을 기록했다”¹⁶⁰고 주장했다.

- 11.6.2 2023년 한 해 전체를 다룬 라와다리(Rawadari)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2023년 탈레반은 국민저항전선(NRF) 및 기타 반대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혐의로 최소 124명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투옥했다.

¹⁵⁷ ISW, [Taliban Governance in Afghanistan](#) (page 15), March 2024

¹⁵⁸ Swiss Institute for Global Affairs, [Vive la Résistance in Afghanistan?](#), March/April 2022

¹⁵⁹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 65), December 2023

¹⁶⁰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 65), December 2023

-탈레반이 다에쉬(DAESH, ISIS)와 협력했다는 혐의로 반대자를 구금하고 투옥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 30일 탈레반은 님루즈(Nimruz)주의 한 주택을 급습하여 다에쉬(ISIS) 협력 혐의로 5명을 체포해 이들을 구타하고 구금했다.¹⁶¹

- 11.6.3 라와다리(Rawadari)는 또한 반정부 무장 단체와 연계된 사람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학대 및 구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게다가, 탈레반 정보부대는 일부 주에서 국민저항전선(NRF) 구성원의 친척과 측근을 구금했다. 일례로, 2023년 8월 24일 바다흐산(Badakhshan)주에서 탈레반은 한 국민저항전선(NRF) 지역 사령관의 아들과 여러 가족 구성원을 구금했다. 이 지역 사령관은 이전에 탈레반에 의해 살해되었다.

-더욱이 바다흐산주에서 사망한 국민저항전선(NRF) 구성원 일부의 장례 기도에 참여한 국민저항전선(NRF) 전투원의 친척 52명이 탈레반에 의해 폭행을 당했으며, 탈레반 구성원들이 장례식을 방해했다. 또한 조문객의 일부가 탈레반에 의해 구금되기도 했다.¹⁶²

- 11.6.4 라와다리(Rawadari)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탈레반은 2023년에 국민저항전선(NRF) 및 그 밖의 반대 단체와 연계되었다는 혐의를 받은 최소 21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언급했다¹⁶³.

- 11.6.5 아프가니스탄재건특별감찰관(Special Inspector General for Afghanistan Reconstruction, SIGAR)은 다양한 소식통에 기반한 2024년 1월 30일자 의회 분기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탈레반은 약 600명의 반대 세력을 ‘최고 수배자’ 명단에 등재하여 ‘사악하고 부패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2023년 12월 1일, 탈레반 국방부 장관 모하마드 야쿵(Mohammad Yaqoob)은 ‘탈레반 지도부가 국가 안보를 훼손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의도로 집회를 조직하는 사람을 사면했으며, 보안군이 여러분을 포용할 준비가 되었음을 인지하라’고 언급하며, 2021년 8월 탈레반 집권 후 선포됐던 일반 사면령을 재차 강조했다. 같은 날, 탈레반은 카불에서 전직 아프간 국방안보군(ANDSF) 관리를 포함한 4명의 국민저항전선(NRF) 구성원을 구금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민저항전선(NRF)은 반정부 단체 구성원 대부분이 전 아프간 정부 및 군 출신이기는 하지만, 이 체포는 국민저항전선(NRF)을 진압하기보다는 전직 아프간 국방안보군(ANDSF) 구성원을 구금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금된 사람과의 관계를 부인했다.”¹⁶⁴

[목차로 돌아가기](#)

12. 그 밖의 탈레반에 대한 '반대'

- 12.1.1 2023년 8월 AP 통신 뉴스 기사는 이전(2023년 1월) 기사¹⁶⁵ 중 하나를 인용하여 “탈레반을 무너뜨릴 만큼 충분한 국내외의 지원을 받는 무장 단체 또는 정치적 반대 세력은 없다. 카불 북쪽의 판지쉬르 계곡에서 탈레반 통치에 저항하는 전투 세력은 폭력적으로 숙청되고 있다”¹⁶⁶ 고 언급했다([국민저항전선\(NRF\)](#) 참조).

¹⁶¹ Rawadari, [Human Rights Situation Report 2023](#) (page 18), March 2024

¹⁶² Rawadari, [Human Rights Situation Report 2023](#) (page 18), March 2024

¹⁶³ Rawadari, [Human Rights Situation Report 2023](#) (pages 13, 14), March 2024

¹⁶⁴ SIGAR, [Quarterly Report to Congress](#) (page 43), 30 January 2024

¹⁶⁵ AP News, [Afghan Taliban Kill 8 in Raids of IS Hideouts in Afghanistan](#), 5 January 2023

¹⁶⁶ AP News, [The Taliban Are Entrenched in Afghanistan after 2 Years of Rule](#), 14 August 2023

- 12.1.2 라히미와 왓킨스는 2024년 1월 탈레반이 "... 국내에 실질적인 도전자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통제를 공고히 하는 데 성공했다"¹⁶⁷고 평가했다.
- 12.1.3 2023년 8월 AP 통신 뉴스 기사는 이전(2023년 7월) 기사¹⁶⁸ 중 하나를 인용하여 "공개 시위는 드물다"¹⁶⁹고 언급했다.
- 12.1.4 자유유럽방송(RFE/RL)은 아자디 라디오(Azadi Radio) 기사¹⁷⁰를 인용하여 2023년 8월에 탈레반이 "샤리아 법은 정당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정당을 금지했다"고 언급했다. 이 기사는 탈레반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2023년 8월 16일 기자 회견에서 "정당은 완전히 금지되며, 우리는 어떠한 정당도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인용했다.¹⁷¹
- 12.1.5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2023년 세계 자유(Freedom in the World) 보고서에서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통치 하의 사실상 일당 국가이다. 정당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일부 정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지도자는 해외 망명지에서 활동한다"¹⁷²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탈레반은 어떠한 반대도 용인하지 않는다"¹⁷³고 덧붙였다.
- 12.1.6 라히미와 왓킨스는 2024년 1월에 "반정부 운동 기반의 강점을 바탕으로, 탈레반은 남은 국가의 자원을 활용하고, 예산은 적지만 광범위한 감시, 치안 활동 및 반대 의견과 정치적 표현의 제한을 통해 정교한 보안 국가를 만들기 시작했다"¹⁷⁴고 평가했다.

[목차로 돌아가기](#)

13. 민족 및 종교 소수자

13.1 민족 및 부족 정체성

- 13.1.1 2024년 2월자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아프가니스탄은 파슈툰족, 타지크족, 하자라족, 우즈베크족, 투르크멘족, 아이마크족 및 발루치족뿐만 아니라 수니파, 시아파, 시크교도, 힌두교도, 바하이교도, 기독교도, 아흐마디아교도, 이스마일파 및 그 밖의 많은 종교, 민족, 언어 공동체로 구성된 다민족, 다언어, 다종교 국가"¹⁷⁵라고 언급했다.
- 13.1.2 잭슨(Jackson)은 2021년 저서에서 "민족 및 부족 정체성의 의미는 복잡하며 오해받는 경우가 많았다"¹⁷⁶고 언급했다. 잭슨(Jackson)은 학자 크리스티안 블로이어(Christian Bleuer)가 "지금까지 기록된 연구 결과들은 특정 집단의 행동이나 그들이 보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행동을,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민족적 고정관념에 따라 일반화한 것"이라고¹⁷⁷ 언급한 점을 인용했다. 또한 잭슨(Jackson)은 "블로이어(Bleuer)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0년 이전 서구 정책 집단의 통념에 의하면 북부의 파슈툰족이 결코 탈레반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민족·종족 등 정체성에 관련된 정치적 이유로 인해 탈레반에 결코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¹⁶⁷ Rahimi H and Watkins A H, [Taliban Rule at 2.5 Years](#), January 2024

¹⁶⁸ AP News, [Taliban ... Break up Afghan Women Protesting Beauty Salon Ban](#), 19 July 2023

¹⁶⁹ AP News, [The Taliban Are Entrenched in Afghanistan after 2 Years of Rule](#), 14 August 2023

¹⁷⁰ Azadi Radio, [The Taliban government banned the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not known

¹⁷¹ RFE/RL, [Taliban Bans Political Parties ... Declaring Them Un-Islamic](#), 17 August 2023

¹⁷²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24](#) (B1), 29 February 2024

¹⁷³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24](#) (B2), 29 February 2024

¹⁷⁴ Rahimi H and Watkins A H, [Taliban Rule at 2.5 Years](#), January 2024

¹⁷⁵ UNHRC,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Afghanistan...](#) (paragraph 50), 22 February 2024

¹⁷⁶ Jackson A, [Negotiating Survival: Civilian-Insurgent Relations...](#) (pages 54 to 55), August 2021

¹⁷⁷ Jackson A, [Negotiating Survival: Civilian-Insurgent Relations...](#) (pages 54 to 55), August 2021

여겼던 우즈베크족 및 타지크족과 함께 파슈툰족은 결국 탈레반에 가담했다”¹⁷⁸고 지적했다.

- 13.1.3 잭슨(Jackson)은 또한 “물론 민족 및 부족 정체성이 아프가니스탄의 행동과 정치적 역학관계를 결정짓는 더 안정적이고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더욱 미묘한 차이가 있는 입장을 주장하며, “민족과 부족이 유일한 정체성의 형태는 아니며, 많은 경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 수도 있다”고 논박했다.¹⁷⁹
- 13.1.4 잭슨(Jackson)은 “... 민족 및 부족 정체성은 실제로 정치 및 경제 생활에서 (항상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운영상의 역할을 한다. 동시에, 아프간인들은 국가 수준의 동일 민족 집단과 갖는 관계보다 자신들이 함께 사는 사람, 즉 친족 및 이웃(또는 카움)과 더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Barfield, 2010, Rubin, 2002). 카움(Qawm)은 본질적으로 사적 네트워크이다. 이는 아프간의 정체성 형태가 기능적이고 상황적이며, 아프간인이 당면한 상황에 맞게 정체성의 다양한 요소를 동원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정적으로, 카움이든 부족이든 민족 집단이든 정체성과 사회 조직의 형태는 상호 관계에 의해 강화된다”¹⁸⁰고 덧붙였다.
- 13.1.5 압바스(Abbas)(2023년 5월)는 “... 아프가니스탄이 소수자 처우와 관련하여 진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보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부 탈레반은 개선의 의지가 있다”¹⁸¹고 결론지었다.

[목차로 돌아가기](#)

13.2 민족 및 부족 인구 통계

- 13.2.1 브리태니커 백과사전(Encyclopaedia Britannica)의 아프가니스탄 인구 및 민족 집단에 관한 항목은 “1979년 부분적 집계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국 인구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수년 간의 전쟁과 인구 이동으로 인해 정확한 민족 집계는 불가능해졌다”¹⁸²고 언급했다.
- 13.2.2 그러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Encyclopaedia Britannica)은 해당 항목에서의 2004년 인구 추정치는 “... 대략적인 근사치로, 파슈툰족이 인구의 약 5분의 2를 차지한다. 파슈툰족의 가장 큰 두 부족 집단은 두라니(Durrānī)와 길자이(Ghilzay)이다. 타지크족은 아프간인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며, 하자라족과 우즈베크족은 각각 거의 10분의 1을 차지한다. 차하르 아이막족, 투르크멘족 및 그 밖의 민족 집단은 각각 인구의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¹⁸³고 언급했다.

¹⁷⁸ Jackson A, [Negotiating Survival: Civilian–Insurgent Relations...](#) (pages 54 to 55), August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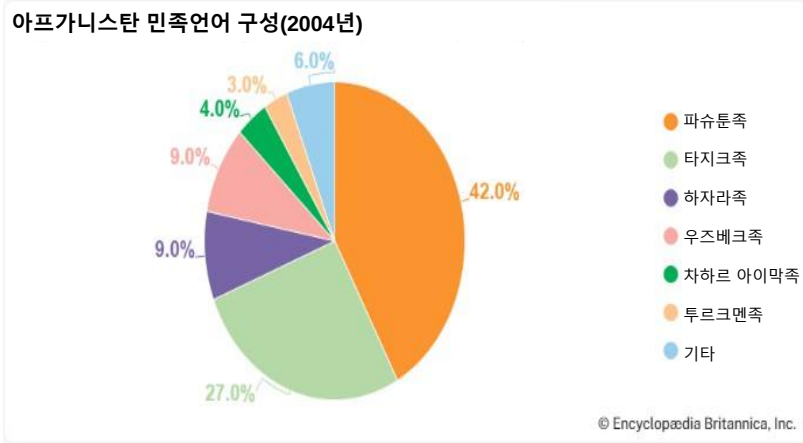
¹⁷⁹ Jackson A, [Negotiating Survival: Civilian–Insurgent Relations...](#) (pages 54 to 55), August 2021

¹⁸⁰ Jackson A, [Negotiating Survival: Civilian–Insurgent Relations...](#) (pages 54 to 55), August 2021

¹⁸¹ Abbas H, [The Return of the Taliban: Afghanistan after the Americans Left](#), (page 118), May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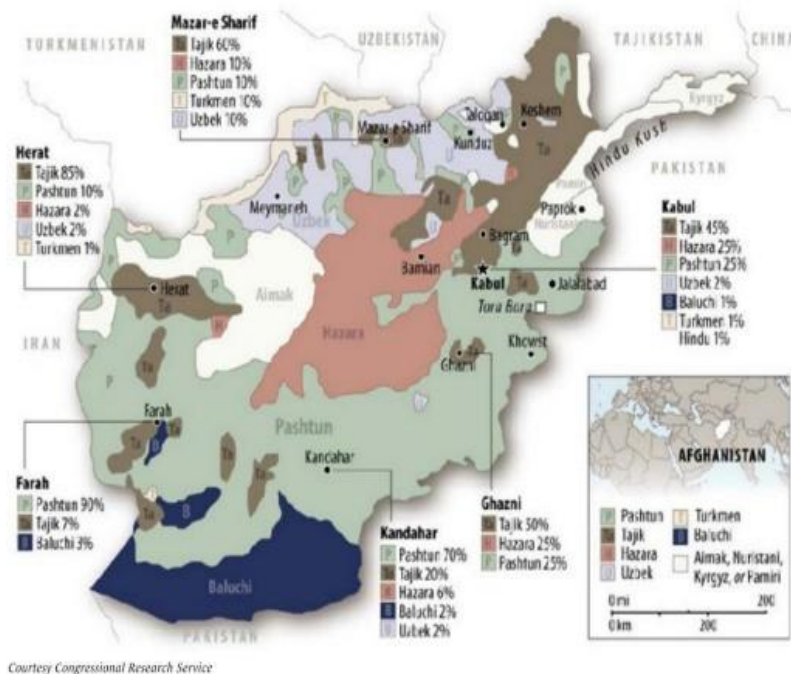
¹⁸² Britannica, [Afghanistan](#) (People - Ethnic Groups), no date

¹⁸³ Britannica, [Afghanistan](#) (People - Ethnic Groups), no date



출처: 브리태니커¹⁸⁴

13.2.3 2014년 논문에서 외교협회(CFR)는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도움으로 아프가니스탄 일부 주요 도시의 민족 구성을 그림으로 나타냈다¹⁸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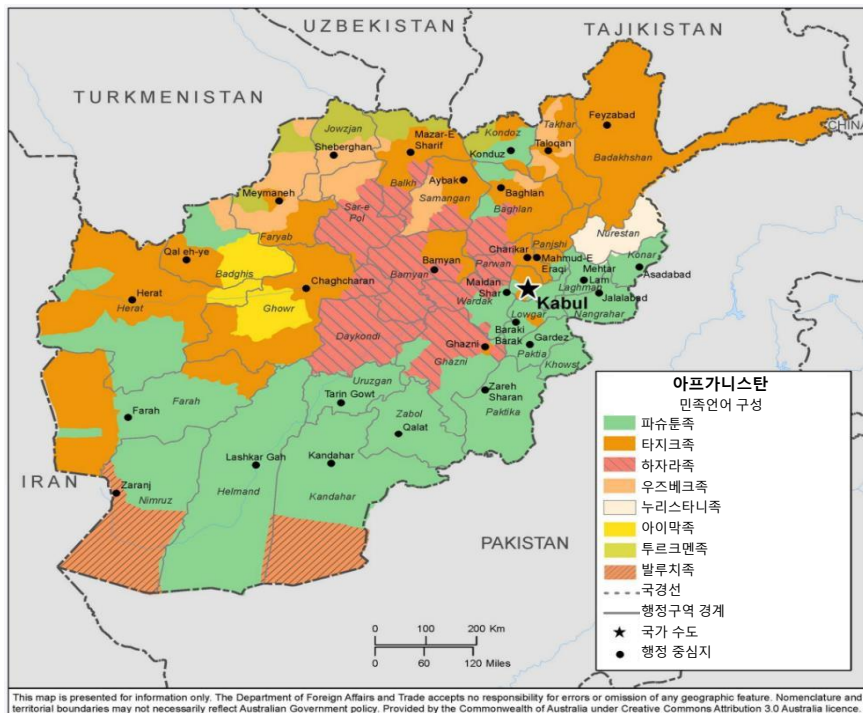
13.2.4 호주 외교통상부(DFAT)의 2022년 1월 주제별 보고서는 “민족 집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부재하나, 2004년 헌법은 파슈툰족, 타지크족, 하자라족, 우즈베크족, 발루치족, 투르크멘족, 누리스타니족, 파미리족, 아랍족, 구자르족, 브라후이족, 키질바시족, 아이막족 및 파샤이족 등 14개 민족 집단을 인정한다”¹⁸⁶고 언급했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 지도¹⁸⁷:

¹⁸⁴ Britannica, [Afghanistan](#) (People - Ethnic Groups), no date

¹⁸⁵ CFR, [The Taliban in Afghanistan](#), 2014

¹⁸⁶ DFAT, [Thematic Report on Political and Security Developments...](#) (paragraph 2.5), January 2022

¹⁸⁷ DFAT, [Thematic Report on Political and Security Developments...](#) (page 1), January 2022



13.2.5 CIA 월드 팩트북(CIA World Factbook)은 2024년 기준 인구를 4,010만 명으로 추정했으며, 국가의 99.7%가 무슬림(수니파 84.7%~89.7%, 시아파 10%~15%)이고 그 밖의 종교는 0.3% 미만이라고 밝혔다¹⁸⁸.

13.2.6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 2024년 연례보고서는 “많은 종교 소수자가 2021년 탈레반의 집권 후 아프가니스탄을 떠났지만, 기독교도, 아흐마디야 무슬림, 힌두교도 및 시크교도의 소규모 공동체가 남아 있다.”¹⁸⁹고 언급했다.

[목차로 돌아가기](#)

13.3 민족/종교 집단에 대한 일반적 처우

13.3.1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2024년 연례보고서는 “탈레반 통치 하에서 힌두교도, 시크교도 및 기독교도는 복장과 외모 등에 대해 심각한 제한에 직면하고 있으며, 종교적 기념일을 공개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시아파 무슬림도 계속해서 괴롭힘, 폭력 및 예배권 침해에 직면했다”¹⁹⁰고 덧붙였다.

13.3.2 같은 보고서는 또한 “2024년 내내 탈레반 관리는 ... 다수의 언론인, 여성 인권 활동가 및 종교적 소수자를 구금했다”¹⁹¹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다수'에 몇 명이 포함되었는지 수치화하지 않았으며,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도 밝히지 않았고 구금의 빈도, 기간 또는 기타 상황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13.3.3 2024년 4월 발표된 미국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는 “2023년 발생한 중대한 인권 문제에는 ... 민족, 종교 소수집단 구성원(하자라족, 시크교, 시아파, 살라피, 아흐마디, 힌두교 및 기독교 집단)을 표적으로 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을 포함한 범죄 등이 있었다...”¹⁹²고 언급했다.

¹⁸⁸ CIA, [World Factbook](#) (People and society), last updated 22 May 2024

¹⁸⁹ USCIRF, [2024 Annual Report](#) (page 14), 5 May 2024

¹⁹⁰ USCIRF, [2024 Annual Report](#) (page 14), 5 May 2024

¹⁹¹ USCIRF, [2024 Annual Report](#) (page 14), 5 May 2024

¹⁹² USSD, [2023 Country Report on Human Rights Practices: Afghanistan](#), 22 April 2024

- 13.3.4 라히미(Rahimi)는 2023년 3월 알자지라 기사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민족 및 종교 소수자에 대한 공개적인 화해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IEA)은 이들을 권력에서 배제했고,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의 공격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¹⁹³고 밝혔다. 이 기사는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는 아프가니스탄에서 ... 여전히 종교 소수자를 표적으로 삼는 가장 심각한 내부 위협”¹⁹⁴이라고 평가했다.
- 13.3.5 국제앰네스티(AI)의 2023년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는 “하자라족, 우즈베크족, 투르크멘족 및 타지크족 출신자들은 점차 소외되고 가정 및 토지에서 강제 퇴거 당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발루치족 공동체 구성원은 구금되고 강제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관측했다.¹⁹⁵

[목차로 돌아가기](#)

13.4 비실천 무슬림

- 13.4.1 네덜란드 외교부(MoFA)는 다양한 출처에 기반을 둔 2022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기간을 다루는 2023년 6월 아프가니스탄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이슬람 토후국에서는 종교 실천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통제가 있었다. 경찰과 권선징악부(MPVV)는 사람이 기도하는지 확인했다. 예를 들어, 기도 시간에는 거리와 상점에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협박을 받았다. 또한 사람들은 서로가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고 있는지 감시했다. 신앙을 실천하지 않는 무슬림들은 신앙을 실천하는 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신앙 활동을 했다.”¹⁹⁶
- 13.4.2 2024년 7월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 보고서는 “남성들은 모스크에서 회중 기도를 하도록 지시받았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 사업 정지 및 신체형 등 심각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¹⁹⁷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2022년 및 2023년에 모스크에서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레반 권선징악 지방지부(DPVPV) 관리에게 구타당하거나 구금된 사람의 사례를 제시했다¹⁹⁸.
- 13.4.3 2025년 2월 21일 이후의 아프가니스탄 정세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라마단 기간 동안 일부 주에서는 모스크 기도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사업장을 계속 운영한 개인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거나 가혹 행위를 당했다. 4월 20일 카불에서 탈레반 정부의 권선징악부(MPVV) 장관인 모하마드 칼릴 하나피(Mohammad Khalil Hanafi)는 조사관들에게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사람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라고 말했다”¹⁹⁹고 밝혔다.
- 13.4.4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¹⁹³ Al Jazeera, [The Taliban in Government: A Grim New Reality Is Settling In](#), 23 March 2023

¹⁹⁴ Al Jazeera, [The Taliban in Government: A Grim New Reality Is Settling In](#), 23 March 2023

¹⁹⁵ AI, ‘[The State of the World’s Human Rights, Afghanistan 2023](#)’, 24 April 2024

¹⁹⁶ Netherlands MoFA, [General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report Afghanistan](#) (page 86), June 2023

¹⁹⁷ UNAMA, [De Facto Authorities’ Moral Oversight in Afghanistan ...](#) (page 12), July 2024

¹⁹⁸ UNAMA, [De Facto Authorities’ Moral Oversight in Afghanistan ...](#) (pages 12 to 13), July 2024

¹⁹⁹ UN General Assembly, [The situation in Afghanistan ...](#) (paragraph 39), 11 June 2025

“2025년 3월 1일부터 29일까지 권선징악부(MPVVPV) 조사관이 라마단 기간과 관련된 특정 조치를 시행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감시 및 단속 수준은 주마다 달랐다. 조사관은 개별적으로 또는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대중에게 의무적인 회중 기도, 특히 라마단 야간 기도(타라위)에 참석할 것을 정기적으로 상기시켰다. 조사관은 지역 종교 지도자에게 기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사업체에는 기도 시간 동안 사업장을 폐쇄할 것과, 음식점에는 금식 기간 동안 음식을 조리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일부의 경우, 모스크 내 의무 기도에 참석하지 않거나 기도 시간 동안 사업을 계속 운영한 사람이 검사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구금되었고, 일부는 가혹 행위를 당했다.”²⁰⁰

[목차로 돌아가기](#)

13.5 시아파 및 하자라족

- 13.5.1 산호세 주립대학교 인권연구소(San Jose State University Human Rights Institute, SJSU HRI)의 2023년 2월 기사는 “하자라족은 주로 아프가니스탄 중부 산악 지역(하자라자트)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이다. 인구 추정치에 따르면 하자라족은 아프간 인구의 약 10~20%를 구성하지만, 현재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찾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하자라족은 시아파 무슬림으로, 페르시아어의 두 방언인 하자라기어와 다리어를 사용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종교 소수자”²⁰¹라고 설명했다.
- 13.5.2 호주 외교통상부(DFAT)의 2022년 1월 주제별 보고서는 “하자라족을 제외하고, 탈레반 내 파슈툰족 출신 구성원이 다수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의 다른 민족 집단이 민족성을 이유로 차별이나 폭력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²⁰²고 결론지었다.
- 13.5.3 산호세 주립대학교 인권연구소(SJSU HRI)의 2023년 2월 기사는 또한 “오늘날 하자라 공동체가 직면한 임의 체포, 실종, 고용 및 교육 상실, 인도적 지원 거부 및 강제 이주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²⁰³고 주장했다.
- 13.5.4 압바스(Abbas)(2023년 5월)에 따르면, 하자라족은 “... 부족적 및 민족적 이유뿐만 아니라 반시아파 종파주의 때문에도 특별히 표적이 되고”²⁰⁴ 있으며, “탈레반 창설 이후 지속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인권 침해의 피해자였다.”²⁰⁵ 압바스(Abbas)는 “과거에 극심한 집단 학살적 증오를 가졌던 오늘날의 탈레반이 개혁할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²⁰⁶고 의견을 밝혔다.
- 13.5.5 그러나 압바스(Abbas)는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한(2022년) 한 자선사업가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는 시아파의 무하람(Muharram) 추모 기간 동안 “... 카불 거리의 거의 모든 기둥마다 애도의 날을 상징하는 검은 깃발이 게양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일부 시아파 상징물의 공개적 전시는 큰 방해 없이 허용되었다...”²⁰⁷고 말했다. 또한 그는 “... 마자르이사리프(Mazar-e-Sharif)의 주요 아슈라(Ashura) 행렬은 중단되었다 – 하지만 흥미로운 이유에서였다”라고 덧붙였다.

²⁰⁰ UNAMA,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Enforcement and Impact of the ...](#) (page 9), 10 April 2025

²⁰¹ SJSU HRI, [Human Rights Conditions for Hazaras in AFG Under the Taliban](#), 7 February 2023

²⁰² DFAT, [Thematic Report on Political and Security Developments...](#) (paragraph 3.6), January 2022

²⁰³ SJSU HRI, [Human Rights Conditions for Hazaras in AFG Under the Taliban](#), 7 February 2023

²⁰⁴ Abbas H, [The Return of the Taliban: Afghanistan after the Americans Left](#) (page 113), May 2023

²⁰⁵ Abbas H, [The Return of the Taliban: Afghanistan after the Americans Left](#) (page 113), May 2023

²⁰⁶ Abbas H, [The Return of the Taliban: Afghanistan after the Americans Left](#) (page 113), May 2023

²⁰⁷ Abbas H, [The Return of the Taliban: Afghanistan after the Americans Left](#), (page 117), May 2023

탈레반은 그곳의 시아파에게 대규모 행렬이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의 주목을 끌 것이라고 말했고, 탈레반이 더 나은 치안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 전역의 공동체를 4개의 소규모 집단으로 나누라고 조언했다. 자선사업가는 이러한 행렬이 완전히 금지되었거나 탈레반의 표적이 되었던 시절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²⁰⁸고 말했다.

- 13.5.6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하자라족의 시아파 무슬림에 대해 자행된 최소 7건의 공격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3년 첫 9개월과 비교하여 우려스러운 증가”²⁰⁹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P)가 자신들이 대부분의 공격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²¹⁰
- 13.5.7 같은 보고서는 2023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헤라트(Herat)에서 발생한 3건의 총격 사건으로 4명의 시아파 우레마 평의회(Shia Ulema Council) 위원을 포함한 9명이 사망했다고 언급했다. 해당 사건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응하여 수백 명의 하자라족이 헤라트시에서 평화 시위를 벌이며 정의와 안전을 요구했다. 탈레반 정부의 내무부는 헤라트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에게 조의를 표했다. 탈레반 정부의 주지사는 하자라 공동체와 만나 조사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보고관은 헤라트 사건과 관련하여 이후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했다²¹¹.
- 13.5.8 법학도들이 법치주의 관련 사건들을 보고하는 매체인 주리스트(JURIST)의 2024년 5월 보고서는 “탈레반의 재부상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하자라족과 시아파는 폭력, 조직적 차별 및 배제에 직면했다. 하자라족에 대한 표적 공격이 강화되었고 많은 공격 가해자들이 기소되지 않는다”²¹²고 주장했다.

[목차로 돌아가기](#)

13.6 시 크교도 및 힌두교도

- 13.6.1 특별보고관은 2024년 2월 보고서에서 “안보 및 경제 상황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에 거주하는 시크교 및 힌두교 가정의 수가 더욱 감소했다. 공동체 대표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약 50개의 시크교 및 힌두교 가정이 남아 있다고 한다”²¹³고 우려를 표명했다.
- 13.6.2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2024년 연례보고서는 “2021년에 아프가니스탄의 힌두교도는 약 50명이었고, 2023년에 시크교도는 ... 8명이었다”²¹⁴고 언급했다.
- 13.6.3 타임스 오브 인디아(Times of India)는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보도에서 카불의 한 시크교 거주자로부터 아프가니스탄에 약 50명의 시크교도와 힌두교도가 있으며, 약 24명이 카불에 거주하고 그 중 절반이 시크교도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215 216}. 다른 시크교도와 힌두교도는 잘랄라바드(Jalalabad), 칸다하르(Kandhar) 및 가즈니(Ghazni)와 같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²¹⁷. 탈레반은 카불의 9개 구르드와라와 2개 사원에 보안 조치를 제공했지만, 주요하고 유일하게 기능하는 구르드와라는 카불의 구르드와라 카르테 파르완(Gurdwara Karte Parwan)이었다^{218 219}. 탈레반의

²⁰⁸ Abbas H, [The Return of the Taliban: Afghanistan after the Americans Left](#), (page 117), May 2023

²⁰⁹ UNHRC,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Afghanistan...](#) (paragraph 54), 22 February 2024

²¹⁰ UNHRC,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Afghanistan...](#) (paragraph 55), 22 February 2024

²¹¹ UNHRC,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Afghanistan...](#) (paragraph 57), 22 February 2024

²¹² JURIST, [Hazaras and Shias: Violenc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Under the Taliban](#), May 2024

²¹³ UNHRC,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Afghanistan...](#) (paragraph 59), 22 February 2024

²¹⁴ USCIRF, [2024 Annual Report](#), (page 14), 5 May 2024

²¹⁵ Times of India, [Braving threats, Afghan Sikhs and Hindus uphold daily...](#), 17 December 2023

²¹⁶ Times of India, [Afghanistan: Afghan, Pak Sikhs to celebrate 'Parkash Purb'](#), 5 January 2024

²¹⁷ Times of India, [Braving threats, Afghan Sikhs and Hindus uphold daily...](#), 17 December 2023

²¹⁸ Times of India, [Braving threats, Afghan Sikhs and Hindus uphold daily...](#), 17 December 2023

²¹⁹ Times of India, [Afghanistan: Afghan, Pak Sikhs to celebrate 'Parkash Purb'](#), 5 January 2024

안전 보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시크교도와 힌두교도는 여전히 불안감을 느껴 가족을 인도나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시크교 거주자가 밝혔다²²⁰.

13.6.4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2023년 10월 "... 탈레반이 힌두교 및 시크교 공동체의 대표를 카불의 탈레반 시의회에 임명하는 드문 조치를 취했다"²²¹고 언급했다.

13.6.5 2024년 4월, 인도 신문인 더 힌두(The Hindu)는 탈레반이 과거 분쟁 중 군별이 압류한 아프간 힌두교도와 시크교도의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레반 법무부 대변인 하페즈 바라카툴라 라술리(Hafez Barakatullah Rasuli)는 더 힌두(The Hindu)에 탈레반이 이러한 소수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산을 회복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레반 정치 부문 책임자 수하일 샤힌(Suhail Shaheen)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전 아프간의 의원 나렌더 싱 칼사(Narender Singh Khalsa)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탈레반의 보장을 받고 캐나다에서 귀환했다. 라술리(Rasuli)에 따르면 탈레반의 약속은 종교 소수자의 권리를 상세히 규정하는 이슬람 하나피 법학리와 일치한다²²².

13.6.6 2022년 5월 미국의 소리(VOA) 기사는 탈레반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여

시크교도와 힌두교도는 "... 완전히 자유롭게 안전하게 종교를 실천하고 있다"²²³고 밝혔다.

[목차로 돌아가기](#)

13.7 기독교도

13.7.1 2022년 5월 미국의 소리(VOA) 기사는 "아프가니스탄 내 기독교 상황 관련 공식 데이터는 없지만,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국제기독교관심회(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를 인용하여 아프가니스탄에 1만 명에서 1만 2,000명의 기독교 개종자가 있다고 보고했다"²²⁴고 밝혔다. 기독교 인권 단체인 오픈 도어스(Open Doors)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세계 감시 목록(World Watch List, WWL) 2024(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2024년 1월에 발표되었으며²²⁵, [WWL 방법론](#)²²⁶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있는 기독교도의 수를 '수천 명'²²⁷으로 추정했으며, "거의 모든 아프간 기독교도는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²²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의 소리(VOA) 기사는 "아프가니스탄에는 기독교도가 없다. 기독교 소수자는 알려지거나 등록된 적이 없다"²²⁹는 탈레반 대변인의 말을 인용했다.

13.7.2 또한 미국의 소리(VOA) 기사는 탈레반 대변인이 "기독교로 개종한 아프간인을 발견하면 탈레반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²³⁰고 언급했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을 버리는 것은 항상 배교로 간주되어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²³¹고 의견을 밝혔다.

²²⁰ Times of India, [Braving threats, Afghan Sikhs and Hindus uphold daily...](#), 17 December 2023

²²¹ UNHRC,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Afghanistan...](#) (paragraph 53), 22 February 2024

²²² The Hindu, [Taliban is 'particularly committed' to protect rights of Hindus and Sikhs...](#), 16 April 2024

²²³ VOA, [Taliban Say No Christians Live in Afghanistan, US Groups Concerned](#), 16 May 2022

²²⁴ VOA, [Taliban Say No Christians Live in Afghanistan, US Groups Concerned](#), 16 May 2022

²²⁵ Open Doors, [Afghanistan Full Country Dossier](#) (page 4), January 2024

²²⁶ Open Doors, ['Complete World Watch List Methodology'](#), October 2023

²²⁷ Open Doors, [Afghanistan Full Country Dossier](#) (page 11), January 2024

²²⁸ Open Doors, [Afghanistan Full Country Dossier](#) (pages 6, 31), January 2024

²²⁹ VOA, [Taliban Say No Christians Live in Afghanistan, US Groups Concerned](#), 16 May 2022

²³⁰ VOA, [Taliban Say No Christians Live in Afghanistan, US Groups Concerned](#), 16 May 2022

²³¹ VOA, [Taliban Say No Christians Live in Afghanistan, US Groups Concerned](#), 16 May 2022

13.7.3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2024년 연례보고서는 “이전에는 탈레반이 국내에 기독교도가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1만 명 미만의 기독교도가 남아 있었다”²³²고 언급했다.

13.7.4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2024년 연례보고서는 “탈레반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아프간인을 ‘배교자’로 간주하고 사형에 처한다”²³³고 보고했으며, “탈레반이 2023년 9월에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혐의로 비정부기구(NGO) 직원 18명을 구금했다”²³⁴고 주장했다.

13.7.5 오픈 도어스(Open Doors) 세계 감시 목록(WWL) 2024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아프가니스탄의 [박해 수준²³⁵]에 대한 전반적인 점수는 여전히 매우 높다. (물론 모든 기독교도가 탈레반 집권 하에서 자신의 신앙을 더욱 신중하게 숨기겠지만) 이는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기독교도가 도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회 생활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가정 교회모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박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 국가 전문가가 말한 것처럼, '교회의 성장에 대해 추측할 방법이 없다. 일반적인 지표가 없다. ... 지하 교회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²³⁶

13.7.6 같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세계 감시 목록(WWL) 2024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박해 패턴은 다음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도에 대한 압박은 극심한 수준이며, [세계 감시 목록\(WWL\) 2023](#)과 비교할 때 아주 살짝 높은 평균 점수(15.9점)를 보였다. 기독교 개종자는 여전히 탈레반의 모든 규칙을 준수하고 숨어 지내야 했다.
- 가족, 사적 및 공동체 영역에서의 극심한 압박 수치는 엄격한 이슬람 국가에서 전형적인 현상이지만, 국가 영역에서의 극심한 압박과 교회 영역에서의 거의 최고점에 가까운 수치는 i) 엄격하게 해석된 이슬람 규칙과 기본적으로 부족 중심적인 사회에 의존하는 정부, ii) 국가 내에서 어떤 형태의 교회도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탈레반이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에 한 모든 약속이 사라졌다.
- 폭력 점수는 4.6점으로 유지되었는데, [세계 감시 목록\(WWL\) 2022](#)에 기록된 정도와 유사한 수준의 폭력을 확인할 구체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실제로 더 높은 수준의 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소수의 보고에 따르면, 탈레반이 기독교도를 직접 살해하는 것보다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의심되는 기독교도를 체포하고 심문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⁷

[목차로 돌아가기](#)

14. 여성과 여아

14.1 여성과 여아에 대한 일반적 상황

²³² USCIRF, [2024 Annual Report](#) (page 14), 5 May 2024

²³³ USCIRF, [2024 Annual Report](#) (page 14), 5 May 2024

²³⁴ USCIRF, [2024 Annual Report](#) (page 14), 5 May 2024

²³⁵ Open Doors, [‘Complete World Watch List Methodology’](#), October 2023

²³⁶ Open Doors, [Afghanistan Full Country Dossier](#) (page 32), January 2024

²³⁷ Open Doors, [Afghanistan Full Country Dossier](#) (page 37), January 2024

14.1.1 유럽연합망명청(EUAA) 국가별 포커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집권 후 탈레반 당국은 샤리아 틀 내에서 여성과 여아의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표명했다. 2021년 8월 15일 이후 탈레반이 발표한 여러 칙령, 법령 및 선언은 여성과 여아의 이동, 표현 및 행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교육, 고용, 의료, 정의 및 사회 보호에 대한 접근을 점점 더 제한해왔다. 실제로 여성과 여아는 가정에 갇혀 있다...”²³⁸

14.1.2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현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과 여성 및 여아에 대한 차별에 관한 실무그룹은 2023년 6월 보고서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여성과 여아가 겪고 있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차별'²³⁹을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 세계 어느 곳에서도 아프가니스탄만큼 여성과 여아의 권리에 대해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포괄적인 공격이 있었던 적이 없다. 삶의 모든 측면이 도덕이라는 미명 아래 그리고 종교의 도구화를 통해 제한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 기록된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환경, 공포 분위기 및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의 부재는 여성과 여아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개인과 단체가 이들을 옹호하는 것을 제한하며, 더 큰 학대를 조장한다.”²⁴⁰

14.1.3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또한 “탈레반의 차별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정책과 가혹한 집행 방법으로 인한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여아의 기본권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침해 양상이 성별 기반 박해 및 성차별 체제를 구축한다”²⁴¹고 의견을 밝혔다.

14.1.4 라와다리(Rawadari)는 2023년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은 이후, 탈레반은 여성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왔다. 지난 3년 가까이 탈레반은 교육권, 취업권 및 공적 업무 참여권, 이동의 자유권 등 아프간 여성과 여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박탈했으며, 국제 인권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법적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²⁴²

14.1.5 2023년 6월까지 탈레반이 발표한 여성과 여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법령 및 지침 목록은 [유럽연합망명청\(EUAA\) 국가별 포커스](#)(부록 3, 160쪽)를 참조한다.

14.1.6 유럽연합망명청(EUAA) 국가별 포커스에 따르면,

“공표된 칙령과 지침의 집행은 특히 지방에서 일관성이 없었다. 이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과 두려움의 분위기로 이어졌고, 국민들은 저마다의 이해 수준에 따라 위법행위를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탈레반 관리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기 검열을 한다.”

²³⁸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 71), December 2023

²³⁹ UNHRC, [Situation of women and girls in Afghanistan...](#) (page 1), 15 June 2023

²⁴⁰ UNHRC, [Situation of women and girls in Afghanistan...](#) (paragraph 97), 15 June 2023

²⁴¹ UNHRC, [Situation of women and girls in Afghanistan...](#) (paragraph 97), 15 June 2023

²⁴² Rawadari, [Human Rights Situation Report 2023](#) (page 23), March 2024

실제로 이전 정부 시절의 상황에 비해 여성의 정치, 경제 및 사회 생활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탈레반 당국 하에서 여성의 권리 침해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농촌 여성에게 교육과 일자리 기회는 (단순한 농장 일 외에는) 항상 제한적이었지만, 탈레반 집권 이후 경제 악화(예를 들어, 식량 배급을 줄이고 노동량을 늘리고 의료 지원조차 회피하도록 강제)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²⁴³

[목차로 돌아가기](#)

14.2 여행, '마흐람(mahram)'(보호자) 규칙

14.2.1 2024년 1월, 자유유럽방송(RFE/RL)은 “2021년 말 탈레반은 72Km 이상 이동하는 여성은 가까운 남성 친족이 동반하지 않는 한 교통편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²⁴⁴고 언급했다. 이 기사는 이러한 규칙이 “여성이 남성 보호자[마흐람(mahram)], 즉 남편이나 아버지, 형제, 삼촌과 같은 가까운 친족 없이 집을 떠나는 것을 금지한다”²⁴⁵고 설명했다. “또한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망인을 포함한 미혼 여성과 동반자 없는 여성은 필연적으로 집에 갇혀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한다”²⁴⁶고 밝혔다.

14.2.2 유럽연합명명청(EUAA) 국가별 포커스에 따르면,

-남성 가족 구성원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일부 여성과 여아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결여 및 억압적 환경을 타개할 수단의 부재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미망인의 상황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했으며, 특히 마흐람(mahram) 동반을 요하는 강화된 요건으로 인해 아들이 없는 미망인의 경우 더욱 그러했다.

-여성이 가장인 가구도 마흐람(mahram)의 부재와 여성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여성 직원의 부족으로 인해 인도적 지원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²⁴⁷

[목차로 돌아가기](#)

14.3 여성과 여아에 대한 복장 규정

14.3.1 2022년 5월, 탈레반은 모든 여성에게 '샤리아 히잡'을 준수하고, 가급적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또는 차도르(몸과 얼굴을 덮는 혈령한 검은 옷)를 착용하도록 명령했으며, 남성 친족에게 금지 조치를 집행할 책임을 지우거나 처벌을 하도록 했다^{248 249}.

14.3.2 유럽연합명명청(EUAA) 국가별 포커스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성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문소에서 괴롭힘이나 구타를 당하거나, 마흐람(mahram)을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언론인 알리 라티피(Ali Latifi)는 도시에서 일부 여성이 검은 니카이나 파란 차다리를 착용하라는 탈레반의 지시를 무시하고 예전처럼 옷을 입는다(예: 화려한 의상, 화장, 선글라스 및 기타 개인 스타일과 패션 표현)고 한다.

²⁴³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s 72, 73), December 2023

²⁴⁴ RFE/RL, [“All Doors Are Closed”](#) ..., 31 January 2024

²⁴⁵ RFE/RL, [“All Doors Are Closed”](#) ..., 31 January 2024

²⁴⁶ RFE/RL, [“All Doors Are Closed”](#) ..., 31 January 2024

²⁴⁷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s 72, 73), December 2023

²⁴⁸ AAN, [“We need to breathe too”: Women across Afghanistan navigate the Taleban...](#), 1 June 2022

²⁴⁹ BBC News, [Afghanistan face veil decree: “It feels like being a woman is a crime”](#), 15 May 2022

그러나 라티피(Latifi)는 또한 여성이 예를 들어 정부 건물에 가야 할 때 탈레반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복장을 착용하고 남성 보호자를 동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²⁵⁰

- 14.3.3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은 2023년 12월 31일 권선징악 지방지부(DPVPV) 관리가 탈레반 정부 경찰과 협력하여 “... 주로 하자라족이 거주하는 서부 카불/다쉬테 바르치(Dasht e-Barchi) 지역에서 여성과 여아를 체포했으며, 일부는 타지크족과 판지쉬르 공동체가 주로 거주하는 카이르 카나(Khair Khana)에서도 체포되었다. 현재까지 구금된 여성의 대부분은 구금된 후 몇 시간 뒤, 마흐람(mahram)이 여성 친족이 향후 hijab 법령을 준수할 것이라는 보증서에 서명하면 석방되었다”²⁵¹고 보고했다.
- 14.3.4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은 “가혹 행위, 장기 구금, 비공개 구금, 석방을 대가로 한 금전 지불 요구 사례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²⁵²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수반하는지, 어떻게 달성되거나 검증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의혹이 있는지(각 의혹의 수) 또는 접수된 의혹에서 언급한 기간은 언제인지에 관한 추가 세부 사항은 제공되지 않았다.
- 14.3.5 유엔 전문가는 2024년 1월 초 이후 탈레반의 여성 복장 규정 위반 혐의로 ‘다수’의 여성과 여아가 임의 구금 및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보고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작전은 처음에 주로 하자라족 거주 지역인 서부 카불에서 시작되었지만, 주로 타지크족 거주 지역인 도시의 다른 지역과 바미얀(Bamiyan), 바글란(Baghlan), 발크, 다이쿤디(Daykundi) 및 쿤두즈(Kunduz)를 포함한 다른 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쇼핑 센터, 학교 및 거리 시장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체포와 구금이 이루어졌다.
- 여성들과 여아는 강제로 경찰 차량에 태워졌고 ‘비정상적인 hijab’을 착용했다는 혐의로 외부와 연락이 두절된 채 구금되었으며, 탈레반은 이들이 지시에 반하여 화려했고 짝 끼는 옷을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²⁵³
- 14.3.6 유엔 전문가에 따르면, “... 여성과 여아의 석방은 남성 가족 구성원과 공동체 원로가 향후 규정된 복장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보증에 달려 있었다. 이러한 보증은 서면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 일부 여성과 여아는 몇 시간 후 석방되었지만, 다른 사람은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구금되었으며, 투명성과 사법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금되어 있는지 여전히 알 수 없고, 피구금자들은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⁵⁴

[목차로 돌아가기](#)

14.4 교육 접근성

- 14.4.1 2024년 1월, 국제위기그룹(ICG)은 2024년 1월을 지난 2년과 비교하면서 “교육부는 여전히 대규모로 여아 초등교육을 제공하는 유일한 기관이고, 등록률이 전체적으로(여아의 경우, 중등교육 금지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학급의 아프간 여아 비율이 36%에서 60%로 증가하면서) 증가했다”²⁵⁵고 밝혔다.

²⁵⁰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 73), December 2023

²⁵¹ UNAMA, [Human Rights Situation in Afghanistan: October – December...](#) (page 3), January 2024

²⁵² UNAMA, [Human Rights Situation in Afghanistan: October – December...](#) (page 3), January 2024

²⁵³ OHCHR, [Afghanistan: Taliban's arbitrary arrests and detention of women and...](#), 2 February 2024

²⁵⁴ OHCHR, [Afghanistan: Taliban's arbitrary arrests and detention of women and...](#), 2 February 2024

²⁵⁵ ICG, [Toward a Self-sufficient Afghanistan](#), 30 January 2024

또한 국제위기그룹(ICG)은 탈레반이 “2022년에 부과한 여아의 고등학교 및 대학 출석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기를 거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업을 계속하려는 여학생에게 선택권이 거의 없다”²⁵⁶고 언급했다.

14.4.2 2022년 4월, 미국평화연구소(USIP)는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 ... 로 인해 탈레반 세력과 아프가니스탄 전역의 특정 정부 기관이 샤리아에 대한 개인적 해석에 기반하여 자체적인 지역 정책을 만들 수 있다”²⁵⁷고 주장하는 기사를 발표했다.

14.4.3 [밀스\(Mills\)의 탈레반 통치에 관한 2024년 3월 논문](#)에는 탈레반의 여아 교육 정책과 그 정책으로 인한 내부 긴장에 대해 다룬1페이지 분량의 개요가 포함되어 있다²⁵⁸.

[목차로 돌아가기](#)

15. 성소수자(LGBTI)

15.1.1 2023년 사건을 다루는 세계 자유(Freedom in the World) 2024 보고서에서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성소수자는 정치 참여에서 배제되어 있다. 탈레반은 이전 공화국의 동성애 관계 범죄화를 지지하며 성소수자 권리를 거부한다”²⁵⁹고 밝혔다.

15.1.2 네덜란드 외교부(MFA) 보고서는 다양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탈레반이 집권한 이후, 이전에 다소 관용적이었던 도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다시 더 제한적으로 변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현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리처드 베넷(Richard Bennett)은 2023년 2월 9일 보고서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 집권하기 전부터 이미 아프간 형법(Afghan Penal Code)에 따라 동성 간 성행위가 범죄화되어 있었다. 이후 탈레반 당국은 샤리아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동성 간 성관계의 범죄화를 공고히 했다... 동성애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채찍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탈레반 당국이 동성애자에게 사형을 선고했음을 시사하는 정보는 없다.”²⁶⁰

15.1.3 같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탈레반 집권 이후, 해외 비정부기구(NGO)들은 성소수자 옹호에 초점을 맞춘 여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내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 탈레반의 대표자로 여겨지는 사람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당하고 있다. 탈레반의 대표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경우, 정확한 지위는 일반적으로 분명하지 않았다(경찰, 군, 지역 대표자, 탈레반과 연계된 무장 단체). 아프간 성소수자가 탈출하는 것을 돕기도 하는 이러한 비정부기구(NGO)들은 아프간 성소수자들로부터 위협, 가택 수색, 신체적 및 성적 폭력, 구금 및 투옥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레인보우 레일로드(Rainbow Railroad)는 아프간 성소수자의 실종에 관해 보고할 때, 이들이 탈레반에 의해 실종되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숨어서 연락을 끊기로 선택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²⁵⁶ ICG, [Toward a Self-sufficient Afghanistan](#), 30 January 2024

²⁵⁷ USIP, [Taliban's Ban on Girls' Education in Afghanistan](#) (page 27), 1 April 2022

²⁵⁸ ISW, [Taliban Governance in Afghanistan](#) (page 15), March 2024

²⁵⁹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24'](#) (B4), 29 February 2024

²⁶⁰ Netherlands MFA, [General Country of Origin Report Afghanistan](#) (page 97), June 2023

-탈레반이 집권한 후,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성소수자는 숨어 지내거나 옷차림과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느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소수자가 문제를 피하기 위해 단순히 자신의 성적 지향을 드러내지 않는 전략을 선택한다. 대다수가 이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하거나 성소수자 권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²⁶¹

15.1.4 같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고 위험에 처한 아프간 성소수자가 다른 나라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캐나다 비정부기구(NGO)인 레인보우 레일로드(Rainbow Railroad)의 대표자는 2023년 2월 웨비나에서 아프간 성소수자들로부터 1,700건의 도움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 중 4명은 탈레반 당국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받았다.

레인보우 레일로드(Rainbow Railroad)는 아프간 성소수자 300명의 캐나다 재정착 신청을 지원했다. 12건 이상의 사건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탈레반 당국의 어느 기관이 관련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동성애 행위가 형사 범죄로 처벌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 관련자는 체포되어 채찍형을 받았지만, 사형도 가능하다고 한다. 탈레반은 잠재적 반대자와 샤리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감시한다고 한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성소수자가 동일한 범죄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이미 너무 가혹하여 더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²⁶²

15.1.5 게이 남성의 상황과 관련하여 같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프간 사회에서는 개인이 특정한 성적 지향을 가질 수 있거나 공통된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성과 성행위를 하는 대다수의 남성은 이러한 생각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동성과 삶을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실천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 이는 전통적인 젠더 규범, 사회적 규범, 부족 및 기타 명예 규범에 반한다. 개인의 동성애 성향이 알려지면, 배제, 차별 및 폭력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있다.”²⁶³

15.1.6 레즈비언의 상황과 관련하여 네덜란드 외교부(MFA)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전의 출신국 보고서(2022년 3월 발표) 작성 이후, 레즈비언 여성에 대한 사회와 탈레반의 태도가 변했다는 징후는 없다. 혼외 성관계를 가진 여성은 도덕적 범죄로 처벌받거나 명예 살인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있다. 성소수자 권리와 위기에 처한 아프간 성소수자의 재정착을 돕는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아웃라이트 인터내셔널(Outright International)은 부분적으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탈레반 당국이 레즈비언 여성에게 자행하는 폭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²⁶¹ Netherlands MFA, [‘General Country of Origin Report Afghanistan’](#) (page 99, 100), June 2023

²⁶² Netherlands MFA, [‘General Country of Origin Report Afghanistan’](#) (page 98), June 2023

²⁶³ Netherlands MFA, [‘General Country of Origin Report Afghanistan’](#) (page 98), June 2023

일반적으로 성소수자는 주로 가정 내에서 압력, 차별 및 폭력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레즈비언 성향을 가진 경우 가족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이전의 언론 기사에서도 확인되었다.²⁶⁴([여성과 여아](#) 참조)

15.1.7 양성애자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는 “아프가니스탄의 양성애자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전무하다. 많은 동성애자가 실제로는 양성애자로 살아간다. 구술 증거에 따르면, 레즈비언과 게이 남성 모두 진정한 성적 지향을 숨기고 결혼에 대한 문화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성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느낀다.”²⁶⁵고 기술했다.

15.1.8 트랜스젠더와 관련하여 네덜란드 외교부(MFA)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탈레반이 집권하기 전에는 카불과 마자리샤리프(Mazar-i-Sharif)와 같은 도시에 트랜스젠더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존재했다. 이들은 가족의 통제를 벗어나 집단으로 함께 살았다고 알려졌다. 이들 중 다수는 성매매 종사자나 댄서로 일하며 여성 복장을 했다고 한다. 이들은 심각한 차별과 때로는 치명적인 폭력에 시달렸다.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해외 비정부기구(NGO)들의 최근 보고서는 사회와 탈레반 지도층으로부터 차별과 폭력의 피해자가 된 트랜스젠더 남성의 여러 사례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아웃라이트 인터내셔널(Outright International)은 탈레반 당국이 트랜스젠더 남성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주로 가정 내에서 압력, 차별 및 폭력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⁶⁶

15.1.9 국제앰네스티(AI)의 2023년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합의에 의한 동성 관계는 여전히 불법이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소수자는 차별, 표적 폭력, 위협 및 임의의 구금을 포함하여 탈레반이 저지른 수많은 인권 침해에 계속 직면했다. 많은 성소수자가 생명에 대한 위협을 두려워하며 계속 숨어 살았으며, 성소수자의 강제 결혼 사건도 일부 보고되었다.”²⁶⁷

15.1.10 2024년 2월 23일자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현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성소수자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는 2021년 정치적 변화 이전에도 심각했다. 역사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성소수자는 가족의 거부, 사회적 낙인 및 기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숨기며 비밀리에 살아왔다. 이슬람 공화국의 붕괴 이후, 이들의 상황은 훨씬 더 위태로워졌다.

-아프가니스탄의 성소수자 공동체 구성원은 특별보고관에게 자신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렸다. 인터뷰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비순응적인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이 탈레반 당국에 알려질 경우, 젠더 박해 및 심각한 가혹 행위에 직면한다고 밝혔다. 성적 지향 또는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교도소에서 물리적 및 성적 폭력을 당하고, 심지어 고문을 당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²⁶⁴ Netherlands MFA, [General Country of Origin Report Afghanistan](#) (pages 98, 99), June 2023

²⁶⁵ Netherlands MFA, [General Country of Origin Report Afghanistan](#) (page 99), June 2023

²⁶⁶ Netherlands MFA, [General Country of Origin Report Afghanistan](#) (page 99), June 2023

²⁶⁷ AI, [The State of the World's Human Rights, Afghanistan 2023](#), 24 April 2024

-기존의 사회적 낙인과 금기는 탈레반의 차별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는 성소수자가 사법 제도와 공공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장애물을 형성한다.²⁶⁸

[목차로 돌아가기](#)

16. 아프가니스탄으로의 귀환(자)

16.1 일반적 귀환(자)

- 16.1.1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23년 자발적 귀환에 관한 상황 보고서는 2023년 9월 현재 “... 1만 2,795명의 아프간 난민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귀환했다(파키스탄 97%). ... 귀환자는 이란과 파키스탄에서 귀환하는 주된 이유가 체류 국가의 생활비와 고용 기회 부족, 아프가니스탄의 개선된 치안 상황 및 가족과의 재결합이라고 밝혔다”²⁶⁹고 보고했다. 2023년 4분기에는 자발적 귀환이 크게 증가했다(파키스탄에서 6만 3,000명 이상). 이는 주로 파키스탄에 체류할 법적 문서가 없는 외국인들을 송환하는 파키스탄의 정책 때문이었다²⁷⁰([이란, 파키스탄 및 튀르키예로부터의 귀환\(자\)](#) 참조).
- 16.1.2 랜드인포(Landinfo)의 2022년 9월 국가정황정보(COI) 질의 응답서 ‘탈레반의 집권 후 출국 및 귀환’은 다양한 출처를 인용하여 “영구 귀국이든 단기 혹은 장기 체류 목적이든 자발적으로 고국으로 귀환하는 아프간인에 대한 완전한 통계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²⁷¹. 탈레반은 ‘전 아프간 관리 및 정치 인사의 귀환 및 소통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여... 귀환자를 환영하지만, 이들이 탈레반의 정부 기구에서 권력이나 권한을 부여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²⁷²고 덧붙였다.
- 16.1.3 벨기에 난민 및 무국적자 판무관실(Commissioner General for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CGRS)의 연구 및 문서화 서비스인 세도카(Cedoca)도 ‘탈레반 집권 이후 아프간인의 이주 동향’이라는 제목의 2023년 12월 논문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아프가니스탄으로의 귀환에 대한 개요가 포함되었다.
- 16.1.4 2023년 12월, 유럽연합망명청(EUAA)도 [‘불법 외국인 송환 계획’과 관련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 파키스탄에서 아프간으로 귀환한 자의 상황](#)을 다루는 다양한 출처(7~12페이지의 참고문헌에 열거)를 기반으로 국가정황정보(COI) 질의 응답을 작성했다.

[목차로 돌아가기](#)

16.2 이란, 파키스탄 및 튀르키예로부터의 귀환(자)

- 16.2.1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튀르키예가 2022년 첫 8개월 동안 4만 4,768명의 아프간 국민을 송환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2021년 첫 8개월보다 150% 증가한 수치이다²⁷³.
- 16.2.2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또한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인터뷰한 사람 중 다수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라는 다섯 가지 보호 사유에 기반한 1951년 난민협약상의 박해 기준에 해당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²⁶⁸ UNHRC,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Afghanistan...](#) (paragraphs 65, 66, 68), 22 February 2024

²⁶⁹ UNHCR, [UNHCR RBAP Afghanistan Situation...July to September 2023...](#), 18 October 2023

²⁷⁰ UNHCR, [UNHCR RBAP Afghanistan Situation...October to December 2023...](#), 19 March 2024

²⁷¹ Landinfo, [Departures and returns after Taliban's takeover of power](#) (page 4), 29 September 2022

²⁷² Landinfo, [Departures and returns after Taliban's takeover of power](#) (page 4), 29 September 2022

²⁷³ HRW, [No-One Asked Me Why I Left](#), 18 November 2022

누군가는 전통적 의미의 난민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다른 심각한 위협에 근거하여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²⁷⁴ 그러나 어떤 근거로 그러한 평가를 했는지 또는 난민 신청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어떤 근거로 그러한 평가를 할 자격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 16.2.3 란드인포(Landinfo)는 튀르키예 내무부를 인용하여 “2022년 8월 말 현재, 튀르키예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아프간인 8만 2,550명이 2022년 튀르키예 당국에 체포되었다...”²⁷⁵고 보고했다.
- 16.2.4 2023년 1월 카아마 프레스 뉴스 에이전시(Khaama Press News Agency) 기사는 “튀르키예 이민총국(General Directorate of Migration of Turkey)이 지난해 12만 4,441명의 불법 이주자 중 약 6만 8,290명의 아프간 국민을 추방했다고 발표했다”²⁷⁶고 언급했다. 미들 이스트 아이(Middle East Eye, MEE) 기사는 2022년에 “24만 명 이상의 아프간 난민이 이란과 튀르키예에서 추방되었다”고 언급했으며, “튀르키예 경찰이 아프간인을 이란 국경으로 몰아내려 한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추방은 민간 및 정부 운영 아프간 항공사의 상업 및 전세 항공편을 통해 이루어진다”²⁷⁷고 밝혔다.
- 16.2.5 압바스(Abbas)(2023년 5월)는 이란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귀환했거나 송환된 사람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²⁷⁸.
- 16.2.6 국가정책정보팀(CPIT)은 참고한 출처([참고문헌](#) 참조)에서 그러한 귀환자에 대한 보복이나 학대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압바스(Abbas)는 또한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 국제 보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²⁷⁹고 언급했다.

[탈레반에 대한 보도](#) 참조

- 16.2.7 2023년 7월, 자유유럽방송(RFE/RL)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달 발표를 통해, 2022년 3월 이후 사면을 약속받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귀환한 정치인, 전직 관료 및 기타 주요 인사가 600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수십 명의 귀환자는 자유유럽방송(RFE/RL)의 라디오 아자디(Radio Azadi)에 탈레반에 대한 환멸과 자신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떠났다고 말했다.
 - 카불의 사립 카르완대학교(Karwan University) 총장인 자나트 파힘 차카리(Janat Fahim Chakari)는 ‘많은 위협’을 받은 후 출국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행히도 우리는 탈레반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 한편, 귀환한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 반탈레반 지도자인 랄 모하마드 가리브자데(Lal Mohammad Gharibzadeh)는 지난달 신원 미상의 무장괴한에게 살해되었다. 보복을 우려해 익명을 요구한 가리브자데의 친척들은 그가 탈레반의 표적이 되었다고 의심하고 있다.²⁸⁰

²⁷⁴ HRW, [No-One Asked Me Why I Left](#), 18 November 2022

²⁷⁵ Landinfo, [Departures and returns after Taliban's takeover of power](#) (page 2), 29 September 2022

²⁷⁶ Khaama, [Turkey Deports 68,000 Undocumented Afghan Migrants](#), 8 January 2023

²⁷⁷ MEE, [Over 240,000 Afghan refugees deported from Iran and Turkey](#), 15 November 2022

²⁷⁸ Abbas H, [The Return of the Taliban: Afghanistan after the Americans Left](#), (page 219), May 2023

²⁷⁹ Abbas H, [The Return of the Taliban: Afghanistan after the Americans Left](#), (page 242), May 2023

²⁸⁰ RFE/RL, [The Azadi Briefing...](#), 28 July 2023

- 16.2.8 2023년 11월,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는 "탈레반이... 파키스탄의 대규모 강제추방/강제 송환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을 도와달라고 아프가니스탄의 민간 부문 관계자들에 호소했다"²⁸¹고 언급했다.
- 16.2.9 2023년 12월 미국의 소리 방송(VOA)은 "탈레반 난민 및 송환부 장관인 압둘 라흐만 라시드(Abdul Rahman Rashid)가 현지 톨로(TOLO) 뉴스 채널에... 이란이 9월 마지막 주 이후 '약 34만 5,000명'의 아프간인을 추방했다고 말했다"²⁸²고 언급했다.
- 16.2.10 같은 기사는 "파키스탄 당국은 정부가 두 달 전 약 170만 명의 아프간 국민을 포함한 모든 불법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명령한 이후 거의 49만 명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귀환했다고 보고했다"²⁸³고 덧붙였다.
- 16.2.11 유엔난민기구(UNHCR)/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에 따르면, 2023년 9월 15일 이후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귀환한 사람은 2024년 1월 현재 50만 2,100명으로, "총 귀환은 추방, 자발적 귀환 (VolRep) 및 등록 증명서(PoR) 소지자, 아프가니스탄 시민 카드(ACC) 소지자, 미등록자 등 모든 지위의 아프간인 귀환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이다"²⁸⁴라고 설명했다.
- 16.2.12 2024년 4월, 아리아나 뉴스(Ariana News)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IEA)과 유엔 기구는 지난 6개월 동안 50만 명 이상이 파키스탄에서 추방되거나 자발적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 귀환한 것으로 추정한다"²⁸⁵고 보도했다.
- 16.2.13 유럽연합망명청(EUAA)의 2023년 12월 국가정황정보(COI) 질의서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의 2023년 11월 상황 보고서](#)를 인용하여 "파키스탄에서 온 귀환자의 대다수는 낭가르하르, 칸다하르, 쿠나르, 쿤두즈 및 라그만주 출신이었으며, 그들 중 90%가 출신 주로 귀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²⁸⁶고 기록했다.
- 16.2.14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NGO)로, 스스로를 '독립적 분석 제공자'이자 '인도주의 활동가, 인플루언서, 모금 담당자 및 기부자가 더 나은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고 재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독립적 분석 기구'²⁸⁷라고 설명하는 국제 인도주의평가기구(Assessment Capacities Project, ACAPS)는 국제이주기구의 2023년 12월 6일 업데이트를 인용하여 "9월 15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약 43만 8,171명의 아프간인이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귀환했다"²⁸⁸고 기록했다.
- 16.2.15 국제 인도주의평가기구(ACAPS)의 2023년 12월 업데이트는 또한 유엔난민기구(UNHCR)의 2023년 11월 업데이트를 인용하여 "2023년 11월 현재 파키스탄과 국경 통과 지점에서 아프간인들이 보고한 어려움"²⁸⁹을 설명했다.

²⁸¹ The Independent, [Taliban appeal to Afghan private sector ...](#), 4 November 2023

²⁸² VOA, [Taliban: Iran Deports Almost 350,000 Afghans Within 3 Months](#), 11 December 2023

²⁸³ VOA, [Taliban: Iran Deports Almost 350,000 Afghans Within 3 Months](#), 11 December 2023

²⁸⁴ UNHCR, [Afghanistan situation](#), June 2024

²⁸⁵ Ariana News, [MSF "deeply concerned" over new phase of deportations of AFG ...](#), 19 April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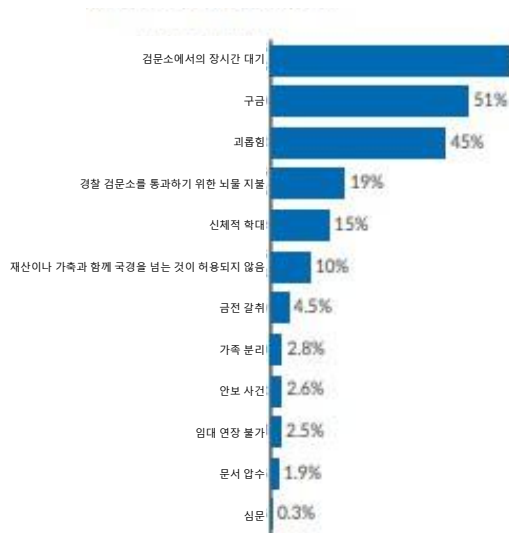
²⁸⁶ EUAA, [COI Query, Situation of Afghan Returnees from Pakistan...](#) (page 4), December 2023

²⁸⁷ ACAPS, [Who we are](#) no date

²⁸⁸ ACAPS, [Forced return of Afghans from Pakistan](#) (page 1), 7 December 2023

²⁸⁹ ACAPS, [Forced return of Afghans from Pakistan](#) (page 5), 7 December 2023

국경 이동 전 파키스탄에서 경험한 문제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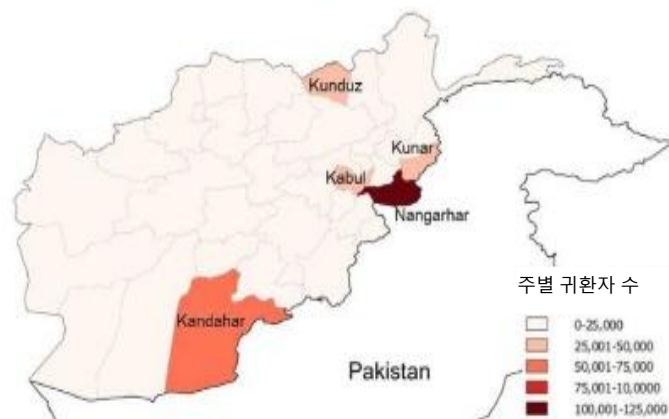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측 국경 지점에서 경험한 문제⁴



참고: 응답은 객관식 질문에서 수집되었으므로 백분율이 100%를 초과할 수 있다. 출처: 유엔난민기구(UNHCR)(2023. 11. 24.)

16.2.16 BBC 뉴스(BBC News)는 "파키스탄에 의하면 월요일[2023년 10월 30일] 현재 약 20만 명의 아프간인이 귀환했다"²⁹⁰고 보도했다.

16.2.17 2024년 4월 30일, ACAPS 프로젝트(ACAPS Project)는 "+54만 명의 #아프간인이 2023년 10월 #파키스탄의 불법 외국인 송환 계획(Illegal Foreigners Repatriation Plan) 이후 귀환했다"²⁹¹고 트윗을 게시했다. 이 트윗에는 2024년 주요 귀환 주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이 포함되어 있었다²⁹².



16.2.18 국제 인도주의평가기구(ACAPS) 트윗은 또한 '[아프가니스탄: 사회적 영향 주목](#)(Afghanistan: Spotlight on social impact)(2023년 10월 ~ 2024년 2월)'이라는 제목의 자체 보고서 링크를 제공했다. 이 보고서는 "... 아프간인에게 상당한 사회적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문제와 인도주의적 대응에 따른 결과에 주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²⁹³고 밝혔다.

16.2.19 2024년 5월, 자유유럽방송(RFE/RL)은 라디오 파르다(Radio Farda) 보고서²⁹⁴를 인용하여 "이란이 지난 1년간 약 130만 명의 외국인을 추방했다"²⁹⁵고 언급했다. 두 보고 내용 모두 그 130만 명 중

²⁹⁰ BBC News, [Afghan Refugees Fear as Pakistan Prepares for Deportations](#), 1 November 2023

²⁹¹ ACAPS (@ACAPSproject), [Tweet dated 30 Apr 2024 @ 3:36PM](#), 30 Apr 2024

²⁹² ACAPS (@ACAPSproject), [Tweet dated 30 Apr 2024 @ 3:36PM](#), 30 Apr 2024

²⁹³ ACAPS, [Afghanistan: spotlight on social impact - October 2023 to February 2024](#), 25 April 2024

²⁹⁴ Radio Farda, [Iran's interior minister says ... 1.3m foreign nationals ... "deported" ...](#), 8 May 2024

²⁹⁵ RFE/RL, [Iran Seeks To Tighten Crackdown On Afghan Refugees](#), 8 May 2024.

아프가니스탄으로 귀환한 사람이 몇 명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 내무부 장관이 "무허가 국민의 이란 입국을 막기 위해 의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²⁹⁶고 말한 것을 인용했다. 또한, "이란 당국은 일반적으로 아프간 난민을 지칭할 때 '무허가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²⁹⁷고 언급했다.

[목차로 돌아가기](#)

16.3 '서구화'의 개념

16.3.1 유럽연합망명청(EUAA)의 2023년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국가 지침(Country Guidance)'에 따르면, "'서구화된'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은 예를 들어 아프간인이거나 무슬림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활동, 행동, 외모 및 표명한 의견 때문이며, 서구 국가에서 시간을 보낸 후 아프가니스탄으로 귀환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류에 해당하는 자들은... 종교적, 도덕적 및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 예를 들어 복장 규정과 관련된 규범과 관련하여 대체로 중복 분류될 수 있다."²⁹⁸

16.3.2 유럽연합망명청(EUAA) 국가별 포커스는 수많은 출처를 인용하여 서구 영향력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탈레반은 아프간 사회를 '정화'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한다. 탈레반 정부는 전국적으로 모스크와 마드라사를 건설하는 데 막대한 자원을 투자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국제 분석가는 탈레반의 서구 교육에 대한 '공격'이 최고 지도자의 아프간 사회 '정화' 프로젝트의 일부라고 밝혔다."²⁹⁹

16.3.3 란드인포(Landinfo)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서구화'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통일된 이해는 없다. 오히려 이 개념이 수반하는 것에 대한 느슨하고 모호한 개념이 존재한다. 이는 유럽이나 다른 서방 국가에 살았고 서구 문화와 생활 방식의 영향을 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 영향은 의복, 헤어스타일, 수염 길이 및 머리 가리개와 같은 외면적 특성으로 드러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노동 참여 및 이동의 자유에 대한 태도와 견해 그리고 술과 돼지고기 소비에 대한 태도일 수도 있다.³⁰⁰

16.3.4 유럽연합망명청(EUAA)의 국가정황정보(COI) 보고서에 기반한 유럽연합망명청(EUAA)의 [국가 지침](#)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탈레반 관리들이 아프간인에게 아프가니스탄으로 귀환할 것을 반복적으로 촉구했지만, 서구 국가로 떠나는 이들에 대한 그들의 시각은 여전히 모호하다. 한편으로 탈레반은 가난으로 인해 아프간인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며 이는 탈레반에 대한 두려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면서, 서구의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에 이끌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레반은 또한 떠난 엘리트들에 관하여 그들은 '아프간인'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아프가니스탄에 '뿌리'가 없고 외세의 '점령'에 가담한 부패한 '꼭두각시'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²⁹⁶ RFE/RL, [Iran Seeks To Tighten Crackdown On Afghan Refugees](#), 8 May 2024.

²⁹⁷ RFE/RL, [Iran Seeks To Tighten Crackdown On Afghan Refugees](#), 8 May 2024.

²⁹⁸ EUAA, [Country Guidance: Afghanistan](https://euaa.europa.eu/country-guidance-afghanistan-2022/292-individuals-perceived-westernised)<https://euaa.europa.eu/country-guidance-afghanistan-2022/292-individuals-perceived-westernised>, (page 77), updated January 2023

²⁹⁹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 101), December 2023

³⁰⁰ Landinfo, [Departures and returns after Taliban's takeover of power](#) (page 6), 29 September 2022

탈레반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대상에는 전 정부 관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활동가, 언론인 및 지식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³⁰¹

16.3.5 란드인포(Landinfo)는 또한 2018년 유엔난민기구(UNHCR)의 자격 지침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서구 국가에서 온 귀환자가 심각한 대우를 받았고, 일부는 가족, 지역 사회 및 지역 당국으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유엔난민기구(UNHCR) 2018, 46, 47쪽). 유엔난민기구(UNHCR)는 주로 자체 보고에 의존했다."³⁰²

16.3.6 란드인포(Landinfo)는 참고한 출처와 자체 전문지식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다. 아프가니스탄은 다양하고 복잡한 국가이며, 이는 탈레반의 통치에도 반영되어 있다.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지역적 특성 차이가 상당히 크다. 이것이 서구의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한 관점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프로필, 인적 네트워크 및 국내 거주지에 따라 이들에 대한 탈레반의 대응은 달라질 것이다. 해외에서 온 아프간인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아프간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탈레반의 다양한 칙령과 규정에 적응해야 한다고 여길 만한 이유가 있다.³⁰³

16.3.7 오스트리아 국가정보 및 망명 연구 기록 센터(Austrian Centre for Country of Origin and Asylum Research and Documentation, ACCORD)가 2025년 2월에 발표한 탈레반의 제한적 정책에 관한 보고서³⁰⁴는, 2024년 7월 26일부터 11월 7일 사이 국제 및 현지 인도주의 활동가들과 학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인터뷰를 '거의 전적으로' 토대 삼아 작성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특히 여성과 여아에 대한 억압을 다루며, '서구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토마스 루티그(Thomas Ruttig)[아프가니스탄 분석가 네트워크(Afghanistan Analysts Network, AAN) 공동 설립자]는 탈레반이 주로 표적으로 삼는 집단 중 하나는 '서구에 감염된'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 집단에는 주로 도시 거주자,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 '서구식' 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지역 전통 및 관습에서 벗어난 생활 방식이나 경험을 채택한 사람이 포함된다.

탈레반은 이러한 사람을 아프간 사회 내에서 잠재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거짓' 가치를 내면화했다고 여기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탈레반은 스스로를 '도덕성'과 '미덕'을 강조하는 일종의 교육적 리더십으로 본다. 탈레반은 처음에는 훈계를 통해, 그리고 국민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치 체계를 재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uttig, 2024년 10월 23일).³⁰⁵

16.3.8 오스트리아 출신국 및 망명 연구문서화 센터(ACCORD) 연구를 검토하면서 국가정책정보팀(CPIT)은 탈레반이 서구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루티그의 관측 내용을 언급했다. '서구 가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란, 일률적으로 정의되지 않지만 루티그에 따르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특히 시민사회에 참여하는 사람, 서구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탈레반이 전통적인 아프간 규범으로 간주하는 것에서 벗어난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목차로 돌아가기](#)

³⁰¹ EUAA, [Country Guidance: Afghanistan](#) (page 77), updated January 2023

³⁰² Landinfo, [Departures and returns after Taliban's takeover of power](#) (page 6), 29 September 2022

³⁰³ Landinfo, [Departures and returns after Taliban's takeover of power](#) (page 7), 29 September 2022

³⁰⁴ ACCORD, [Report on the impact of the Taliban's information practices ...](#) (page 6), February 2025

³⁰⁵ ACCORD, [Report on the impact of the Taliban's information practices ...](#) (page 82), February 2025

16.4 복장 및 외모

- 16.4.1 네덜란드 외교부(MFA) 보고서는 2023년 유럽연합망명청(EUAA) 국가 지침을 포함한 다른 출처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일반적으로 전통 의상을 입는 것이 관습이다. 서구식 옷을 입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사무실에서는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할 수 있다. 수염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한다. 정부 기관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전통 의상을 입으며, 일부는 터번을 쓴다. 더 서구적인 복장은 외교부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한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고위직을 목표로 하는 탈레반 구성원은 정장 착용을 피해야 한다. 마을의 거리에서는 복장에 대한 불관용이 더 크다고 한다. 그러나 복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행동과 사회문화적 규범에 대한 적응이다... '서구화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탈레반, 친척 또는 이웃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³⁰⁶

- 16.4.2 2023년 9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성과 여아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제한적인 지침 외에도, 탈레반 권선징악부(MPVVPV)는 이발사들에게 남성의 수염을 다듬거나 '서구식' 이발을 제공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탈레반 집권 이후 이 지침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남성과 이발사들이 학대를 당하고 일시적으로 임의 구금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지구 및 주 지역에서, 남성들은 탈레반 정부의 권선징악부(MPVVPV) 관리들로부터 모스크에서 회중 기도회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벌금과 학대로 이어졌다.³⁰⁷

- 16.4.3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다루는 다양한 출처에 기반한 유럽연합망명청(EUAA)의 국가정황정보(COI) 부서가 작성한 2024년 11월자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보고서(유럽연합망명청(EUAA) 국가별 포커스)(2023년 12월 발표된 유럽연합망명청(EUAA) [국가정황정보\(COI\) 보고서: 국가별 포커스 – 아프가니스탄의 업데이트](#))³⁰⁸는 복장 규정과 외모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2021년 탈레반의 집권 직후, 정장이나 청바지와 같은 '서구식'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학대를 받았다는 보고가 산발적으로 접수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남성들에게 '서구식' 옷을 입지 말라고 권고했다. 탈레반 권선징악부(MPVVPV)는 남성 공무원의 복장 규정을 발표하여 '예언자처럼 옷을 입으라'고 지시했다(원칙적으로 살와르 카미즈 – 헐렁한 바지 위에 무릎길이의 느슨한 튜닉, 전통 머리장식 및 수염 기르기를 의미한다). 2022년 4월 15일에는 남학생과 교사에게 넥타이를 매지 말라고 촉구했고, 2023년 4월에 탈레반 정부 교육부는 살와르 카미즈를 남학생의 새로운 교복으로 발표했다. 2024년 7월 31일의 '도덕법(Morality law)'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남성은 허리부터 무릎까지, 무릎을 포함하여 몸을 가려야 한다.

³⁰⁶ Netherlands MFA, [General Country of Origin Report Afghanistan](#) (page 80), June 2023

³⁰⁷ UNHRC,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Afghanistan...](#) (paragraph 38), 11 September 2023

³⁰⁸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s 6 and 12), November 2024

- '여가 활동과 운동을 할 때, 남성은 신체의 필수적으로 가려야 할 부분을 가리는 옷을 입어야 하며, 너무 짝 끼거나 신체의 특정 부분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 비무슬림과 친구가 되고 그들을 돕는 것, 외모나 성격에서 그들을 모방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다.
- 십자가, 넥타이 및 기타 그러한 비이슬람적 상징을 착용하고 대중화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다."³⁰⁹

16.4.4 2025년 4월 아프가니스탄 분석가 네트워크(AAN)는 이슬람 학자 존 버트(John Butt)가 쓴 권선징악(Propagation of Virtue and Prevention of Vice, PVPV)법의 비공식 [번역본](#)을 출판했다³¹⁰.

16.4.5 2024년 11월 유럽연합망명청(EUAA) 국가별 포커스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 보고서를 위해 인터뷰에 응했고 보안상의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한 아프간 연구자는 탈레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침이 일반적으로 탈레반 정부 부처에서 이행되었다고 밝혔다. 남성이 일부 탈레반 정부 건물에 출입하려면 전통 모자를 써야 했다(입구에서 구매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전통 의상을 점점 더 많이 입기 시작했지만, 비전통적 복장을 착용하는 것도 계속되었다. [익명의] 아프간 분석가에 따르면, 카불시에서 전통 의상을 입고 수염을 기르는 남성이 증가한 것은 반드시 규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배 계급의 외모가 유행하기 때문이다. 스웨덴 이민청과 인터뷰한 한 소식통은 탈레반 권선징악부(MPVPV)의 비판과 언어적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전통 의상을 입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아프간 분석가는 권력자처럼 보이는 것이 특정 지위를 나타내고 사회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면 검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스웨덴 이민청(Swedish Migration Agency)의 국가정황정보(COI) 부서는 2024년 4월에 남성과 남아가 여전히 청바지와 정장을 입는다고 보고한 반면, 2024년 10월 1일에 인터뷰한 아프간 분석가는 드물긴 하지만 젊은 세대의 일부는 여전히 바지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간 연구자는 사람이 옷을 입는 방식에 대해 지역 간, 심지어 카불 내 구역 간에도 여전히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음악, 보디빌딩, 문신, 반소매 티셔츠와 같은 다른 영역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카불의 일부 지역에서는 볼 수 있지만 칸다하르와 같은 주에서는 기본적으로 볼 수 없다. 2024년 9월 30일 기준, 톨로뉴스(TOLONews) 뉴스 앵커는 여전히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했다.³¹¹

16.4.6 카불에 본부를 둔 민영 뉴스 채널³¹²인 톨로뉴스(TOLONews)의 뉴스 앵커와 진행자는 2025년 7월 15일 현재에도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했다^{313 314}.

16.4.7 2024년 11월 유럽연합망명청(EUAA) 국가별 포커스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또한 탈레반 정부의 권선징악부(MPVPV)는 이발사에게 남성의 수염을 자르거나 '서구식'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³⁰⁹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 36), November 2024

³¹⁰ AAN, [AAN's complete unofficial translation of the Law on the Propagation of ...](#), 13 April 2025

³¹¹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s 36 to 37), November 2024

³¹² TOLONews, [About Us](#), no date

³¹³ TOLONews, [6pm News – 15 July 2025](#), 15 July 2025

³¹⁴ TOLONews, [TV Program](#), various dates

이 지침은 성격상 권고이지만,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성과 이발사들이 학대받고, 체포되고, 구금된 사례가 일부 보고되었다. 2024년 8월의 '도덕법(Morality law)'은 또한 "수염을 깎거나 주먹 너비보다 짧게 깎는 것"과 "비이슬람적 방식으로 머리 모양을 하는 것"을 '잘못된 행위'로 규정했다. 일부 남성은 카불시에서 수염을 자르고 '서구식 이발'을 계속했다. 아프간 분석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서구식' 또는 '현대식' 이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탈레반 정부 관리들이 반응하지 않지만, '모히칸'과 같은 더 극단적인 스타일은 아마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탈레반 정부 관리들은 그러한 머리를 한 남성을 멈춰 세우고 머리의 절반을 깎는 것을 불허하는 종교적 하디스에 따라 그 같은 헤어스타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고지할 것이다. 같은 소식통은 카불시의 사업가와 청년층도 면도와 수염 기르기를 기피하고 있지만, 노년층 남성은 청년층에 비해 전통적으로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는 비율이 더 높다. 그러나 2024년 9월 현재 카불시에서는 여전히 많은 젊은층이 현대적인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고, 일부 젊은층은 여전히 면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³¹⁵

- 16.4.8 2021년 8월 15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다루며, 아프가니스탄 전역의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유엔 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의 2024년 7월 자 보고서는 남성의 외모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탈레반 정부의 권선징악부(MPVVP)는 남성의 적절한 외모에 관한 여러 지침을 발표했다. 탈레반 정부의 권선징악부(MPVVP)는 이발사들에게 남성의 수염을 다듬거나 '서구식'으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지시했다. 최근 사례로, 2024년 1월 24일 헤라트주에서 탈레반 정부의 권선징악 지방 지부(DPVVP)의 책임자가 한 영상에서 이발소는 고객의 수염을 주먹 길이보다 짧게 깎고 다듬어서는 안 되며 고객에게 '서구식 헤어스타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³¹⁶

- 16.4.9 2025년 2월 오스트리아 출신국 및 망명 연구문서화 센터(ACCORD) 보고서는 토마스 루티그를 인용하여 아프간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권선징악(PVPV)법의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십자가나 넥타이 착용 금지와 같은 것인데, 이것들은 분명히 탈레반의 눈에는 십자가 모양이어서 기독교 상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탈레반의 첫 번째 통치(1996-2001년) 당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루티그, 2024년 10월 23일).³¹⁷

- 16.4.10 오스트리아 출신국 및 망명 연구문서화 센터(ACCORD) 보고서는 익명의 인터뷰 대상자를 인용했는데, 그는 "남성도 규제의 영향을 받는다. 그들은 수염을 기르라는 지시를 받는다. 이발사들은 수염을 깎거나 남성의 헤어스타일을 바꾸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를 받는다"(19, 2024년 9월 2일)고 밝혔다.³¹⁸

- 16.4.11 2024년 8월 12일 프랑스24(France 24)가 인용한 통신사 아장스 프랑스 프레스(Agence France Press, AFP)의 보고서는 카불에서는 여전히 서구식 의복이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장스 프랑스 프레스(AFP)는 얼굴 묘사 금지에 대해 보도하면서, 카불의 상점주들이 탈레반의 도덕 경찰로부터 마네킹의 얼굴을 가리고 모델의 이미지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 명령을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당국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마네킹에는 청바지나 정장과 같은 서구식 의복이 계속 입혀져 있었다.

³¹⁵ EUAA, [Afghanistan – Country Focus](#) (pages 37 to 38), November 2024

³¹⁶ UNAMA, [De Facto Authorities' Moral Oversight in Afghanistan ...](#) (page 11), July 2024

³¹⁷ ACCORD, [Report on the impact of the Taliban's information practices ...](#) (page 13), February 2025

³¹⁸ ACCORD, [Report on the impact of the Taliban's information practices ...](#) (page 13), February 2025

여성 마네킹은 어깨가 드러나거나 깊게 파인 목선의 스팅글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이러한 복장은 일반적으로 성별이 엄격히 분리된 결혼식장과 같은 사적인 장소에서만 여성이 입는 것이다³¹⁹.

- 16.4.12 카불에 본부를 둔 민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네트워크인 아리아나 텔레비전 네트워크(Ariana Television Network, ATN)의 [유튜브 채널](#)은 'Kabul Nights' 시리즈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30일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 비디오는 심야 푸드 마켓에서 촬영되었으며, 티셔츠와 캐주얼 바지를 입은 남성들이 등장했다. 진행자도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³²⁰. 아리아나 텔레비전 네트워크(ATN)가 2025년 7월 11일에 업로드한 같은 시리즈의 또 다른 영상에서는 같은 진행자가 아이스크림 가게 밖에서 티셔츠와 스포츠 의류를 입고 머리를 스타일링하고 수염을 다듬은 젊은 남성을 인터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³²¹. 약 33분짜리 영상 속 다른 장면에는 아프간 전통 복장을 입은 남성들이 등장했다³²².



Shabhaye Kabul: hidden secrets of Kabul's Nights / رات های پنهان در شب های کابل

ATN 비디오 스크린샷, 2025년 7월 11일³²³

- 16.4.13 아리아나 텔레비전 네트워크(ATN)가 2025년 7월 12일에 업로드한 영상에는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진행자가 사라이 가즈니(Sarai Ghazni)로 알려진 카불의 한 지역에서 비슷한 복장을 한 남성들을 인터뷰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³²⁴.

³¹⁹ AFP, [Faceless mannequins show off clothes in Afghanistan](#), 12 August 2024

³²⁰ ATN, [Shabhaye Kabul: The market that stays open until ...](#) (from 25.20 minutes), 30 May 2025

³²¹ ATN, [Shabhaye Kabul: hidden secrets of Kabul's Nights](#) (from 29.26 minutes), 11 July 2025

³²² ATN, [Shabhaye Kabul: hidden secrets of Kabul's Nights](#), 11 July 2025

³²³ ATN, [Shabhaye Kabul: hidden secrets of Kabul's Nights](#) (at 30.55 minutes) 11 July 2025

³²⁴ ATN, [Sarai Ghazni and Recent Changes in Hafiz Amiri ...](#) (from 4.35 minutes), 12 July 2025



سرایی غزنی و تغییرات جدید در گزارش ویژه حفیظ امیری

ATN 비디오 스크린샷, 2025년 7월 12일³²⁵

[목차로 돌아가기](#)

16.5 '서구화된' 사람에 대한 탈레반의 반응

16.5.1 란드인포(Landinfo)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2022년 2월, 란드인포(Landinfo)는 한 국제기구의 대표자(디지털 회의, 2022년 2월)를 만났는데, 그는 당시 카불 거리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시에는 여전히 서구식 옷을 입는 아프간인이 있었고,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과 착용하지 않은 여성이 모두 있었다. 란드인포(Landinfo)의 또 다른 정보원은 탈레반 점령 이후 카불에 살고 있으며 지금도 그 곳에 살고 있다. 그는 매우 서구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다. 짧은 머리에 면도를 하고 서구식 옷을 입는다. 직접 질문을 받았을 때(이슬라마바드에서 대화, 2022년 3월) 자신의 외모와 관련하여 탈레반과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³²⁶

16.5.2 란드인포(Landinfo)는 (2022년 9월 기준) "현재 상황에 관한 관련 정보가 거의 없다. 점령 이후 서구 국가로부터 강제 송환은 없었으며, 비교적 적은 수의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귀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아프간인이 '서구화된' 것처럼 보이거나 서구 국가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³²⁷고 덧붙였다.

16.5.3 다른 출처를 인용하여 네덜란드 외교부(MFA)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서구(권) 국가에서의 체류가 귀환 시 문제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유럽이나 서구 국가에서 귀환한 사람은 많지 않다. 귀환하는 사람은 보통 제3국을 경유해 왔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서구 국가에서 온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할 때 더 많은 질문에 답해야 할 수 있다. 특히 서구식 옷을 입고 있는 경우에 더 그렇다.

³²⁵ ATN, [Sarai Ghazni and Recent Changes in Hafiz Amiri ...](#) (at 5:42 minutes), 12 July 2025

³²⁶ Landinfo, [Departures and returns after Taliban's takeover of power](#) (page 6), 29 September 2022

³²⁷ Landinfo, [Departures and returns after Taliban's takeover of power](#) (page 6), 29 September 2022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에 따르면, 탈레반은 인권 옹호자와 관련하여, 서구 교육, 서구 조직에서 일한 경력, 서구식 복장, 영어 구사와 같은 요인을 '적'과의 유대를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한다.³²⁸

16.5.4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2024년 세계 보고서(2023년 사건을 다룬다)에서 "남성, 특히 공무원은 풍성한 수염을 기르고 서구화된 헤어스타일이나 복장을 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러한 조치의 시행은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³²⁹고 밝혔다.

16.5.5 2024년 7월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 보고서는 남성의 외모에 대한 지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탈레반 정부의 권선징악부(MPVV)는 해당 지침이 성격상 권고 사항이라고 밝혔지만, 고객의 수염을 깎은 이발사와 외모에 대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남성에게 대한 체포, 구금 및 가혹 행위를 포함한 [언급되지 않은 수의] 강제 집행 사례가 기록되었다.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23년 7월 27일, 바다흐산주에서 탈레반 권선징악 지방지부(DPVV)는 수염을 깎았다는 혐의로 여러 사람을 몇 시간 동안 구금했다.
- 2023년 12월 7일, 낭가르하르주에서 탈레반 권선징악 지방지부(DPVV)는 면도, 수염 다듬기 및 '서구식' 이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20개의 이발소를 하룻밤 동안 폐쇄하고 두 명의 이발사를 이틀 동안 구금했다. 그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한 후 석방되었다.

탈레반 당국의 답변에 따르면, 바다흐산주에서는 이발사들이 구금되지 않고 소환되어 상담을 받았다. 낭가르하르주에서는 이발사가 구금되지 않았지만 이발소가 폐쇄되었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은 헤라트주의 체포 사례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탈레반 당국은 그곳의 이발사들이 체포되지 않고 소환되어 상담을 받았다고 답변했다.³³⁰

16.5.6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엠란 페로즈(Emran Feroz)는 오스트리아 출신국 및 망명 연구문서화 센터(ACCORD) 보고서를 검토하고 작성에 도움을 줬다³³¹. 남성의 외모와 관련된 권선징악(PVPV) 법률 시행에 대한 그의 검토에 따르면, "... 특히 헤어스타일과 관련하여 이러한 조치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것은 거리에서 실제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방문하거나 공무원으로 일하는 경우 등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페로즈, 2025년 1월 16일)³³²

16.5.7 '...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 아프가니스탄 내외의 개인 및 집단과 협력'³³³하는 영국 기반 인권 단체 라와다리(Rawadari)는 2025년 3월에 발표된 2024년 사건을 다루는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일부 지역에서의 권선징악(PVPV) 법률 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³²⁸ Netherlands MFA, [General Country of Origin Report Afghanistan](#) (page 80), June 2023

³²⁹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24](#) (G3), 29 February 2024

³³⁰ UNAMA, [De Facto Authorities' Moral Oversight in Afghanistan ...](#) (pages 11 to 12), July 2024

³³¹ ACCORD, [Report on the impact of the Taliban's information practices ...](#) (page 5), February 2025

³³² ACCORD, [Report on the impact of the Taliban's information practices ...](#) (page 30), February 2025

³³³ Rawadari, [About Us](#), no date

... 특정 주와 지구에서는 권선징악부(MPVV)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남성의 수염이나 머리를 자른 이발사와 공중목욕탕 종사자는 징역에 처한다. 칸다하르의 한 거주자는 라와다리(Rawadari)에 자신이 수염을 다듬었다는 이유로 권선징악부(MPVV)에 24시간 동안 구금되었다고 말했다.

우루즈간주 타린코트(Tarinkot)에서 탈레반은 복장과 외모가 권선징악(PVPV)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수용할 임시 구금 장소로 세 개의 선적 컨테이너를 사용한다.

칸다하르 출신의 세 남성은 옷차림과 수염 길이 때문에 권선징악부(MPVV) 관리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그들은 규정된 길이까지 수염을 기르고 터번을 착용하든지, 아니면 주를 떠나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다. 결국 이들은 고향 주를 떠나야 했다.

2024년 11월, 칸다하르의 권선징악부(MPVV)는 수염을 다듬었다는 이유로 주 교육부 직원 14명을 구금하고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면 직장에서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년 12월 30일, 권선징악부(MPVV)는 수염을 다듬고 머리를 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즈니주의 국영 언론 매체 소속 언론인 2명을 선적 컨테이너 안에 24시간 동안 구금했다...³³⁴

16.5.8 란드인포(Landinfo)는 아프간 남성에게 관한 2025년 1월 보고서(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사용하여 노르웨이어에서 영어로 번역했으며, 란드인포가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에서 "한 국제 분석가(2024년)에 따르면, 유럽과 서구에서 귀환하는 사람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지만, 고향 마을로 귀환하는 사람은 지역 관습과 복장 규정에 적응해야 한다"³³⁵고 언급했다. 란드인포(Landinfo)가 사용한 모든 출처는 기존 [란드인포](#)(Landinfo) 보고서 내에 포함되어 있다.

16.5.9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은 권선징악(PVPV) 법률에 관한 2025년 4월 보고서에서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은 권선징악(PVPV) 법률 시행 첫 6개월 동안 권선징악(PVPV) 법률 관련 임의 구금의 절반 이상이 남성의 외모와 관련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남성이 규정에 맞는 수염 길이나 헤어스타일을 하지 않았거나 이발사가 규정에 맞지 않는 수염 다듬기나 이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였다"³³⁶고 언급했다.

16.5.10 국가정책정보팀(CPIT)이 참고한 출처([참고문헌](#) 참조)에서는, 카불에서 기록된 권선징악(PVPV) 법률 시행의 구체적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목차로 돌아가기](#)

³³⁴ Rawadari, [Afghanistan Human Rights Situation Report 2024](#) (pages 21 to 23), March 2025

³³⁵ Landinfo, [Afghanistan Situasjonen for afghanske men](#) (section 4.2.3, page 18), 20 January 2025

³³⁶ UNAMA,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Enforcement and Impact of the ...](#) (page 3), 10 April 2025

연구방법론

본 문서의 국가정황정보(COI)는 2008년 4월 유럽연합(EU) 국가정황정보(COI) [처리 공통 지침](#)(Common EU Guidelines for Processing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과 오스트리아 출신국 및 망명 연구문서화 센터(ACCORD)의 [국가정황정보 연구 – 교육 매뉴얼](#)(Researching Country Origin Information – Training Manual) 2024에 명시된 국가정황정보(COI) 연구의 일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선정되었다. 즉, 국가정황정보(COI)의 관련성, 신뢰성, 정확성, 균형성, 최신성, 투명성 및 추적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정보원이 제공하는 출처와 정보는 본 문서에 포함하기 전에 신중히 검토되었다. 출처 및 정보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출처의 동기, 목적, 지식 및 경험
- 사용된 구체적 방법론을 포함한 정보 수집 방법
- 정보의 최신성 및 상세성
- 국가정황정보(COI)가 다른 출처와 일치하는지 및 다른 출처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출처 및 정보에 대한 해설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독자가 국가정황정보(COI)의 의미와 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복수의 출처를 사용하고 국가정황정보(COI)를 비교하여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며, 발행 시점에 이문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최신의 상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이 문서에서 인용된 출처의 시각이나 견해를 내무부가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서 내 정보는 모두 각주로 간략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 문서 작성에 인용 및 참고한 모든 출처의 세부사항은 [참고문헌](#)에 알파벳순으로 열거하고 있다.

[목차로 돌아가기](#)

작업지침

'작업지침(Terms of Reference. ToR)'은 이 문서의 범위와 관련된 주제의 개요를 제공하며 [국가정보](#)의 기초를 형성한다.

초안 작성 전, 다음의 주제들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고, 이에 따라 연구를 수행했다.

- 2022년 4월 이후 주요 발전사항 업데이트
- 탈레반 치하의 생활
 - 영토 통제
 - 일반 법질서 및 사법 행정
 - 탈레반에 대한 정보 접근 및 보도
-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집단에 대한 처우:
 - 전 정부 관리, 공무원, 아프간 국방안보군(ANDSF), 판사 및 검사 그리고 가족 구성원 포함
 - 통역사 등 외국 군대/국제 사회와 연관된 사람
 - 반정부 무장 단체에 소속된 사람
 - 여성과 여아
 - 소수 종교 및 민족 집단
 - 성소수자(LGBTI)
 - 언론인
 - 인권 옹호자 및 활동가
- 귀환자의 상황
 - 유럽/서구로부터
 - 인접 지역으로부터 (튀르키예, 이란, 파키스탄, 기타?)
 - 아프가니스탄을 떠났다가 귀환한 것(망명 불인정자 포함) 및 '서구화된' 것이 초래한 결과에 관한 보고 – 또는 그러한 보고의 부재

[목차로 돌아가기](#)

참고문헌

인용 출처

Abbas H, [The Return of the Taliban: Afghanistan after the Americans Left](#), May 2023 (Yale University Press)

Afghanistan Analysts Network (AAN),

[AAN's complete unofficial translation of the Law on the Propagation of Virtue and Prevention of Vice](#), 13 April 2025. Accessed: 15 July 2025

[The Khalid Payenda Interview \(1\): An insider's view of politicking, graft and the fall of the Republic](#), 27 September 2021. Accessed: 6 March 2024

["We need to breathe too": Women across Afghanistan navigate the Taleban's hijab ruling](#), 1 June 2022. Accessed: 11 March 2024

[From Land-grabbing to Haircuts: The decrees and edicts of the Taleban supreme leader](#), 15 July 2023. Accessed: 2 May 2024

The Afghan Journalists Centre (AFJC),

[Press Freedom Violations 2022](#), no date. Accessed: 17 May 2024

[Press Freedom Violations 2023](#), no date. Accessed: 17 May 2024

Agence France Press (AFP), [Faceless mannequins show off clothes in Afghanistan](#), 12 August 2024. Accessed: 14 July 2025

Al Jazeera, [The Taliban in Government: A Grim New Reality Is Settling In](#), 23 March 2023. Accessed: 8 May 2024

Amnesty International, [The State of the World's Human Rights, Afghanistan 2023](#), 24 April 2024. Accessed: 25 July 2023

Ariana News, [MSF "deeply concerned" over new phase of deportations of Afghans from Pakistan](#), 19 April 2024. Accessed: 22 April 2024

Ariana Television Network (ATN),

[Shabhaye Kabul: The market that stays open until midnight](#), 30 May 2025. Accessed: 16 July 2025

[Shabhaye Kabul: hidden secrets of Kabul's Nights](#), 11 July 2025. Accessed: 16 July 2025

[Sarai Ghazni and Recent Changes in Hafiz Amiri Special Report](#), 12 July 2025. Accessed: 16 July 2025

Armed Conflict Location & Event Data Project (ACLED), [Coding decisions on the Taliban, external forces, the fall of Kabul and more](#), updated 29 November 2023. Accessed: 23 April 2024

Armed Conflict Location & Event Data Project (ACLED) and Afghan Peace Watch (APW), [Two Years Of Repression: Mapping Taliban Violence Targeting Civilians in Afghanistan](#), 11 August 2023. Accessed: 23 April 2024

The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 (ACAPS),

[Forced return of Afghans from Pakistan](#), 7 December 2023. Accessed: 6 May 2024

[Who we are](#), no date. Accessed: 6 May 2024

ACAPS (@ACAPSproject), [Tweet dated 30 Apr 2024 @ 3:36PM](#), 30 April 2024. Accessed: 17 May 2024

Associated Press (AP) News,

[Afghan Taliban Kill 8 in Raids of IS Hideouts in Afghanistan](#), 5 January 2023. Accessed: 12 May 2024

[Taliban Use Stun Guns, Fire Hoses and Gunfire to Break up Afghan Women Protesting Beauty Salon Ban](#), 19 July 2023. Accessed: 12 May 2024

[The Taliban Are Entrenched in Afghanistan after 2 Years of Rule: Women and Girls Pay the Price](#), 14 August 2023. Accessed: 12 May 2024

Australian Government's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DFAT Thematic Report - Afghanistan - Political and Security Developments August 21 to January 22](#), January 2022. Accessed: 16 April 2024

Austrian Centre for Country of Origin and Asylum Research and Documentation (ACCORD), [Report on the impact of the Taliban's information practices and legal policies, particularly on women and girls](#), February 2025. Accessed: 14 July 2025

Azadi Radio, [The Taliban government banned the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in Afghanistan](#), not known. Accessed: 12 May 2024

BBC News,

[Afghanistan face veil decree: "It feels like being a woman is a crime"](#), 15 May 2022. Accessed: 11 March 2024

[Afghan Refugees Fear as Pakistan Prepares for Deportations](#), 1 November 2023. Accessed: 21 May 2024

[Hundreds of Afghan soldiers to be allowed to relocate to UK after U-turn](#), 14 October 2024. Accessed: 21 July 2025

BFA Staatendokumentation, [Afghanistan: Afghan legal system under the Taliban, version 2](#), 9 April 2024. Accessed: 8 May 2024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The Taliban in Afghanistan](#), 2014. Accessed: 2 May 2024

[The Taliban in Afghanistan](#), updated 19 January 2023. Accessed: 2 May 2024

CIA, [World Factbook](#), 22 May 2024. Accessed: 24 May 2024

Encyclopaedia Britannica, [Afghanistan](#), no date. Accessed: 6 May 2024

European Union Agency for Asylum (EUAA),

[Afghanistan Country Focus](#), December 2023. Accessed: 26 February 2024

[Afghanistan – Country Focus](#), November 2024. Accessed: 14 July 2025

[Country Guidance: Afghanistanhttps://euaa.europa.eu/country-guidance-afghanistan-2022/292-individuals-perceived-westernised](#), 24 January 2023. Accessed: 30 April 2024

[Situation of Afghan returnees from Pakistan amid the campaign linked to the "Illegal Foreigners' Repatriation Plan" \(IFRP\)](#), 14 December 2023. Accessed: 3 May 2024

[Afghanistan, Major legislative, security-related, and humanitarian developments](#), 2 February 2024. Accessed: 8 March 2024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24](#), 29 February 2024. Accessed: 21 May 2024

Foreign Policy, [I Wanted to Stay for My People](#), 9 February 2022. Accessed: 28 February 2024

The Hindu, [Taliban is 'particularly committed' to protect rights of Hindus and Sikhs: Spokesperson of Taliban 'Justice Ministry'](#), 16 April 2024. Accessed: 23 May 2024

House of Commons Library, [Research Briefing: Expulsion of Afghans from Pakistan and Iran](#), 8 December 2023. Accessed: 23 May 2024

Human Rights Watch, [No-One Asked Me Why I Left Afghanistan](#), 18 November 2022. Accessed: 23 May 2024

IFEX,

[Who We Are - IFEX](#), no date. Accessed: 23 May 2024

[Q&A: Confronting media challenges in Taliban-controlled Afghanistan](#), 15 August 2023. Accessed: 23 May 2024

International Crisis Group (ICG),

[Afghanistan's Security Challenges under the Taliban](#), August 2022. Accessed: 18 April 2024

[Toward a Self-sufficient Afghanistan](#), 30 January 2024. Accessed: 22 April 2024

The Independent, [Taliban appeal to Afghan private sector to help those fleeing Pakistan's mass deportation drive](#), 4 November 2023. Accessed: 16 April 2024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ISW),

[Taliban struggles to contain Afghan National Resistance Front](#), 7 September 2022. Accessed: 23 April 2024

[Taliban Governance in Afghanistan](#), March 2024. Accessed: 6 May 2024

Jackson A, [Negotiating Survival: Civilian–Insurgent Relations in Afghanistan](#), August 2021, (Hurst & Co Publishers)

JURIST, [Hazaras and Shias: Violenc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Under the Taliban](#), May 2024. Accessed: 11 June 2024

Kabul Now, [Fear and Nightmares: the dark life after Taliban captivity](#), 14 April 2023. Accessed: 27 February 2024

Khaama Press News Agency, [Turkey Deports 68,000 Undocumented Afghan Migrants](#), 8 January 2023. Accessed: 16 April 2024

Landinfo,

[About Landinfo](#), no date. Accessed: 22 May 2024

[Afghanistan Situasjonen for afghanske men](#), 20 January 2025. Accessed: 16 July 2025

[Departures and returns after Taliban's takeover of power](#), 29 September 2022. Accessed: 30 April 2024

Loyn D, [The scattered forces opposing the Taliban need support now](#), updated November 2023. Accessed: 12 May 2024

Middle East Eye, [Over 240,000 Afghan refugees deported from Iran and Turkey](#), 15 November 2022. Accessed: 16 April 2024

National Public Radio (NPR), [For Afghans who fought against the Taliban, life is fraught under their rule](#), 28 November 2022. Accessed: 26 April 2024

Netherlan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FA), [General Country of Origin Report Afghanistan](#) June 2023. Accessed: 16 July 2025

Open Doors,

[Afghanistan Full Country Dossier](#), January 2024. Accessed: 23 July 2024

[Complete World Watch List Methodology](#), October 2023. Accessed: 23 July 2024

Radio Farda, [Iran's interior minister says that 1.3 million foreign nationals were "deported" in the last year](#), 8 May 2024. Accessed: 17 May 2024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RFE/RL),

[The Azadi Briefing: Fear, Disillusionment Undermine Taliban's Efforts To Woo Exiled Former Afghan Officials](#), 28 July 2023. Accessed: 22 April 2024

[Taliban Bans Political Parties In Afghanistan After Declaring Them Un-Islamic](#), 17 August 2023. Accessed: 12 May 2024

[All Doors Are Closed For Single And Unaccompanied Afghan Women Under The Taliban](#), 31 January 2024. Accessed: 22 April 2024

[From Offshoot To "Spearhead": The Rise Of IS-K, Islamic State's Afghanistan Branch](#), 26 March 2024. Accessed: 12 May 2024

[This Is What It's Like To Be A Journalist Under Taliban Rule](#), 3 May 2024. Accessed: 17 May 2024

[Iran Seeks To Tighten Crackdown On Afghan Refugees](#), 8 May 2024. Accessed: 17 May 2024

Rahimi H, [Remaking of Afghanistan: How the Taliban are Changing Afghanistan's Laws and Legal Institutions](#), 26 July 2022. Accessed: 8 May 2024

Rahimi H and Watkins A for the Combating Terrorism Center (CTC) Sentinel, [Taliban Rule at 2.5 Years](#), January 2024. Accessed: 17 May 2024

Rawadari,

[About Us](#), no date. Accessed: 21 July 2025

[Afghanistan Human Rights Situation Report 2023](#) March 2024. Accessed: 11 March 2024

[Afghanistan Human Rights Situation Report 2024](#), March 2025. Accessed: 21 July 2025

[Human Rights Situation in Afghanistan: Mid-year Report 1 January to 30 June 2023](#) August 2023. Accessed: 27 February 2024

San Jose State University Human Rights Institute (SJSU HRI), [Human Rights Conditions for Hazaras in Afghanistan Under the Taliban Regime](#), 7 February 2023. Accessed: 11 June 2024

South Asia Intelligence Review (SAIR) of the South Asia Terrorism Portal (SATP), [Afghanistan: Women flogged into silence](#), Weekly Assessments & Briefings Volume 21, No. 25, 12 December 2022. Accessed: 8 March 2024

Special Inspector General for Afghanistan Reconstruction (SIGAR),

[Quarterly Report to Congress](#), 30 October 2021. Accessed: 6 March 2024

[Quarterly Report to Congress](#), 30 January 2024. Accessed: 6 March 2024

Swiss Institute for Global Affairs, [Vive la Résistance in Afghanistan? \(English Version\)](#), March/April 2022. Accessed: 17 May 2024

Times of India,

[Afghanistan: Afghan, Pak Sikhs to celebrate 'Parkash Purb'](#), 5 January 2024. Accessed: 25 July 2024

[Braving threats, Afghan Sikhs and Hindus uphold daily religious practices](#), 17 December 2023. Accessed: 25 July 2024

TOLOnews,

[6pm News – 15 July 2025](#), 15 July 2025. Accessed: 16 July 2025

[About Us](#), no date. Accessed: 16 July 2025

[TV Program](#), various dates. Accessed: 16 July 2025

UN Assistance Mission in Afghanistan (UNAMA),

[A barrier to securing peace: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former government officials and former armed force members in Afghanistan: 15 August 2021 – 30 June 2023](#), August 2023. Accessed: 26 February 2024

[Corporal Punishment and the Death Penalty in Afghanistan](#), May 2023. Accessed: 8 March 2024

[De Facto Authorities' Moral Oversight in Afghanistan: Impacts on Human Rights](#), July 2024. Accessed: 14 July 2025

[Human Rights Situation in Afghanistan: October - December 2023 Update](#), January 2024. Accessed: 27 February 2024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Enforcement and Impact of the Law on the Propagation of Virtue and Prevention of Vice in Afghanistan](#), 10 April 2025. Accessed: 18 July 2025

UN General Assembly (UNGA), UN Security Council (UNSC),

[The situation in Afghanistan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8/361-S/2023/678\]](#), 18 September 2023. Accessed: 8 March 2024

[The situation in Afghanistan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8/628-S/2023/941\]](#), 1 December 2023. Accessed: 27 February 2024

[The situation in Afghanistan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9/947-S/2025/372\]](#), 11 June 2025. Accessed: 15 July 2025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Operational Data Portal: Afghanistan situation](#), January 2024. Accessed: 24 May 2024

[UNHCR Afghanistan Voluntary Repatriation update 2022](#), 22 March 2023. Accessed: 24 May 2024

[UNHCR RBAP Afghanistan Situation - Voluntary Repatriation of Afghan Refugees | Quarterly Update July – September 2023 - Afghanistan](#), 18 October 2023. Accessed: 25 July 2024

[UNHCR RBAP Afghanistan Situation - Voluntary Repatriation of Afghan Refugees | Quarterly Update October to December 2023 - Afghanistan](#), 19 March 2024. Accessed: 25 July 2024

UN Human Rights Council (UNHRC),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Afghanistan, Report of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HRC/54/21\]](#), 11 September 2023. Accessed: 8 March 2024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Afghanistan,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Afghanistan \[A/HRC/55/80\]](#), 22 February 2024. Accessed: 8 March 2024

[Situation of women and girls in Afghanistan,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Afghanistan and the Working Group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A/HRC/53/21\]](#), 15 June 2023. Accessed: 12 March 2024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Afghanistan: Taliban's arbitrary arrests and detention of women and girls over dress code must end immediately, UN experts say](#), 2 February 2024. Accessed: 8 March 2024

[Afghanistan: UN experts call on the Taliban to immediately halt public floggings and executions](#), 16 December 2022. Accessed: 8 March 2024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 [2024 Annual Report](#), 5 May 2024. Accessed: 6 May 2024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USSD), ['2023 Country Report on Human Rights Practices: Afghanistan'](#), 22 April 2024. Accessed: 25 July 2024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USIP), [Taliban's Ban on Girls' Education in Afghanistan](#), 1 April 2022. Accessed: 6 May 2024 Uppsala Conflict Data Program (UCDP),

[\[Profile of the\] AFF](#), no date. Accessed: 17 May 2024

[\[Profile of the\] NRE](#), no date. Accessed: 17 May 2024

Voice of America (VOA),

[Taliban Say No Christians Live in Afghanistan, US Groups Concerned](#), 16 May 2022. Accessed: 6 May 2024

[Taliban Undertake Speedy Overhaul of Afghanistan's Justice System](#), 28 September 2023. Accessed: 8 May 2024

[Taliban: Iran Deports Almost 350,000 Afghans Within 3 Months](#), 11 December 2023. Accessed: 6 May 2024

[Back to Contents](#)

Sources consulted but not cited

ACAPS Analysis Hub, [Afghanistan: Understanding the key human safety and security issues that returnees to Afghanistan are facing](#), 16 August 2024. Accessed: 14 July 2025

Afgh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AISS), Salehi, A K, [An Inquiry into Taliban Theology: Deobandism with a Pashtunwali Flavor](#), 2024. Accessed: 16 July 2025

Afghanistan Analysts Network (AAN), [A Force for Good, or Source of Coercion? An Islamic scholar reflects on the Emirate's morality law](#), 21 April 2025. Accessed: 15 July 2025

Amnesty International, [The State of the World's Human Rights: Afghanistan 2024](#), 29 April 2025. Accessed: 14 July 2025

The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 (ACAPS), [Key risk areas to watch: January –June 2024 and beyond](#), 25 January 2024. Accessed: 6 May 2024

Austrian Centre for Country of Origin and Asylum Research and Documentation (ACCORD), [ecoi.net featured topic on Afghanistan: Overview of recent developments](#), 15 April 2025. Accessed: 18 July 2025

Bertelsmann Stiftung's Transformation Index (BTI), [2024 Afghanistan Country Report](#), March 2024. Accessed: 6 May 2024

The Diplomat, [Afghan Opposition Struggles Against Taliban Rule](#), 31 May 2023. Accessed: 12 May 2024

Human Rights Watch (HRW),

[World Report 2024 – Afghanistan](#), 11 January 2024. Accessed: 14 July 2025

[World Report 2025 – Afghanistan](#), 16 January 2025. Accessed: 14 July 2025

The Law Society, [Collapse of justice system in Afghanistan leaves countless at the mercy of the Taliban](#), 16 October 2023. Accessed: 7 March 2024

Office of the Commissioner General for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Cedoca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Belgium, [COI Focus Afghanistan. Migration movements of Afghans since the Taliban takeover of power](#), 14 December 2023. Accessed: 16 July 2025

State Secretariat for Migration SEM, [Focus Afghanistan Return from abroad](#), 14 February 2014. Accessed: 16 July 2025

Tolo News, [Supreme Court Appoints 69 Provincial Judges](#), 16 December 2021. Accessed: 8 May 2024

UN Human Rights Council (HRC),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Afghanistan,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Afghanistan, Richard Bennett \[A/HRC/58/80\]](#), 20 February 2025. Accessed: 16 July 2025

[Study on the so-called “Law on the Promotion of Virtue and the Prevention of Vic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Afghanistan, Richard Bennett \[A/HRC/58/74\]](#), 12 March 2025. Accessed: 18 July 2025

UN Assistance Mission in Afghanistan (UNAMA), [Update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Afghanistan: January to March 2025 update](#), 1 May 2025. Accessed: 18 July 2025

Voice of America (VOA), [Afghan Insurgent Groups Step Up Attacks, Political Campaign Against Taliban](#), 5 December 2023. Accessed: 16 May 2024

[목차로 돌아가기](#)

버전 관리 및 피드백

승인

다음은 이 문서의 승인에 대한 정보이다.

- 버전 5.0
- 2025년 8월 5일부터 효력 발생

내무부 민감 정보: 공개 금지 – 절 시작

이 절의 정보는 내무부 내부 전용 자료로 제한되므로 이 문서에서 삭제

내무부 민감 정보: 공개 금지 – 절 끝

[목차로 돌아가기](#)

이 문서의 이전 버전에서 변경된 사항

종교적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지 않는 무슬림 및

'서구화'와 관련된 추가 국가정보(13.4절, 16.3절 ~ 16.5절). 국가정황정보(COI) 업데이트에 따른 일부 평가 내용의 변경

[목차로 돌아가기](#)

내무부에 대한 피드백

내무부의 목표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신의 국가정황정보(COI)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내무부는 발행문서 품질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환영한다. 이 문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국가 정책 및 정보팀](#)(Country Policy and Information Team)에 이메일을 보내주기를 바란다.

[목차로 돌아가기](#)

국가정황정보독립자문단

[국가정황정보독립자문단](#)(Independent Advisory Group on Country Information, 국가정황정보독립자문단)은 내무부가 제공하는 국가정황정보(COI)의 효율성, 효과성 및 접근 방식의 일관성을 검토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국경이민국독립감사관이 2009년 3월에 설립했다.

국가정황정보독립자문단(IAGCI)은 내무부 국가정황정보(COI) 자료에 대한 제안 사항이나 의견을 받고 있다. 단, 국가정황정보독립자문단(IAGCI)은 내무부의 자료, 절차 또는 정책을 지지하거나 내무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국가정황정보독립자문단(IAGCI)의 주소와 이메일은 아래와 같다.

국가정황정보독립자문단

국경이민국독립감사관

1st Floor

Clive House

70 Petty France

London

SW1H 9EX

이메일: chiefinspector@icibi.gov.uk

국가정황정보독립자문단(IAGCI)의 업무에 대한 정보와 국가정황정보독립자문단이 검토한 문서 목록은 영국 정부 [웹사이트\(gov.uk\)](#)의 독립감사관(Independent Chief Inspector)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차로 돌아가기](#)